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발간하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정책의제의 형성부터 후보자의 공약평가까지 적극 참여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정책을 통한 원활한 소통은 정책선거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후보자가 공약을 작성하는 때에는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적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공약은행을 개설하여 유권자들로부터 공약을 제안 받고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하여 후보자의 공약작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3. 19.부터 4. 16.까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제1차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에서는 총 1,076건의 공약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서 우수공약 153건을 엄선하여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와 함께 ‘나는 후보자다’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전 30일(5. 5.)부터는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정보를 공개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는데 본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이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수록된 공약 제안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Part 1 사회·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

- 어린이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및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 2
- 버스 승강장 및 버스 운행표시 개선 2
- 지리적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차등적 의료보험 적용 3
-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우측설치 제도화 4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공동체 지원’ 4
- 공영자전거 ‘분당거’ 사업 실시 5
- 예산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지원 6
- 독거인 결연 복지 서비스 7
- 각 면 단위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회관 설치 방안 8
- ‘저출산 보육문제 및 고령사회’를 함께 아우르는 보육 & 일자리 정책공약 8
- 이름뿐인 어린이놀이터(공원)를 마을공원으로 바꾸자 9
- 일자리 창출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대상자 활용 방법활동 10
-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12
- 자전거 안심하고 타기 공약 13
-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복지 정책 13
-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17
- 보육시설 음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17
- 효율적인 교통신호등 시스템 구축 18
- 임산부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19
-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20
- 신호등 개편과 회전형 교차로 설치 21
- 김해지역 장애인 복지 혜택 알림 앱 개발 21
- 경기도 고양시 문화시설 주변환경 개선 방안 22
-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23
- 무료 셔틀버스 또는 노년층을 위한 버스 운행 23
- 탄천 정비를 통한 주민휴식공간 활용 24
-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 돌보기 25
- 미아 찾기 프로그램 강화 26
- 사랑의 봉고차 운행으로 농촌지역 노인진료 편의 제공 26
- 도심속의 활력소 서부천(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27
- 노인상호 돌봄 품앗이 사업 추진 28
- 서울시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내 보육시설 신설 29
- 춘천시 대학가 CCTV설치, 도보순찰 및 예약순찰 확대 29

- 버스 노선 안내도 설치 및 환승 거점 구역 선정, 버스 막차 시간 연장 30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31
- 지하철역 어린이집 운영 32
- 농촌 읍면단위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센터로 개편 운영 33
- 종교단체, 동호회, 학생회 등 지역단체를 활용한 지역방범활동 제안 33
- 강원도 내 철도 교통망 개선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 34
- 간병인제 확대 실시 35
- 주택가 주차장 해결방안 35
- 어려운 가족과 연계한 통합 가족 프로젝트 36
-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백만개미군단 육성사업 37
- 광역버스 노선 증편 및 신설 38
- 취약지역 비상소화장비 설치 확대 39
-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공간 활용 39
- 모든 버스정류장에 금연제도 운영 40
- 100세 시대에 맞는 보건소 운영제도 마련 40
- 교회시설을 주중 복지센터로 활용 43
- 울산 남구 삼산동 주차장 증설 및 불법 주차 해소 44
- 독거노인 담당공무원제 시행 44
- 지하철역에 노인일자리상담센터 설치 45
- ‘경기티켓(가칭)’ 상품개발로 경기도민 만족도 향상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 46
-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 마련 47
- 노인을 활용한 보안등 전담반 설치 운영 48
- 우유배달을 활용한 하안나눔공약 49
-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한 버스무임승차 편의 제공 50

Part 2 **경제·민생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51**

- 은퇴노인 인력 활용 방안 52
- 시내버스 - 지하철 무료환승 추진 53
- ‘은모닝택배’를 활용한 여성안전 및 노인 일자리 확보 53
- 자가형 통나무 건축학교를 통한 저가 통나무별장 건축 및 운영 55
-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통합신고사이트 개설 56
- 응답하라 2000 [마을 5일장] 57
- 군산을 다시 오고 싶은 군산으로 57

- 예방접종 때 다자녀 혜택 부여 58
- 자동차 정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59
- 재활용 쓰레기 분류 시설 상시 설치 60
- 폐지 수거를 동사무소에서 61
- 사교육 대책 61
- 다문화센터를 통한 외국인들과의 갈등 예방 62
- 농작물 재해 보험 보조금 지급 63
- 여성들의 가사노동, 보육문제의 근원적 해결 64
- 閉校(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설치 66
- 대가족 형태의 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68
- 도내 영세 영농인에게 유기질비료 전액 지원 69
- 북삼읍에 기차역(ktx 전용 역과 일반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 설치 69
- 일자리창출&저소득층 소득사업 71
-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권 확보 72
- 농어촌 및 광양, 여천간 급행버스 제안 73
- 강동지역의 빈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74
- 베이비 부머 세대 실직 예방 일자리 인프라 구축 76
-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용역 모니터링 정책 77
- 옥도면 어청도 관광벨트화 78
- 컨트리 투어 버스[Country Tour Bus] 운행 79
- SOC건설시 민자도입 방법 개선 80
- 재래시장희망닥터 80
- 잠실타박거리(신천먹자골목) 상점가 육성사업 81
-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관광단지 육성 82
- 불법 주정차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84

Part 3

교육·환경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85

- 신흥로 주변의 차량 운행 제한 86
- 북구 책숲(북 포레스트(book forest))사업 실시 87
- 중랑천 자전거길 및 보행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87
-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의 교통안전권 보장 88
- 수도권 경의선 이용 주민을 위한 교통분야 공약제안 89
-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도시통합관리 시스템구축) 90

■ 다산초당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단지 조성	92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 운영	93
■ 지정된 (흡연)장소외 區 전체의 전면적 금연 시행	95
■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북카페-작은 도서관 만들기	96
■ (가정용)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97
■ 실질적인 육아지원 대책 확대	97
■ 아파트 거래시 라돈 수치 의무 확인	98
■ 시민들에 의한 환경상시감시 박스 운영	99
■ 초록마을	100
■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립박물관 건립	100
■ 잘 안 보이고 충격 흡수 못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개선	103
■ 어르신들과 젊은이가 함께 하는 재능기부 나눔 만남	104
■ 초등생 등하교길 횡단보도 지킴이	105
■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남녀노소 안전지킴이 및 동네 안내소로 활용	106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리 설치	106
■ 환경에너지시설관리공단 설립	107
■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108
■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109
■ 공공기관 위치 안내시 시설물 규제 폐지	110
■ 시민 자전거 대여시스템	111
■ 자전거 도시 상주답게 자전거 도로 확충	111
■ 녹색교육 제안	112
■ 쓰레기 천지인 여의나루를 깨끗하고 쾌적한 여의나루로!	115
■ 시민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	116
■ 건강과 열정이 넘치는 동구 건설	117
■ 교육의 미래를 모두가 책임지고 개선하자!	117
■ 초중고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통학셔틀버스 도입	118
■ 지역도서관 도서 열람시간 연장	119
■ 도서관 / 청소년 센터 추가 증설	120
■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	120
■ 생활체육 활성화	121
■ 행복한 학교 만들기	122
■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123
■ 골목길 이중주차 문제 해결 방안	125
■ 방범 취약 장소에 방범카메라 설치	126

-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 126
- 도봉구 발전계획안 127
- 모든 계층에 교육, 문화, 복지 혜택 부여 128

Part 4 정치·행정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29

-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130
- 제증명서 인터넷 발급 확대 131
- 택시요금 표시판을 상단에 이동 설치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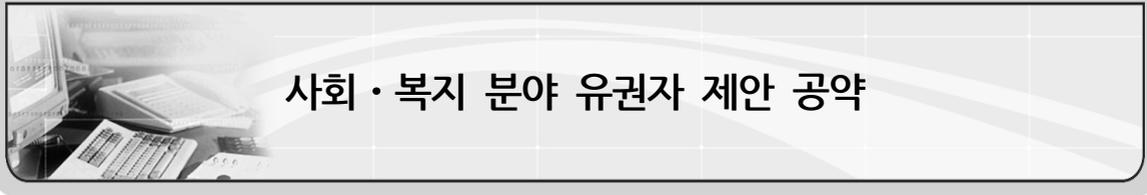
Part 5 기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33

-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134
- 농작물 및 농촌 자연 경관을 활용한 농촌공원 조성 135
- 애니메이션 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 136
- 각 지자체의 의안과 회의록을 통합하여 지자체의안포털 구축 138
- 대전시의 발전과 전국적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 139
- 교통안전관련 공약 141
- 군청이전을 통한 장흥읍 중심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상권 활성화 141
- 농촌지역 교육 및 경제 활성화 방안 142
- 금연거리 및 흡연구역 지정 운영 143
- 정읍시 자연휴양림 조성 144
- 작물정보센터 설치 운영 145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동승(카풀) 활성화 146
- 농업인 연구 및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 147
- 농촌 마을의 시골길 정비 147
- 공감 200%의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 148
- 옛 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 방안 149
- 문화 특구 개발 및 문화 복지 강화 149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제안 151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사회·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사회·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어린이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및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1.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및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 아동치료 문화센터 시설이 부족함
2.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아이의 교육 및 특성화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음

■ 추진방향

1. 자치구마다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
2. 장애아동만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학령기 이전 장애아동, 학령기 장애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된 치료시설(언어, 미술, 감각통합, 음악 치료 시설등)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시설을 마련함

제목	버스 승강장 및 버스 운행표시 개선	지역	전라북도
----	---------------------	----	------

버스승강장의 의자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어 의자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의 발이 도로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 버스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 해 주세요.

버스 승강장의 운행표시와 운행시간을 알리는 것을 LED전광판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면 현 시간표와 운행시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정조치해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알수 있는 현 버스운행노선을 수정조치 바랍니다.)

제목	지리적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차등적 의료보험 적용	지역	강원도
----	------------------------------	----	-----

☐ 제안사유

- 강원도 평창군같은 군, 읍, 면에는 보건소와 의원을 제외한 2~3차 의료기관이 없음에도
- 도시(또는 2~3차 의료기관이 입주한 군읍면)와 동일한 체계의 의료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충분히 의료보험료 차등적용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함.

☐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실정

-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 전문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자체가 평창군내에 없기 때문에
-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왕복거리 160~200Km에 위치한 원주시 또는 강릉시에 다녀오는 상황임
- 병원 치료가 1차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다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서울-부산 왕복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의료보험료 적용 방안

- 거리에 비례하여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숫자가 기준숫자 이하인 경우 차등적으로 의료보험료를 할인 또는 소득공제등의 세금혜택 부여

☐ 소요예산

- 평창군의 경우 세대수 20,106세대
- 평균 의료보험료 50,000원
- 감면액 : 10퍼센트
- 매월감면액 5,000원×20,106세대×12개월 = 연간 12억원

제목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우측설치 제도화	지역	경기도
----	---------------------	----	-----

현황

- 횡단보도내 보행신호등이 아직도 좌측에 설치되어 있음(좌측에 남아 있음)
(횡단보도 통행은 우측방향 노면표지 완료, 보행신호등은 좌측면에 설치)

문제점

- 횡단보도는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횡단보도 좌측면에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시선과 방향이 좌측으로 유도되어 보행혼란
- 사회적 약자계층(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어르신) 등은 동절기 도로가 미끄러울 때 좌측면의 보행신호등을 쳐다보면서 보행하다가 안전사고 위험
- 왼쪽 보행자로 인하여 휠체어, 어린이, 키가 작은 시민 등은 왼쪽 보행신호등이 잘 안보임
 - ※ 최근 휴대폰 사용인구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보느라 주변을 살피지도 않는 보행패턴으로 보행사고 위험노출
 - ※ 횡단보도 야간 보행시 시인성 부족(직선으로 보는 시인성이 가장 좋으므로 위험노출)

개선방안

- 횡단보도내 보행신호등 일괄 좌측 ⇒ 우측으로 이전설치(재정비)

제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공동체 지원'	지역	경상북도
----	-----------------------	----	------

5살, 2살 된 아이를 둔 교사이자 엄마입니다. 지금은 휴직중이지만 언제까지 휴직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가 3년 후면 초등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후 1시쯤이 되면 귀가를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직장관계로 그 시간에 마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1시부터 엄마가 올 때까지 혼자서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각종 아동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직장맘과 전업주부맘이 몇 몇 모여 육아공동체를 형성하면 낮에는 전업주부맘이 오후나 주말에는 직장맘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안심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도 학습하구요.

아마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뜻 먼저 시작하기가 쉽지 않

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육아공동체 형성에 지자체가 발 벗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나선다면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것이고,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직장생활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는 거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공동체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영자전거 ‘분당거’ 사업 실시	지역	경기도
----	-------------------	----	-----

☛ 목적

살기 좋은 분당구, 구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의 일환

☛ 실시 이유

분당구 주차난이 심각하나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이 제한되어 있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 체계와 공영자전거 설비를 완료함으로써 살기 좋은 분당구 이미지를 지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내용

분당구 내 공원 및 하천, 자전거 도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구민들이 자전거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세부내용

- 1) 구민증 발급 : 은행과 제휴하여 ic칩이 포함된 구민증을 발급하여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2) 자전거 설치 : 어린이용, 여성용, 남성용 나누어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 3) 자전거 도로 체계 완비 : 현재의 자전거 도로를 보완하여 안전, 능률을 고려한 전반적인 체계를 완성함.

☛ 관련 예산

구민증 발급의 경우 은행과 제휴하여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자전거 도로 정비는 성남시 관련 예산으로 집행함(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장기 사업으로 추진).

제목	예산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지원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 예산군은 86,745명 인구 중 3~4%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이 빈곤층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생활비의 약 55% 지출되고 있지만 몸이 아파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재 의료이용 실정

- 작은 의원은 예산읍에 국한되어 있고 종합병원급이상 병원자체가 예산군내에 없기 때문에
-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왕복 80km에 위치한 천안시로 다녀오는 상황이 많지만, 이도 돈이 없어 이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높고,
- 이들에게는 가난하면 아프고, 아픈데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서 방치되고, 방치되니 더 나빠져서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의료지원 방안

- 군청, 보건소 등의 기관, 주민들, 경찰, 노인회 등 방치된 사람을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한 팀을 이뤄 취약계층 중 의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를 발굴해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한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예산군 36,944 세대중 10%가량을 취약계층으로 추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30%가량 감면하고 그 외는 국고(60)와 지방세(40)로 지원하도록 한다.
- 예산군 내에 있는 준종합병원이 팀을 이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치료사업을 실시시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제목	독거인 결연 복지 서비스	지역	대전광역시
----	---------------	----	-------

독거노인 말고도 ‘독거인’이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비혼, 가족 해체로 인해서 혼자 사는 남성, 여성이겠죠. 나이 막론하고 말이죠.

가끔씩 혼자 사는 사람이, 생활고로 죽은지도 모르게 늦게 발견 되어 기사 속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들이 오히려 생존 여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방안은 이것입니다.

일단, 독거인을 파악하기. 먼저 이것이 시급하겠죠. 인구주택조사, 이런 걸 보다 정밀하게 하여 혼자 사는 가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어 거기서 또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걸로 1인 1 결연 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사나 복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여 이들과 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며칠 걸러 안부 전화를 걸어준다거나 생활 상태를 계속 확인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을 우선권으로 준다든지, 건강이 나쁘면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솔직히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 서비스 정확도 면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돈은 추가로 내야지만 세밀하게 병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죠) 제대로 된 정기검진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1인 1 결연은 복지사, 혹은 돌보미 직원들을 확대하여 독거인과 결연을 맺고 관리하는 의미를 두는 것이고 독거인 입장에서는 1인 1결연이겠지만, 그들과 결연한 복지사 혹은 돌보미들은 여러 독거인을 두는 거겠죠. 말로만 외치는 사회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의미에서 독거인을 향한 대책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모녀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해야만 할까요.

서류로 증명되는 소득과 가족 구성원으로 정작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목	각 면 단위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회관 설치 방안	지역	전라남도
----	-----------------------------	----	------

장성군은 전형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고장처럼 장성군도 젊은이들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거의 젊은 농촌 일꾼들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젊은층을 위하여 이들이 편히 휴식하고 또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지 않거나 또는 고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성군에는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함께 면 단위 노인회관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대부분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존재합니다. 각 면 단위마다 자율방범대는 물론이고 의용소방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도 청년 전부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각 면 단위마다 노인회관이 존재하듯이 청년회관이 존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면 단위마다 청년회관을 새로 건립하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각 면 단위에는 면사무소가 존재하며 면사무소마다 강당이 존재합니다. 이 강당을 이용하면 그다지 국민세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골청년들은 물론이고 읍내 청년들도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청년회관을 설치해 주세요.

제목	‘저출산 보육문제 및 고령사회’를 함께 아우르는 보육 & 일자리 정책공약	지역	대전광역시
----	--	----	-------

☛ 개요 및 현황

저출산 보육문제 및 경력단절의 여성층과 고령화시대의 시니어계층 일자리창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공약으로, ‘전국의 각 지역(동네) 초등학교를 활용한 국공립형 (부설)보육원, 유치원 운영정책 아이디어’ 제안

☛ 공약사항

즉, 초등학교내의 기존시설이나 추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영유아부터 유치원생까지 포괄하는 부설(또는 병설)형태로 운영하되,

1. 영유아 및 유치원생들에게 걸맞는 시설환경 중심의 리모델링

2. 범국가(지방)차원의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국가자격화) 지원 강화 확대
3. 경력단절의 여성층 및 고령사회의 시니어계층을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자격화 정책에 적극 유도 및 인력 POOL화
4. 영유아(보육)부터 유치원(어린이집)까지 초등학교와 연계된 보육 및 초등교육 정책의 일원화와 포괄시스템을 정립할수 있는 국가적 교육체계 확립
5. 필요시 각 지역별 국공립학교(중,고등학교)에 관련 국공립형 (부설) 보육원, 유치원시설 적용 및 확대

기대효과

1. 기존 초등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공립 (부설/병설) 보육원 및 유치원 확대 확충으로 저출산 정책에 기여
2. 전문화 된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 지원(국가자격화)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3. 경력단절의 여성층 및 고령사회의 시니어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육사 및 유치원 선생님 양성, 지원(국가자격화)정책에 유도함으로써 경험(보육측면 노하우) 공유 및 시니어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대
4. 국공립형태로 운영하여 현재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사설(사립) 보육원 및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대비하여 환경 및 운영면에서 질적 상승 효과
5. 부모들 측면에서 집과 가까운 동네의 초등학교를 활용한 보육원 및 유치원 증설로 비용절감(사립 활용시보다 저렴한 지원 대상 부모의 경제적 효과) 및 믿고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국가복지정책의 신뢰성 강화 기대
6.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필요시 증설 포함)함으로써 지역재정의 부가비용 절감 효과
7. 상기의 국공립 (부설/병설) 보육원 및 유치원 확대 확충으로 인한 사설(사립)기관과의 공정한 경쟁비교로 관련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에 일익 등

제목	이름뿐인 어린이놀이터(공원)를 마을공원으로 바꾸자	지역	대전광역시
----	-----------------------------	----	-------

개요

각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어린이 놀이터(공원)는 실제로 어린이가 별로 찾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공원)가 상당수이고 대부분 단순하고 노후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이 오래된 곳이 많아 이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리모델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가 찾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공원)가 대부분이듯 시대에 뒤 떨어진 오래된 놀이기구나 기존에 설치된 놀이기구들이 대부분 단순하고 노후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개선방안

이와 같은 각 동네마다의 어린이 놀이터(공원)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되,

1. 단순 놀이터를 지양한 환경디자인(웰빙, 로하스, 힐링시설 및 가족단위 테마별 자연생태 텃밭 체험장 중심) 중심 시설로 개선시켜 리모델링 실시
2.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테마형 마을공원화(범죄예방시스템 도입, 칼라 아스콘 및 우레탄 포장, 가로등 및 야간조명, 친환경 조경시설 설치포함)
3.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테마형(장미꽃공원, 조각회화공원, 체육근린공원, 환경생태공원, 전통정원형 공원 등)으로 리모델링 실시(지역배분후 순차적 개선)
4.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터(공원)에는 소규모형의 야외 인공분수나 인공 폭포시설(빛물 재활용) 및 놀이터 내를 연결한 레저스포츠 트랙(인라인, 킥보드 등) 구간화도 추가가능
5. 지역민(남녀노소)의 녹색공간과 소통의 장이 되는 녹색쉼터로 확대

☛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어린이가 찾지 않는 각 지역의 이름뿐인 어린이놀이터(공원)를 각 지역별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테마형 마을공원으로 새롭게 확대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자연생태적인 지역민(남녀노소)의 녹색공간과 소통의 장이 되는 녹색쉼터의 중심으로 탈바꿈 효과 기대

제목	일자리 창출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대상자 활용 방법활동	지역	부산광역시
----	--	----	-------

일자리 창출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안전한 KOREA 만들기 위한 방법활동 사업시행」

- ▶ 실업급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정부예산도 절약하고 일자리도 제공

☛ 제안사유

-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한 KOREA 만들기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 '03년이후 지구대 개편으로 인한 뒷골목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방범 순찰 강화로 치안서비스 강화
 - ※ 지구대 개편 : 파출소 2~3곳을 1개 지구대로 개편
- 경찰청과 시·도의 협력행정을 통한 방범순찰 강화로 범죄없는 KOREA 만들기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실업급여 대신 일자리 제공
 - 활동인원 : 10,000여명 >1,399개(지구대·파출소) 7명 내외 근무
 - ※ 부산시에 도입할 경우 500여명 일자리 창출에 3,600백만원 소요
 - 운영기간 : 6개월 단위
 - ※ 시범운영 후 범죄예방 효과에 따라 계속사업 검토
 - 근무시간 : 야간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09:00 ~ 07:00(5시간씩 교대 근무)
 - 총사업비 : 72,000백만원(1인당 150만원정도)
 - 채용방법 : 자체 선발지침을 마련하여 실직가정 및 청년실업자 등 신빈곤계층 및 실업급여대상자가 참여
 - 근무내용
 - 범죄발생이 높은 시간대 뒷골목 방범 순찰 강화
 -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찰강화
 -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사전 계도활동
 - 학원가, 유흥가 중심의 범죄발생 예상지역 이동파출소 근무 등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 형태는 주로 저소득이 대상이므로 실직가정과 청년실업자 대상 신규사업이 필요함
-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시행하는 청소, 산불, 공공근로 사업은 100~120만원대이므로 보통 4인 가족 생계가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임금 및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침에 맞는 인력선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03년도 이후 파출소 2~3곳을 통폐합해 지구대 개편으로 인한 취약 지역 및 우범지역 방범순찰 강화 필요성 대두

기대 효과

- 일자리 1만개 창출로 실직가정 및 청년실업자 등에 취업기회 확대 필요
- 실직가정과 청년실업 해소를 서민생활 안정에 도모하고 ‘강호순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 예방 효과
-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중심으로 운영해서 실업급여 줄 예산으로 조금 더 주어 실질적인 가정생계 유지
- '03년도 이후 지구대 개편에 따른 뒷골목 취약지 및 우범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

제목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	----	---------

현황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종시(조치원)는 요즘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나 많은 인구유입에 따른 맞춤형 국민건강 ‘둘레길’ 조성 필요

문제점

- 1)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관광코스 상품 부족
- 2)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오봉산 맨발등산로, 고북저수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미개발
- 3) 세종시(조치원)의 대국민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 미흡

대책

- 1) 기존 오봉산 맨발 등산로 등 인구 수요에 맞추어 부대편의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완 필요
- 2) 오봉산 하산로를 별도로 정비하여 인근 고북저수지와 연계하여 ‘둘레길’ 관광 상품 개발 필요

개선효과

- 1) 아름다운 세종시(조치원)에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상품 개발, 수익창출
- 2) 세종시민들의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시설 수요 부족 해소
- 3) 대국민 세종시의 아름다운 자연 이미지 제고

제목	자전거 안심하고 타기 공약	지역	서울특별시
----	----------------	----	-------

자전거 안심하고 타기의 공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도로 있으나 마나?!’ 현재 자전거 도로가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특히 심하게 주차를 하거나 간판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하거나, 앞에 있는 간판을 피하려고 위험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도로가 구분할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공공 자전거 대여 알람’ 현재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전거가 없거나,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때, 휴대폰 앱으로 가까운 공공 자전거 위치를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공공자전거 대여 하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탈때는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자전거 또는 도로의 흉물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무법천지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역사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과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있겠군요.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 합니다. 현재 길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보면 버려진 자전거, 장기 보관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고가 자전거를 거치 시키면 도난당하기 일쑤죠. 그래도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많은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복지 정책	지역	경기도
----	--------------------	----	-----

☛ 제안 이유

- 2013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약 48,955,203명이며 지난 2013년 통계치에 따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12.2%인 613만8천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

중 독거노인 수는 약 20%인 125만2천에 이르는 상황인데 그 중 약 30만명이 넘는 노인이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20년 이후에는 독거노인층의 비율이 40%를 육박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초 고령화 시대가 到來됨은 당연지사로 전망된다.

- 그러나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 혜택은 실제적인 수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실태이다.
- 초 고령사회의 到來를 대비한 좀 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 제안 목표

- 1)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확한 인구 수 파악(現, 주거하고 있는 실제 주거지 기준의 현황 파악)
- 2)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식주 문제 방안 확립
- 3) 다각적인 노인 부양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동체 소속감 및 노인 소외 현상 해소
- 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여가 생활 증진으로 지역별 경제 활성화와 노인 자아실현 확립

■ 추진 방법

- 1) 국민임대주택을 이용한 노인주거 보급화를 확대
 - 전국에 저소득층과 소외 국민들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을 추가로 더 보급하도록 실제적인 주거현황과 독거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추가 보급되는 일정부분의 할당량을 독거노인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우선 분양토록 한다.
 - 좀 더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 보급화를 위하여 1주택에 3~4명의 독거노인들이 함께 기거하도록 하여 고독사의 위험 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간의 공동체 생활로 인해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 2) 단체 급식을 이용한 음식나누기
 - 학교 급식을 예를 들면 어느 학교나 점심식사 후 음식물이 남게 된다. 많은 학교들이 그 여분의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여 버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남게 되는 음식물을 깨끗한 도시락이나 용기에 포장하여 독거노인들에게 당일 배급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굶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등 급식을 이용하는 단체와 지역별 협약을 맺은 후 관리)
- 3) 노인 일자리 창출
 -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사업체에 지급한다.(세금 감면 등)

- 고령촉진장려금제를 도입시켜 사기업에서도 노인들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킨다.
- 관청차원에서 '실버카페'를 만들어 고용인 모두를 노년층으로 한 서비스업을 담당한다.
- 명예 근무 형태의 일환으로 각자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마인드 컨트롤 상담업무를 맡아 젊은 직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힘들어 하거나 경험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직장 Help Desk를 만들어 쉽사리 직원들 사이에 얘기할 수 없는 일이나 일상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직을 만들어 회사 속에 고향의 쉼터 같은 공간을 형성토록 한다.
- 고령자 취업을 위한 전문 기관을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하며 노인계층을 위한 All-in-one 업무가 가능토록 한다.

4) 노인 부양가족 활성화 대책 도입

-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세금혜택 및 의료보험 경감(부양가족에게 혜택)등을 실질적이고 비중 있게 지원토록 한다.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혜택추진)
- 부양가족 의료제 도입으로 부양가족에게 의료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별, 연령별, 건강별로 세분화 시켜 부양가족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여 버려지는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화를 도입시킨다.
- 국가 차원에서의 노령보험제 실시로 치매, 중풍 등 고령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등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요양시스템을 마련토록 한다.

5) 연금 및 보조금의 현실화 정책추진

- 기초노령연금을 세부적으로 더 확대시켜 수급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에게도 교통비며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 보장금을 지급토록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금 선정 기준을 부양가족 유무가 아닌 실제적으로 부양을 하는지에 대한 실사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실제적인 지급이 가능토록 현실화를 추진한다.

■ 추진 기한

- 임대주택 보급화와 부양가족 활성화 및 연금 보조금 관련의 추진 사항은 관련기관의 정책 수립이 완료되어 기관조정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당기에 계획하고 차기에 실행해야하는 관계로 1년 이상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단체급식에 따른 음식 나누기는 각 지역별 관청과 교육청, 학교 측의 동의와 계획만 수립된다면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 노인 일자리 창출의 기한은 세금감면이나 정년퇴임 시기 등의 법상 관련이 있는 조항은 1년 정도의 기한이 예상되며 기업체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Helpdesk 상담직은 수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 자원조달방법

- 주거에 따른 조달은 1주택에 여러 명이 함께 동거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1주택 다수명의 공간 활용화를 수립하여 경제적인 비용 절감을 하도록 한다.
- 실버기금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평상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어느 누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실버기금센터를 만들어 단돈 1,000원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토록 한다.
 - (1) 각 카드사의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과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용이하게 활성화 시킨다.
 - (2) 연말 불우이웃 돕기처럼 실버기금을 납부한 기업체나 개인에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그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3) 매년 행해지는 노인의 날 행사를 크게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모바일과 마스크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기금처럼 TV나 지역방송 등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전화 한 통화에 1,000원이나 2,000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 단체 급식을 이용한 음식나누기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군부대 등의 여유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된다.

📌 성공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양평(경기도)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계층이 많은 편이며 특히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실상이다. 학교나 관청, 지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조금만 더 전환하고 정부 측에서 부양가족들을 위한 혜택 부분을 보장한다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독거노인들은 줄어 들 것이다. 양평에는 가슴 따뜻한 풍경을 매주 접하게 된다. 양평 역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행해지는 <사랑의 밥퍼>라는 행사에는 항상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는 정성 가득한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그러나 점심식사 후 몇몇 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슴이 저리는 일을 겪게 된다. 그것은 조그만 비닐 봉투에 먹고 남은 일부의 음식을 남겨 가려고 애쓰는 노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정착된다면 그러한 슬픈 사연은 없어 질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공동체 속에는 날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울타리도 함께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함께 하는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마련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양평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지역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모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	충청북도
----	-------------	----	------

노인이 단순히 환경미화나 아이 돌보거나 경비 같은 단순하면서 고된 일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의 학업과 연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농촌과 학교간의 상생하는 법을 만들어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학생들에게는 어른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어른을 공경하게 되는 길을, 여는 길을, 맺어주는 길을 열어준다면 노인과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업분야는 농사짓는 일을 학생들의 과학영농과 노인들의 토종농법 그리고 노인들의 토지대여와 학생들의 실습.

그렇게 해서 디자인과와 문학과의 도움을 받아 판매까지 연계하는 배움과 생산을 동시에 함으로써 학비를 벌고 실전에 나갔을 때 졸업과 동시에 농업회사운영과 노인들의 토지 사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토지 사용료로 안정적인 노후보장 그리고 학생들은 농업과 다른 분야가 같이 합해짐으로써 고용확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득증대를 가져 오게 되니 노인이 힘든 환경미화나 경비 등을 하지 않아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학분야도 마찬가지다. 노인들을 우선 건강하게 치료해 줌으로써 노인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스포츠분야도 대학에 노인스포츠학과를 확충해 노인이 질높은 건강생활을 함은 물론 학생들이 노인스포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노인과 학생들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학을 노인과 연계해서 산업화시키는 방안이다.

나는 이 법을 ‘너네들에게 우리가 필요해’라는 법으로 만들어 노인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닌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우리민족의 전통인 효사상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전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 되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이 법을 공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보육시설 음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지역	경상남도
----	---------------------	----	------

보육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관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지금의 보육시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무상교육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고,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보내라는 식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받아챙기고 추가로 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잇속을 챙기기 바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 기간을 주고 쓰리아웃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경고를 3번 받게 되면 보조금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육 시설의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부모가 알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안좋은 사례들을 보면 집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였는데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이거나 김치만으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의 위생상태나 음식의 유통기한 등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어린이집 식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효율적인 교통신호등 시스템 구축	지역	부산광역시
----	-------------------	----	-------

다른 지방(서울 포함)에서 친구들이 오면 몇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지만 답답한 그리고 공감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안은 그 답답함 중 한가지입니다. 바로 운전 에 관한 것입니다. 남구라고 넣어뒀지만 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 교통 흐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진 도로입니다. 육교가 없어지고 전부 건널목 신호등입니다. 쪽 뺨은 도로에 7개 정도의 신호등이 보입니다. 차는 바로 앞 신호등에 멈춰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등들은 전부 초록불입니다. 신호대기가 풀려 진행합니다. 2~3개 정도의 신호등을 지나니 다시 빨간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진 도로에서도 신호등들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변합니다. 운전할 때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시간만 5분이 넘습니다. 5분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 끝에서 끝까지 가야하는 경우 길게는 20분 이상 지체됩니다. 실제 경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도로 부산의 대동맥이 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 신호등 체계가 정리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렇게 정리만해도 차량 흐름이 더 부드러워질 듯합니다. 쓸데 없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니 연료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로변 주정차 단속 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정리합시다.

분명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부산 시내 그 많은 도로를 매번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이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듯합니다.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대로에 주정차를 근절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와 교통신호만 정리해도 운전하기 힘든 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듯합니다.

제목	임산부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지역	대구광역시
----	-----------------	----	-------

현황 및 문제점

- 임산부의 경우 배가 불러 올수록 혼자 이동하기가 힘들어지며 짐이 있거나 아이를 동반한 이동시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음
 - * 특히,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배우자가 해외근무 등으로 혼자 있게 되는 임산부의 경우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태아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임신초기나 산달이 다가올수록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위험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나 매번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됨

개선내용

-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 시행
 - 임산부에게 임신기간동안 정해진 횟수 및 일정한도액만큼 택시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이용택시 할인서비스 시행(택시할인권 또는 임산부 교통카드 제공 등)

기대효과

-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
- 국가적 저출산문제 해소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제목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지역	대전광역시
----	---------------------------	----	-------

지방 조례에 따라, 혹은 자율적으로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번씩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취지는 그 휴무일날 시민들이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휴무일에는 그 주변의 대형마트 혹은 백화점 식품코너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대형마트를 가기 때문에, 카드도 쓸 수 없고, 품질이 보증되지도 않는데다가, 대부분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가 복잡한 전통시장을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위의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에 대한 보증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에 붙여져 있는 ‘국산’ 과 전통시장에 쓰여져 있는 ‘국산’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커보입니다.

채널 A의 먹거리 X파일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짜굴비나 꼬막에 대한 단속, 또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돈 몇푼내고 차라리 원산지를 속이는 편이 이익이 더 남는다고 상인들은 이야기 합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착한식당’등을 선정해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담당 구청의 담당과를 찾아가 관리 소홀에 대해 항의하면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대형마트문을 닫게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제안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있으면 검토해주시고, 더 좋은 방안을 택해주시시오.

1. 전통시장끼리도 경쟁을 붙여 적자생존하도록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전통시장’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2.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좋은 시장을 ‘엄선’하여 포상해줍니다.
포상의 예 : 선정된 시장용 상품권을 정부에 구입해 민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 등
3. ‘착한시장’으로 선택된 곳의 품질관리를 주기적으로, 엄격히 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합니다.
4. ‘착한시장’ 타이틀을 1년 주기로 다시 선정해 다른 시장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5.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시설 확충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목	신호등 개편과 회전형 교차로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	--------------------	----	-------

현재 신호등의 운용에 있어서 교통량과 대비하여 신호가 지나치게 짧거나 소통량 대비해서 신호 주기가 지나치게 긴 구간들이 있습니다.

해당 신호등을 현재 자동 타이머 식에서 반응식(버튼 또는 동작 감지)으로 교체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좀 더 보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회전형 교차로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성북구 내에는 회전형 교차로가 몇 곳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회전형 교차로가 생기고 나서 크게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매년 사고가 빈번하던 아파트앞 교차로가 회전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전형 교차로를 설치하면 사고 위험도 줄일 뿐더러 교통 체증도 완화 할 수 있고 또 교차로 중간지점은 보행자들을 위한 신호 건널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해지역 장애인 복지 혜택 알림 앱 개발	지역	경상남도
----	------------------------	----	------

지인 중에 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현재는 장애인 혜택 관련하여 혜택 사항을 우편으로 받아 보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관련 사항을 보아도 상당히 복잡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장애인 혜택 자동 산출 프로그램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국가전세자금대출 인터넷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의 상황을 항목에 따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월 납입금과 이자율이 나오는데요. 장애인 혜택도 자신의 급수와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혜택 사항이 바로 산출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에 따라 수혜를 받아야하는 장애인들이 받지 못한다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겠지요. 김해지역만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기도 고양시 문화시설 주변환경 개선 방안	지역	경기도
----	-------------------------	----	-----

경기도 일산쪽(킨텍스·아람누리·호수공원·웨스턴돔 등)과 덕양구(어울림누리)는 문화 시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하려는 공약은 문화시설 근처에 쓰레기통이 더 많아지고 환경미화원을 근처에 많이 배치하여 더러운 거리를 청소하자는 것입니다.(깨끗한 거리 만들기) 아마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보다 더 시민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거라 자신합니다.

☛ 공약을 위한 쓰레기통 디자인 공모

문화시설에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으나 투박한 모양의 쓰레기통은 시설에도 어울리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깨끗한 도시 - 담배 제한구역

문화시설이 밀집된 구역은 담배를 제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흡연이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피해를 줍니다. 문화시설에는 사람들이 매우 밀집되어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큼니다. 무조건적인 제한은 불필요하며 담배박스 같은 것을 세워 놓아도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 담배 프리(FREE)존을 만들어 그 곳에서만 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환경미화원배치

문화시설 밀집구역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다니다보면 쓰레기가 넘쳐 흘러 더럽혀진 쓰레기통이 많습니다. 바로바로 비워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더러운 시민의식,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시켜 더욱더 깨끗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제목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지역	충청남도
----	---------------------	----	------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법인택시 회사에서 1대씩 운영하는 복지콜택시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3개가 따로따로 운영중인데 저는 시각장애인 1급이라 이용대상을 봤을 때 3곳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배차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3곳 모두 전화를 걸어 콜을 요청해서 제일 먼저 배차되는 것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또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해야 하며, 문자나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식사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심부름센터의 경우 차량 운행시간은 길지만 센터 콜 배차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어 근무 시간 외에는 차량이 돌고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흩어져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하나의 콜센터에서 관리하여 이용대상에 적합한 최단거리에서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배차하고 취소신청을 처리할 것
2. 전화량 폭주를 대비하여 스마트폰 및 SMS,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3. 교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식사 시간에도 소수의 차량이 운행되게 하고, 야간에 차량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하여 소수의 차량만으로도 24시간 운행할 것
4. 심부름센터의 경우 요금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

이상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꼭 좀 살펴봐주시고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료 셔틀버스 또는 노년층을 위한 버스 운행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	----	---------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자주 다니지만 제주 도민으로서 느끼는 제주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는 5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관광도시에는 무료 셔틀버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주에도 제주시내 안에서 무료 셔틀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생각했고 주위에서도 시내 무료 순환버스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터미널 시내 주요 관광지(관덕정, 동문시장, 용두암 등)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시면 불편할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노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현재 버스 안에 노약자석은 불과 몇 개 되지 않기에 앞좌석 10자리 정도는 의무적으로 노약자석으로 지정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일단 무료 순환버스는 한 달 정도 시범운행을 해보고 관광객과 도민의 의견을 제안 받고 설문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구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탄천 정비를 통한 주민휴식공간 활용	지역	경기도
----	---------------------	----	-----

탄천은 휴식공간으로도, 운동을 위해서도 곧잘 찾아가는 소중한 곳입니다. 거주지가 많은 베드타운인 수지구에서 탄천의 역할은 무궁무진하지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탄천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운동 삼아 탄천을 걷다 보면, 늘 다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걷고픈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용인시의 탄천은, 걷다가도 길이 막히거나 걷기에 적절한 곳이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또 수지구의 다른 곳을 가면 정비가 잘 되어서 걷기 좋은 곳은 좋은데, 아닌 곳은 또 너저분하게 방치되어 있고요. 하나로 연결해서 어디든지 걷기 좋은 탄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고 수지구 이곳저곳을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탄천에서 문화행사를 하거나 일부 지역은 공원처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탄천 자체를 정비하는 게 우선인 듯 하네요. 탄천을 따라 용인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고, 소요예산이나 재원조달방안은, 역시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처 분당의 경우를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분당에 살다가 와서 그런지 탄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 돌보기	지역	부산광역시
----	------------------	----	-------

☛ 무엇을

동구는 주로 맞벌이 가정이나 노손자녀 가정, 소년소녀가정이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실도 비용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비전스쿨을 운영했으나 교회단독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계속 운영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동구청을 중심으로 이런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들 교육과 돌보는 재정적·인적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떻게

일단 기존의 아동돌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외에 이런 사업이 가능한 종교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의 가능여부(지역아동 실태파악이나 확보가능여부 등)를 판단하여 아동돌보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행정적 지원입니다. 현행 방과 후 학습이나 아동돌보기 사업을 등록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는 동구지역 내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현재 교회 같은 장소는 주중에 비어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 지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동안 교회 자체 재정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나 교회규모에 비해 아동이 많아서 결국 얼마 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 지원해야 되는 인력, 교육프로그램, 식사봉사 등에 소요되는 인력/재정이 막대하게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부분 동구청에서 기존의 방과 후 교실 지원 외에 실제적으로 방과 후 학습에 참여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원하는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1,2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의 재정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나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3년 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1회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최대지원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산 확보와 배분

시작은 구청에서 아동복지 사업들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기타 다른 사업

들의 불요 사업의 예산 일부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자체의 예산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등 기관지원 예산 50%, 자체 예산 30%, 후원금등 20% 로 확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미아 찾기 프로그램 강화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은 아이를 찾는데 매진하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

☛ 무엇을 : 현재 진행중인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국가적, 광역단체적 차원에서 강화

☛ 어떻게

가. 아동 보호시설의 DNA 수집 강화(현재 수집된 DNA도 시설 아동의 것이 확실한지 다시 검토) - 확실하게 인증이 된 아동에게만 보조금 지급(불법 보조금 취득 방지)

나. 국가적 차원의 미아 찾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개발 - 미아발생시 아이 사진을 업로드, SNS의 접목을 통하여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

☛ 언제까지 :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 소요예산 : 해당 부서의 검토 필요

☛ 재원조달방안 : 해당 부서의 검토 필요

제목	사랑의 봉고차 운행으로 농촌지역 노인진료 편의 제공	지역	충청남도
----	------------------------------	----	------

시골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도심에 있는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또는 택시를 타고 병원진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장성한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모시고 다니면서 진료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할 때는 노인분들끼리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할 때 국가예산으로 승합차를 마련하여 진료예약하신 어르신 4~5명을 모시고 운전자 1명, 도우미 1명으로 운전을 하고, 병원에서 진료까지 상담을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을별로 진료가 필요한 노인분들을 파악하고 예산을 파악한다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일정을 잡을 수 있고 도심의 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어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조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해서 계획해서 잡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도심속의 활력소 서부천(서부간선수로) 환경개선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계양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도심속 활력소 서부천(서부간선수로)이 제대로 된 운영과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반풍이 산책로가 되가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문제점 1. 현재 서부천 산책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녁시간, 주말에는 자전거 통행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구석구석 안내표지판은 많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심할 때에는 지역 농사하시는 분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의 오토바이 통행도 잦은 상태입니다.
- 문제점 2. 서부천에 물이 없으면 악취가 심각하고, 물이 많으면 다리밑 산책로는 침수가 되기 일쑤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부천 산책로는 계양경기장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얼굴로써 가볍게 관광객들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 입니다.
- 문제점 3. 치안유지 기능이 미비합니다. 서부천을 산책하다보면 CCTV가 워낙 적습니다. 가족 단위 혹은 야간·새벽에 운동을 하는 경우 아주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점 4. 엷히고 설킨 산책코스가 문제입니다. 산책코스의 중간에 산책로가 끊기고 차량 통행이 잦은 일반도로를 경유해야만 다음 산책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인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및 단속,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 만큼 산책로 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본적인 목줄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에는 이쁜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변봉투도 없이 다니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산책로에 방치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서부천 산책로 내 감시요원을 배치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범칙금을 부과해 발생한 예산으로 산책로 내 자전거, 낚시, 반려인들의 목줄과 배변봉투 감시를 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를 연계해 꼭 CCTV가 아닌 비상벨 혹은 연락수단을 산책로 내 비치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인상호 돌봄 품앗이 사업 추진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식구가 없이 외로운 독거노인과 1인 가족이 많다. 이런 분들을 옛날의 두레공동체와 같이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노인상호 돌봄 품앗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처럼 식구처럼 지내면 노인들의 고독사와 1인 가족의 소외현상과 마을 어르신이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경우 많은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주요 내용

가. 무엇을 : 마을을 집개념으로 생각하여 1인 가족의 소외현상 및 개인문제를 돌봄 품앗이 사업으로 확대하여 해결해보자는 것임.

나. 어떻게

- 1) 마을상호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지정: 집성촌이나 마을주민이 적은 마을을 전국에서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마을을 집개념으로 시범마을을 지정한다.
- 2)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두레공동체 추진 계획 수립
- 3)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소통 프로그램 및 전문가집단의 멘토역할 추진
- 4) 돌봄 품앗이 시범마을 전국적 확대 실시

다. 언제까지 : 10개년 돌봄 품앗이 추진계획으로 2024년까지 추진

☐ 소요예산 : 시범마을당 1억씩×10개마을 =10억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에서 예산 마련으로 실시

제목	서울시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내 보육시설 신설	지역	서울특별시
----	-----------------------------	----	-------

현황 및 문제점

올해 5살 4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로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이들 보육문제입니다. 각 동네마다 어린이집이 있으나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외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안

서울시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행정동별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장소 및 공간이 있어야 하며 시설 이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만 시민들이 출·퇴근시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및 차량기지 내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관계 법령을 검토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을 신설해 주신다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제목	춘천시 대학가 CCTV설치, 도보순찰 및 예약순찰 확대	지역	강원도
----	--------------------------------	----	-----

제안이유

춘천시 대학가는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우범지역입니다. 최근에도 폭력사건, 성폭행, 심지어 영아유기 등 끔찍한 범죄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지역 내에 아동들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경찰의 치안 유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보순찰은 지역의 특성상 주로 차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상습범죄자들에게 좀더 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예약순찰 등을 확대하여 지역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1) CCTV설치

주거지역 내 상습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곳 우선으로 골목입구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
지역내 대학과 학교의 2학기 전에 설치 완료. (약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완료하여야함)

2) 도보순찰

효과가 미비한 경찰차량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을 확대합니다. CCTV설치 지역과 연계하여
더 골목을 위주로 순찰하고 예약순찰을 홍보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합니다. 대형현수막으로
홍보하여 그 자체만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얻어냅니다.

도보순찰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하고 예약순찰을 홍보합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1) CCTV설치

춘천시는 도내에서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재배정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여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대학가 중심 40여 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재원은 기존 치안유지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대학(한림대, 강원대)에
협조를 구합니다.

2) 도보순찰 및 예약순찰

기존에 차량순찰을 위주로 했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자체적인 방범대를 만들도록 홍보 및 유도를 합니다. 새로운 재원을 조달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력과 홍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제목	버스 노선 안내도 설치 및 환승 거점 구역 선정, 버스 막차 시간 연장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 대중교통(버스) 이용 불편에 따른 건.

📌 주요내용

1. 버스 정류장에 구체적인 버스 안내도(경로 및 시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버스 막차 시간을 수도권처럼 연장하여 업무 및 연장근로에 따른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함.
3. 모든 버스가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어져있는데 중간 중간에 환승 거점 구역을 개설하여 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었으면 함.

☐ 소요예산

- 안내도 설치 - 대략 1,000만원
- 버스 연장 운행 건 - 대략 1,000만원

☐ 재원조달방안 :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조달

제목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최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교복비가 저소득층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20~30만원 하는 교복구입비를 부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천안은 아직 교복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가정의 자녀들은 이미 급식비, 교육비,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교육비 등을 지원을 받고 있다. 교복 구입비가 20~30만원에 달하고 있는 요즘 교복 구입비는 이들 가정에서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이미 전라도지역과 울산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좋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지원

제목	지하철역 어린이집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최근 국가의 가장 큰 이슈 및 어젠다는 저출산 극복임.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직장과 아기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에 어린이집(정기회원, 일일회원)을 운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함.

☐ 주요내용

- 무엇 : 주거밀집 구역 지하철역에 어린이집 설치(정기적으로 맡기는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으나 추가적으로 아직 필요할 것이며, 출근길에 맡기고 퇴근길에 찾는다는 장점과 안전한 곳에 위치하였다는 장점이 있을 것임. 또한 수시로 필요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일회원을 받는다면 자가 차량대신 아기를 맡기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어떻게 : 동작구의 대부분의 지역(사당역, 노량진역 제외)은 극심하게 붐비는 지하철역이 아니고 상도, 송실대입구, 내방, 이수, 동작, 흑석, 노들, 대방, 장승백이 등의 역은 역에 빈 공간도 많고 일부 상가시설 대신 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함. 이 경우 출·퇴근길에 시간의 낭비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 편리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해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전문가 직원과 접근성이 좋은 만큼 유아교육과 학생들 아르바이트 및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지원해 준다면 인건비도 절약가능할 것임.
- 언제 : 지하철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점

☐ 소요예산

지하철역에 각종 시설, 상가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면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지하철역 자릿세·초기 시설 설치비·추후 운영시 각종 유틸리티와 인건비 등이 들어갈 것임

☐ 재원조달방안

시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일일회원의 경우 급해서 이용하는 만큼 적정수준의 이용료를 지하철 타는 티머니 혹은 후불제 신용카드로 받고, 정기회원은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음

제목	농촌 읍면단위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센터로 개편 운영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로 고령의 독거 단독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노인들이 의(衣)식(食) 등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급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연락부재 고독사 증가 등 삶의 질 저하 우려.

☛ 주요내용

- 기존 마을회관을 노인복지센터로 확대 개편 운영
- 1단계 : 공동으로 노인식사를 할 수 있는 취사시설 마련
- 2단계 : 목욕, 운동, 여가를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시설조성
- 3단계 : 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1달에 1번 이상 정기 순회진료

☛ 소요재원 : 각종 수익복권 이익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

☛ 파급효과

- 초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 공동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마을회관)를 만들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

제목	종교단체, 동호회, 학생회 등 지역단체를 활용한 지역방범활동 제안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주요내용

현재 엄청난 치안수요로 인해 경찰력만으로 학교나 지역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성당 등의 청년회나, 사회 동호회, 대학교 학생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면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효과로는 첫째, 범죄예방효과 / 둘째, 시민들 스스로가 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 셋째, 범죄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음. /넷째, 사회활동 참여로 인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가 있습니다.

☐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꼭 자원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라든지 국가나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무료혜택, 또는 봉사활동 점수인정 또는 봉사활동 가맹점 이용 시 할인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패나 상장수여처럼 자긍심을 높여주는 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도 내 철도 교통망 개선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	지역	강원도
----	------------------------------	----	-----

오늘날 대중교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간의 교통은 나날이 편리해져 갑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춘천 지역을 보더라도, 경춘선이 개통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춘천역과 춘천역을 통해서 출퇴근 혹은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서울지역 많은 이들이 경기도와 춘천의 명소에 경춘선을 타고 여행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철도사업 혹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영월지역은 앞서 이야기한 교통의 편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대학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한지도 어언 3년차입니다. 그동안 고향집을 오가며 느낀 저의 생각은 강원도는 타 시도 지역과의 교통에는 많은 정책과 노력을 쏟지만 강원도 내 시군간의 접근성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영월에서 춘천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편도로 소요되는 총 3시간입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중간 환승지인 원주에서 갈아타야 되며 충북 제천을 경유하기 때문에 더욱 불편합니다. 저의 주변 선후배 중에는 저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이렇게나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강원도 내 철도 교통망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철도망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광역철도와 강원도 내 특정 도시지역을 연결하기 위함이며 교통이 불편한 도내 다른 지역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이루어질 철도 사업의 연장선으로 도내 소도시의 철도노선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도내에는 접근성이 취약한 많은 소도시가 존재합니다. 이들 지역과 강원도의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원주,

강릉 사이의 철도노선을 확충하여 도내 교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편의와 관광객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따지자면 강원도 내의 철도 노선을 정비하고 철도교통망을 활성화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병인제 확대 실시	지역	울산광역시
----	------------	----	-------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병원에 간호사가 있지만 간병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인을 구하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 기간 : 2014 ~

■ 예산 : 환자 1인 1일 2~3만원정도의 개인간병비 책정

■ 재원 : 국비 및 시비 복지예산 확보

제목	주택가 주차장 해결방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본인 주차장 및 시간대와 요일별 남아도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거주자우선 주차장, 교회 주차장, 공공시설 주차장 등등)

위 주차공간 확보로 주택가 및 지역방문자와 주차 시비 해결

■ 주요내용

거주자 및 주인이 우선 주차장 사용권

단, 거주자 및 주인이 주차장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과 지역방문자에게 주차장공간 공유하는 시스템

1. 대상 : 주차장을 원하는 사람들과 주차장을 쉼어해서 부수입을 원하는 곳
(아파트, 상가,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교회 등등)

2. 필요시스템 / 홈페이지 및 어플

- 거주자 및 주차공유 쉐어자 :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는 시간외 공유가능 시간을 설정
- 지역 주차장 이용자 : 사용 원하는 시간을 사전 예약 및 이용시 어플에서 사용시간 설정 후 주차
- 쉐어자는 주차장 이용을 무료와 유료로 설정가능
- 유료로 진행시 공용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설정유도(어플과 인터넷에서 차감시스템)하고 월정산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이때 수익은 거주자 및 주차공유 쉐어자에게는 지자체에서 세금 할인 정책으로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정기적인 이용가능한 서비스 할인 정책으로 유도.

■ **소요예산** : 약 1억(시스템 개발비 5~6천만원 / 홍보비 2천만원 / 초기 지원금 1~2천만원)

■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 개발 지원

초기 개발비와 홍보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어플과 홈페이지 광고료에서 충분히 운영관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어려운 가족과 연계한 통합 가족 프로젝트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요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소식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이에 대한 부모의 포괄적인 권리. 물론 부모이기에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큰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에게 방임과 학대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와 부모를 분리시킨 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이거나 민사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한 후에 아이의 안전과 의사를 반영하여 일을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참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도 돌봄교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정과 연계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 주요내용

우리들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솔직히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인줄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지자체에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학대 사실이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명단을 취합한 후에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둘을 연계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도와줄 가정은 미리 면접을 통해서 가정 환경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죠.

가정 폭력이나 방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자 같은 가정을 선정하여 연계해서 아이를 잠시 친부모와 격리하여 후원자 가정에서 위탁 양육할 수도 있고 방과 후 여러 사정으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서 있다가 부모의 퇴근에 맞춰서 데려갈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요예산

별도의 대가를 받고 한다기 보다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자신이 돌보는 아이의 수에 따라 한명당 100만원 정도의 세재혜택. 이것은 돈을 벌기보다는 봉사의 의미로 하는 것이기에 별도의 예산은 그리 많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재원조달방안

세금 공제 혜택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백만개미군단 육성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 새벽부터 하루종일 재활용품(특히 폐지)수거하는 취약계층 지원
- 하루종일(새벽5시~저녁6시/거의 13시간 이상)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수거하나, 1만원 받기가 힘든 상황임
- 특히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나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여 정부의 정책지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더군다나 버려진 자원을 일일이 수거하여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 사업명 : 녹색도시실현을 위한 백만개미군단 육성사업

사업내용

- 전국별 폐지수거하는 일용근로자 파악해서 사업대상자 파악
- 정부의 자원재활용 목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도모
-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통한 자원재활용 자긍심 고취(조끼, 모자등 지급)와 생계비(하루수입 수거량 10KG/비용 1만원)에 대한 보조금(적정수준)지원

소요예산 : 대상자 1,000,000명×10만원×12개월 = 1조 2천억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구분은 필수사항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정했으나 전국대상사업임

제목	광역버스 노선 증편 및 신설	지역	경기도
----	-----------------	----	-----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산에서 강남, 여의도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한 두 노선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이 때문에 정월 내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광역버스임에도 출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처럼 승객들이 서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에도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두 노선에 불과한 강남, 여의도 광역버스 노선을 늘이고, 사당역, 잠실역, 청량리역과 같이 신규노선을 운행하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지금보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고양시 운수업체 재정지원 규모인 266억원의 두 배 정도인 530억원을 소요예산으로 고려하고, 국고보조와 도지원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취약지역 비상소화장비 설치 확대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 시민의 안전 확보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주거시설 밀집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 화재시 비상소화장치함에 적재되어 있는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진화
- 10개년 계획 수립 → 우선지역 선정, 점진적 설치
- 비상소화장치함 및 소화전 설치비 1개소당 300만원 추산

☛ 소요예산

- 100개소×300만원=3억원
- 주민세 중 일부 전용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공간 활용	지역	경기도
----	--------------------	----	-----

각종 도서관이나 소그룹 세미나실이 필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장소에 대한 갈증이 계속되는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적지 않은 공간을 방치해둔 채로 지내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실을 비롯해서 2~3개의 빈방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공간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민 곳도 종종 있으나 여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아파트마다 부녀회라던지 통반장 모임이 약화되면서 관리사무소 공간은 더 쉬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1.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퇴근이 늦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놓고 공부하는 곳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2.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조별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3. 마을 공동체 사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카페를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지원 활동을 방향만 틀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활용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모든 버스정류장에 금연제도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	----	-------

이유

모든 버스정류장 금연을 하는 겁니다.

내용

지금은 시내 중심지 등의 일부 버스 정류장에서만 금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버스 정류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임산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담배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다 시비가 붙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상정과 국회 통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요예산이나 재원조달은 그리 큰 금액이 들지 않기에 관심을 두하며 어르신들 공공사업이나 일부 단기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여 초반에 어느 정도의 틀을 잡아 놓으면 그 후에는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는 지금보다 상대방을 배려 내지는 눈치가 보여서라도 금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100세 시대에 맞는 보건소 운영제도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	-------------------------	----	-------

배경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가족 중 한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들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만,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이고, 가족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목돈이 들게 됩니다.

현 증상에 맞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문제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조기발견과 조기해결을 원조하는 보건소를 잘 이용하는 것인데, 못 사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란 잘못된 편견을 씻어 이용빈도를 높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변모하는 보건소를 누구든지 적은 비용으로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안

<보건소에 대한 편견 개혁>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 보건소는 이전 보건소의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① 가족 진료 신청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들이 직접 지방 보건소의 홈페이지나 전화상으로 방문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진료 제도를 실행하여 멀리서라도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② 확충시간 공고

인터넷 상으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확인해 보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열린보건소로 시간을 확충시킨 지역 알림서비스 제공하여 보건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③ 보건소 견학 학습

현재 몇몇 보건소에서 보건소 견학 학습을 통해 올바른 생활과 보건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체험 학습 보다는 매달 정기적인 기간을 정하여 유치원·초등학교·가족모임의 단위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견학 학습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확립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의 위치 습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어 있어 보건소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보건소의 위치를 찾으려면 주변 분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① 대중교통 부근의 보건소 위치 알림

버스 정류장 혹은 각 역에 지하철에 관한 구청의 안내판이 마련되어 있어 보건소의 위치를 알리거나 진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사항 등을 알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② 시대적인 배합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건소에 들러 체지방검사를 해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쁜 진료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직접 방문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오니 강원 태백시보건소와 같이 비만 클리닉센터를 가진 보건소가 더욱 확충되어 참여자의 수를 높이고 보건소의 중요성을 극대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③ 효심을 부르는 할인제도

노인분들은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혼자서 거동이 힘들거나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가정방문을 신청하며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작은 보건소에 손길은 한정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노인분들을 모시고 방문하는 분들이 함께 진료를 받을 경우, 작은 할인폭을 적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 이용 불편사례>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봄으로써 보다 시민고객의 보건소 이용이 더 활발해져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라봅니다.

① 해당 지역 주민 대상

임신부의 경우 매달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는게 편리하지만, 산전관리가 아닌 건강교실 등의 무료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한 것이 보편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의 이미지와는 한결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② 진료 비용의 차이

지방자치 단계별로 운영하는 보건소는 진료 서비스와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더군요. 그럴 경우 보건소 이용에 혼동을 빚을 수 있으니 진료 비용의 차별화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공되는 진료 서비스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받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폭을 균등하게 맞춰 줄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 효과

사회복지시설인 보건소의 이용빈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시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소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리고, 보건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보건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
- 적은 비용만으로 질병을 예방. 보다 살기좋은 지역, 고장 확립
- 친근한 보건소의 이미지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마음에만 담고 있던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 획득
- 발전하는 보건소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한걸음 더 진보하는 보건소
- 건강검진에 따른 부담스런 비용에 대한 불만 해소
-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해결로 윤택한 가정환경 유지

제목	교회시설을 주중 복지센터로 활용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 도심내 복지공간 확보 어려움
-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 공간 모색 필요
- 도심내 주요 위치마다 교회(성당 이하 같음) 존재
- 주중에는 활용되지 않는 공간 다수 존재(주일에만 예배)
- 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의지가 있는 교회 다수 존재

☛ 주요내용

- 도심내 곳곳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주중 복지센터로 활용
-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등 운영
- 교회는 주중 교회 시설을 무료로 대여
- 지방정부는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용 보조
- 지역사회와의 밀착을 원하는 교회와 복지시설이 필요한 정부의 이해 합치
- 교인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가능

☛ 소요예산

- 냉난방비 등 시설사용을 위한 실비

☛ 재원조달방안

- 기존 복지예산 활용
- 기존 복지예산중 건물신축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시설관리비 등 절감

제목	울산 남구 삼산동 주차장 증설 및 불법 주차 해소	지역	울산광역시
----	-----------------------------	----	-------

☐ 문제점

현재 남구 삼산동 일원에는 불법 주정차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에 너무 많은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며 주변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면 주차장이 포화되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들로 도로가 마비됩니다.

☐ 제안사항

공영주차장의 증설을 요구합니다. 요즘 공영주차장은 조립식으로 하여 2층~3층 이상으로 증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의 일부만이라도 조립식 건물로 증설하여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합니다. 만일 일조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지하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 소요예산

공영 주차장을 증설하면 발생하는 주차비용과 주변의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독거노인 담당공무원제 시행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지역별 독거노인분들 건강 및 복지 등의 관리를 위해 지역 공무원의 독거노인 관리 1인 담당 공무원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1명의 공무원이 연령층별 성별 등으로 나눠 지역별 독거노인의 건강 및 복지를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무원 1명당 몇 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해야하는지 파악한 뒤 독거노인들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거노인을 대신해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의 종류에 따라, 불편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과 접촉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다. 독거노인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자신의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니 여기저기 묻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업무시간외 독거노인에게 1시간 투자하기 운동을 전개해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내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예산없이 효과를 거두리라 봅니다.

제목	지하철역에 노인일자리상담센터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	---------------------------	----	-------

아침마다 우리구의 역에 나가보면 많은 노인 분들이 노인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지하철에 줄서서 탑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하철공사는 공사대로 노인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방법으로 노인무임승차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사용횟수를 제한하거나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방식은 노인 분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 정책이라 본다. 그런 식의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인 분들 우울증 증가를 늘려놓는 악순환만 낳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고 지금 그대로 두면 지하철공사적자는 계속 커지고, 노인 분들은 앞으로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지하철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일과를 보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하철 역내에 노인일자리 상담센터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일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몰라 오갈 곳 없어 노인무임승차권으로 지하철에서 하루를 보내는 노인 분들이 많으므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의미에서 지하철역 내에 노인일자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온라인이력서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금의 입사지원방식은 거의전부 온라인이력서를 받는데 노인분들 상당수가 인터넷이 서툴러 경력 있는 업종조차 온라인이력서를 작성할 줄 몰라 취직을 못하는 노인 분들도 있다. 따라서 노인분을 도와 온라인이력서를 써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온라인이력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상담할 사무실을 개설하고 구내의 노인상담직원을 파견하여 노인 분들이 역에 올 때마다 언제든지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다.

제목	'경기티켓(가칭) 상품개발로 경기도민 만족도 향상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지역	경기도
----	---	----	-----

※ 경기티켓(Gyeonggy Ticket 또는 Game Ticket으로 중의적으로 표기)

: 경기도 연고지 스포츠팀 경기에 할인 입장할 수 있는 연간 시즌권

배경

- 경기북·남·동·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기도민간 일체감(Identity) 강화 필요
- 수익성 강한 콘텐츠 발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재정 강화 필요

현황

- 행정구역상 광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남/동/서간 교류 미흡
- 경기도 연고지 스포츠팀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계상품 또는 통합관리 전무
cf) 경기도 연고 프로 스포츠팀 현황(총 11개팀)
- 야구(1) 수원(KT)
- 배구(6) 수원(한전, 현대건설), 화성(IBK), 성남(도공), 평택(GS), 안산(러시안캐시)
- 농구(2) 고양(오리온스), 안양(KGC)
- 축구(2) 수원, 성남

제안내용(시도의원 역량 필요)

- 경기도, 경기도 지자체, 프로구단간 MOU 체결로 경기도민 우대 스포츠 관람 시즌권 상품 개발 - 각 지자체 시도의원간 정책적 협의과정 필수
- '조례변경'을 통해 '경기티켓' 판매수입의 일정비율을 경기지역발전 공동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도의원 조례 의결행위 필요
- 경기도민은 은행 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즌권을 구매하여 경기도 연고 경기를 연중 관람
-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 공동해결과제 등 현안사안에 우선 투입

적용시기

- 2014년 프로시즌부터 지자체 및 프로구단간 MOU 체결 이후 즉시
- 영구적 수익모듈 구조화를 위해 조례변경 추진 필요

지자체 소요예산

- 없음
- 100% 프로구단 입장료 수입을 배당 베이스로 운용

예상수익

- (A) 실제 흥행 하위권 프로배구단 입장수입료('12 ~ '13시즌) : 37,510천원
- (B) 연고지 시설관리공단 수입 : 5,626천원(A의 15%)
- (C) 11개팀×5,626천원(B) = 61,886천원

유무형 기대효과

- 부가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자립도 기여
- 경기도민 간에 일체감 형성을 통해 경기도민으로서의 Identity 강화
- 경기도 지방정부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 상품 발굴을 통해 '일하는 경기도'라는 이미지 구축을 계기로 도민들로부터 자긍심 확보
-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상품 노출을 통해 '스포츠의 타운'이라는 이미지 강화

기타

경기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도 MOU 체결을 통해 경기티켓 제시 후 유/무료입장할 수 있는 혜택 제공 검토를 통해 판매율 향상 유도

제목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	-----------------	----	-------

구로구에 근무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직업은 청소부인데요. 직업 특성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의 첫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구로구에 직장이 위치해 있어서 가리봉 지역을 지나가는데요, 흔히 말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탑니다.

이제 구로, 대림 이쪽은 이미 80% 이상이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구로동이 친정집이여서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가기가 싫어집니다. 친정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까 고민중이고요. 옛고향의 친근했던 이미지는 없어지고 요즘 가보면 중국 한자 간판만 가득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있어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10년 이상된 숙련되고 미국 말도 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대우를 해줘서 미국 영주권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래 있던 불법 체류자들부터 붙잡아서 퇴출하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1년 2년 된 사람들을 잡지 않고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쪽이지요.

어차피 버릴 수 없는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산업의 3D 직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특히 성실히 일하고 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같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성실히 오래 일한 외국인 노동자라면, 불법 체류자라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1. 영주권 취득
2. 복지 혜택
3. 상담소 지원
4. 2세 아동 교육 지원

제목	노인을 활용한 보안등 전담반 설치 운영	지역	부산광역시
----	------------------------------	----	-------

정작 보안등이 가장 필요한 골목길에는 보안등이 없거나 꺼져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기다려봐라,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놓겠다. 시일이 오래걸리고 또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등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떨지요.

방안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중, 노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정하시고 또 기술적으로 보안등을 관리할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들을 채용하여, 전문교육을 시켜 보안등 전담반을 만들어 고장난 곳을 고치고 설치하는 업무까지 맡기는 것을 한번 고려해주세요.

보안등 시급합니다. 안전하게 골목을 다니고 싶습니다.

제목	우유배달을 활용한 하안나눔공약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2013년 전국적으로 600만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율 1위 국가라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하안나눔] 공약을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연말연시만 되면 전국에서 불우노인을 위한 일회성 행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단발성 행사들이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루에 수십명의 독거노인이 아무도 없는 싸늘한 방에서 홀로 돌아가시곤 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의 내일의 모습일 수도 있구요. 이에 독거노인의 마지막이 아무도 모른채 마무리 되어지게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안양시 우유배달원이나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매일 우유배달을 해드린다면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벗이 되어 준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문앞에 우유가 쌓여있다면 그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신호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독거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독해소와 더불어 지금 사회에 가장 안타까운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안양시내를 누비시는 우유배달원분들 새벽을 깨우는 신문 배달원분들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봉사단체분들 물론 업무량이 약간 늘겠지만, 보람은 두배 세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소요예산

안양시 인구 60만중에 이러한 독거노인의 수는 대략 5,000정도로 가정했을 때(아쉽게도 자세한 통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유 200ml의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하면(이 부분은 대량계약으로 충분한 절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 6억정도의 예산이 소모된다고 생각됩니다.

☛ 재원조달방법

사실 연 6억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역단체의 후원을 받는다면 이 예산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분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 당장 다음달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실행에 옮기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안양시가 독거노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줄어드는 더 나은 우리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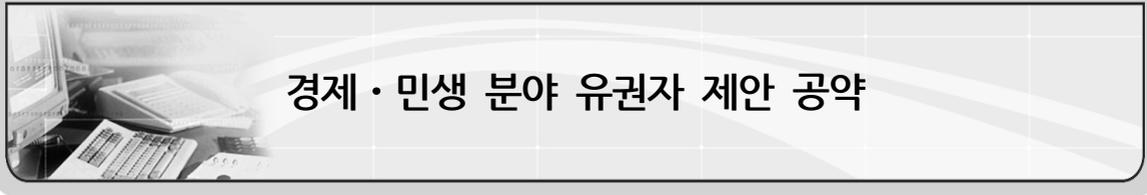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한 버스무임승차 편의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	----------------------------	----	-------

현재 우리나라에선 장애인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중 교통복지 정책 중 약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공약을 제안할까 합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 무임 승차를 할 수 있는 복지 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복지 카드는 지하철만 무임 승차가 가능하고 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가까운 거리를 버스로만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률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복지 카드로 버스 무임 승차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카드 사용시 타인이 사용하게 될 염려가 있는데 복지 카드를 발급 받는 장애인에게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면 타인이 쉽게 사용할 기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버스 이용도 무료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경제·민생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은퇴노인 인력 활용 방안	지역	전라북도
----	---------------	----	------

❏ 문제

오랜 경륜으로 쌓인 삶의 지혜는 짧은 시간으로 익혀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온 전문가인 은퇴자들의 몸에 배인 지혜를 후손들이 슬기롭게 이어받아 삶에 활용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자산을 폐기처분하는 모습의 은퇴자 운영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분야도 아닌 업종에 남을 따라 개업하였다가 실패하는 등 말년을 망가뜨리는 일들은 개인은 물론 소중한 국가의 인적 물적인 자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대책

- 정부차원에서
- 은퇴자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개설하고
- 전국의 각 전문분야별, 은퇴자별 활용방안을 만들고
- 은퇴자들을 각 전문분야별로 분류하여
- 기업의 산업현장에서나
- 전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정부에서 계획하고 공간을 제공하여
- 현역에서의 높은 보수가 아닌 은퇴자로서의 사회봉사 차원의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고
- 각 전문분야를 후진들에게 전하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함으로써
- 각 노인은 자신의 할 일을 함으로써 자기성취를 이루고
- 은퇴자들의 뒤를 잇는 젊은이들은 은퇴자의 도움으로 전문분야의 실질적인 성장에 시간적, 양적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목	시내버스 - 지하철 무료환승 추진	지역	충청남도
----	--------------------	----	------

☛ 주요내용

천안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환승을 하면 요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수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을 위해 지하철 무료 환승을 공약하겠습니다.

☛ 사회이슈

http://www.dtnews24.com/#1_View_2013080210310075

이미 공론화가 되고 시민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요금체계 변경과 시 재정여건입니다.

☛ 방법

- 요금체계변경 :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전달기로 함(2013.7 위 링크 뉴스기사)에 따라 기준은 마련되고 요금체계변경을 위한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재원조달방법 : 교통세, 유류세
- 기간 : 2015년까지 추진하여 2016년 상반기부터 천안시내버스 ↔ 지하철 무료 환승을 적용하겠습니다.
- 서울의 요금정산 시스템을 천안과 통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무료 환승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목	‘은모닝택배’를 활용한 여성안전 및 노인 일자리 확보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배경

- 과거, ‘택배’하면 대부분 오토바이와 택배차량을 몰고 거리를 누비는 기사들을 연상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택배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통한 ‘지하철택배’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 ‘지하철택배’란, 고령화시대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며 택배를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서 고령화 세대들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이용하는 고객들은 오토바이퀵서비스에 비해 반값의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는 한 해 15억 건이나 배달될 정도로 택배시장이 커지면서 택배를 가장한 범 죄도 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표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은 택배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대다수의 무고한 택배기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면서도 대구 지역에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은모닝안심택배’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세부내용 및 이용절차

- ‘은모닝안심택배’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은모닝택배 보관함을 지정하면 보관한 택배를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고객층은 10대에서부터 40대여성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택배직원도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여성노인들로 구성한다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이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집단택배보관함을 운영하며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10kg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물건들을 배달하게 됩니다.
- 택배를 신청할 때는 은모닝안심택배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됩니다. 택배기사는 지정된 안심택배 보관함에 물품을 배달하고 은모닝택배 보관센터에서는 해당 물품의 배송 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합니다. 택배도착 문자를 받은 여성은 보관함을 찾아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보관함을 열어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 시범 운영장소로는 가까운 문화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빌려 운영한 다음 이용상황, 효과성 등을 점검한 뒤 전국의 공공기관들을 이용해 확대 설치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 추가적으로는 ‘노노케어’ 서비스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원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는 돌보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은모닝 택배직원이 매주 1회 독거노인 세대 등에 방문해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대신 배달해드립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가까운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노인이 집에 쓰러져 있거나 이상이 발견되면 119에 신고하거나 평소 노인과 접촉하고 있던 지인 및 친척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토탈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노인인력활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어르신들이 배송하는 택배는 상품을 받는 고객들도 더욱 안심할 수 있어 매우 호응이 좋은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은모닝안심택배는 노인들에 특유의 책임감을 활용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더불어 전국 시니어클럽으로 제휴를 확대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상생 경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이 기여하는 시니어택배의 수익성 표준 모델을 제시.
(택배회사 측에는 택배시간 감축 및 신뢰도가 향상되는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와 비용절감으로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자가형 통나무 건축학교를 통한 저가 통나무별장 건축 및 운영	지역	충청남도
----	-----------------------------------	----	------

■ 사업취지

주5일 근무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웰빙 기대치와 휴양지 수요 증가에 맞춰 자가형 통나무 별장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통한 직접 저가별장 건축과 임대를 가능케함으로 재료비판매와 운영수익을 확보하고 관광객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코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전 국민 및 서울 등 도시인
- 규 모 : 약 50세대(33㎡ 이하) 별장, 의료스포츠센터, 투어버스
 - 한 주택 당 천만원 이하로 시공(저가형)
- 사 업 비 : 5억원(참살기 좋은 마을, 귀농귀촌 지원 보조금)
 - 별장건축 대지 대여, 요가 등 스포츠센터 운영, 주말농장 투어버스 운영

■ 사업내용

- 통나무 자가 건축학교 운영
 - 전문가를 포함한 8주과정(주말) 통나무 건축학교 운영
 - 4가지 건축설계 표준도면 사용, 초보자도 가능한 쉬운 건축 모형 개발
 - 5단계 회원운영으로 super junior부터 건축 가능
 - 실습 위주의 단순형 건축교육, 가족전원 참여
 - ※ 회원5단계 : rookie(교육참여 4주 이하), junior(8주 이상), super junior(시공참여 3회 이상), senior(10회), supervisor(20회 이상)

- 저가형 통나무 별장 건축
 - 통나무별장 운영위원회 설립(선정마을 주민, 외부전문가 포함) 및 별장타운 운영
 - 토지대여(대여비 납부), 재료구매(운영위), 수도, 전기, 준공 등 대리처리 (운영위)
 - 8주 프로그램 이수 및 건축시공참여 3회 이상자 건축
 - 빠른건축을 위해 슈퍼바이저 및 시니어 참여하에 품앗이형 공동건축
 - 건축 후 의무적 3회 이상 이웃주민 건축 시 참여
 - 슈퍼바이저 참여 시 사례비 제공
 - 5년 내 별장매매 제한 및 운영위 위탁 별장대여 가능
- 통나무 별장촌 운영위 조직
 - 마을공동사업자 및 통나무건축 전문가, 입주대표자 구성
 - 토지대여, 별장재료 판매, 스포츠센터 운영, 투어버스 제공 등
 - 주말 별장 사용자에게 대한 주말농장체험 등 관광코스 안내
 - 대외 홍보 및 별장위탁 관리, 홈페이지 운영, 운영비 정산

기대효과

- 소규모 저가형 통나무별장 건립으로 새로운 휴양지 개발과 신 소득원 창조
- 도시민의 통나무 별장 소유로 가족 및 친인척 등 정기적 관광객 방문예상, 청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전 가족이 참여하는 별장건축으로 가족애를 높이고 주말 휴식과 힐링 공간의 확보로 삶의 질 향상

제목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통합신고사이트 개설	지역	서울특별시
----	-------------------------	----	-------

- 경찰, 각 보험회사등 유관기관들이 통합신고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고목격영상을 (날짜, 지역, 시간등으로 등록) 제공받아 업무처리를 한다면 행정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 (사고영상은 경찰, 보험회사, 등록자만이 접근가능하게 처리)
-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활용으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함
- 영상제공자들의 신고의욕 고취를 위해 반대급부로 자동차보험갱신시 할인을 해준다거나 상품권제공 및 포인트, 마일리지제도 도입, 기타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큰 비용없이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됨(장기적 측면에서 보험회사에게 이익 有)

제목	응답하라 2000 [마을 5일장]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현재 23살 대학생 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마을에 5일장과 같이 시장이 형성 되었습니다. 그 어릴적 아버지와 시장에서 재미있던 추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없어지거나 매우 소규모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불경기 때 소상공인의 장려, 아나바다 운동, 이웃과의 소통, 아이들의 추억의 제공이 이 공약의 목표입니다.

☐ 주요내용

1. 시장 설치 위치

- 빌라 밀집 지역보단 공터와 놀이터 같이 시장 설치 가능한 넓은 단지를 위주로 장소 섭외

2. 시장 운영 내용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협조 공문 발송 및 대화
- 시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원은 구청에서 공문 및 홍보 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위주로 구인
- 시장 설치에 필요한 천막 및 자재는 지역 재활용 업체에서 조달
- 시장 설치를 허락해준 주민은 총면적의 일정 부분을 우선권 부여
- 시장의 정체성을 위해 각 분류마다 비율을 정함(ex:주민 아나바다 운동 점포:20%, 외부 회사:30%, 소상공인 및 농수산:50%) 정도로 다양성을 추구함
- 각 점포 신청은 구청에서 받아서 비율과 내용에 따라서 추천함

3. 재원조달방법

- 구청 예산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원
- 외부 회사의 홍보 및 판매 목적(여기서 외부 회사는 사기업 비영리단체와 소상공인은 제외)의 자리 및 현수막에는 과중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값을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

제목	군산을 다시 오고 싶은 군산으로	지역	전라북도
----	-------------------	----	------

☐ 이유

군산도 충분히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현재에는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어정쩡하고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관광지로서의 무리한 개발을 지속한다면 예산낭비에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 구체 방안

현재 군산에는 일본식 가옥이나 해양공원, 군산 근현대사 박물관, 비응도 등 많은 곳이 허울만 좋을 뿐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관광객이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고장을 만든다 생각합니다.

첫째, 터미널과 연계된 순환식 군산 미니 관광 버스 →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버스카드를 구매하여 각 관광지마다 일정한 코스로만 도는 버스를 이용하여 길을 잃거나 헤맬 필요가 없이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여행 마지막날 버스카드 환급가능).

둘째, 가족형 숙박업소의 활성화와 숙박업소 개선 → 군산의 가장 큰 문제는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며 어디에 있는지 정보조차 희미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해당 숙소와 관광객 간의 상호 연결을 중간에서 조율할 것이며 가족형 숙박업소를 유치하여 더 많은 가족관광객이 군산을 찾도록 할 것 입니다.

☐ 소요 예산 내역

어플 개발비 / 어플 유지비 / 버스 운영비용 등등

☐ 조달 방안

어플개발은 군산대학교/서해대학교 등등 군산지역 대학들과 연계하여 공모전 형식으로 개발하여 인재육성에도 기여하며 어플에 광고를 나타내거나 어플에 연결된 숙박업소에서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아 재원을 충당하며 버스 요금은 되도록 저렴하게 하나 미니 관광버스 운영에 투자를 받아 재원 충당.

제목	예방접종 때 다자녀 혜택 부여	지역	서울특별시
----	------------------	----	-------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다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당연히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 다자녀 혜택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택을 늘려준다고 하면, 한 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주로 어렸을 때 맞히게 되는 예방접종 때라도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접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선택 접종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아이는 선택 접종

을 할때 무료로 해주던지 아니면 50% 이상의 감면 혜택 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등에 혜택을 주시는 것도 좋고요. 다양한 혜택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도와준다면 다자녀 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제목	자동차 정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경기도
----	--------------------	----	-----

자동차 정비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력관리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정부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책제안에 참여합니다.

☛ 제안이유

자동차의 수리 내역 및 부품교환 등, 자동차의 이력과 관련한 자료를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력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낭비와 개별 소비자들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은 다양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부품 교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정비업소를 옮길 때마다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왜 교체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일일이 다 기억·기록하지 않으면, 정비업소에서 기교환한 제품을 다시 교환하기를 요구하더라도 무작정 이를 따라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오일교환 등의 경정비 시기도 소비자가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동일 브랜드의 정비업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가 됨).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는 차량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차량 관리의 불편함으로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혹은 정비업소의 부당 요구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차원에서는 국민이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을 방관하게 되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량의 고장과 차량 수명 기간 내에 차량의 수명 기간 내에 차량을 교체(폐차 발생)해야하는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의 '자동차 정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제목 : 정부(건설교통부)차원의 '자동차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나. 방법

- 국내에 운행되는(혹은 운행될) 모든 차량의 이력을 건설교통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이 시스템은 경정비 내역과 수리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관리합니다.
- 이 시스템을 전국의 모든 정비업소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수리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입력·관리토록 합니다.

기대효과

- 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비업소를 가든지 내 차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시기 적절한 정비를 받을 수 있고,
- 나. 정비소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정비를 맡길 수 있으므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 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적절한 차량관리로 효율·효과적인 자원관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시기와 예산, 자원조달방안 등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재활용 쓰레기 분류 시설 상시 설치	지역	경상남도
----	---------------------	----	------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자. 자율적인 수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재활용의 개념이 그리 반갑고 달갑게 체감이 되어지지 않는다. 어떤 아파트는 상시적으로 재활용분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외출을 하면서 나가면서도 들러서 분리수거를 즉시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아파트 안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적어도 창원시 관할 만큼은 의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웬만하면 이런 시설 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나온다. 또한 활용 안하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은 만들려 하지 않는다. 월2회씩으로 해서 격주로 날을 지정해서 모아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언제 모아놨다가 바쁜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버리고 앉아 있느냐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 비롯 여간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매번 놓치기 일쑤고 기억했다가 모아놓고 기다리는 행위가 달갑지는 않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놓고도 자주 수거를 해가면 되고 또한 필요한 일반사

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만이라도 활성화해서 꾸준히 처리만 해준다면 허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협소한 집안에 재활용쓰레기를 모아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도 교육상 이런거 들고 나가서 버리는 습관과 방법을 일러주어 인식을 도모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지 몰라도 집에서까지 와서 연계해서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본다. 그렇게 어릴적 교육도 안받았고 뭐가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그냥 마구 쓰레기통에 넣기 바쁘다. 그러니 나처럼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활용쓰레기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는 적어도 의무적 설치운영을 하도록 유도 하자는 것.

이런 좋은 반응과 환경에 이바지 한다면 전국적으로 창원시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창 원시로 부터 시작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제목	폐지 수거를 동사무소에서	지역	인천광역시
----	---------------	----	-------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한 폐지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화장지등으로 교환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폐지 등을 그냥 버림으로 인하여 거리도 지저분하고 고물상에 가져가도 헐값으로 팔게 되어, 고물상들은 이를 수집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수거하여 화 장지 등으로 교환하게 한다면, 주민들도 좋고, 각 동사무소에 재정에도 부가적인 이익을 가질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일부 동사무소에서 지방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목	사교육 대책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1. 지금 내수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비싼 부동산, 글로벌 경제 침체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들어가서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2.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인간적인 교육보다 학원에서 배운 남을 이기는 법만 배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됨. 또한, 어린 아이들

- 에게는 그 무엇보다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3. 학부모들이 안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들이 시키니까 내 아이만 뒤쳐지는 것 같아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음.
 4. 소수의 아이지만 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받는 어린 학생들도 있음.

☛ 주요내용

국회에서도 사교육대책법이 얼마전에 통과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따라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영어 사교육 금지 필수)이 필요함.
 즉,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임.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킴으로써 재산권 침해 논란(중학생 이상에게는 학원 수업을 할 수 있으니...)도 피해갈 수 있으며, 어린 학생에게 과도한 사교육은 발달 과정에서 분명히 해가 됨.

☛ 결론 : 초등학생이하의 아이들은 어떠한 사교육도 금지시키는 법안 제정

제목	다문화센터를 통한 외국인들과의 갈등 예방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인천시 연수구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들과의 충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노포비아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연스런 행동에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 그렇게 갈등이 쌓여 폭발하는 것이죠.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갈등을 미리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지금 연수구에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자연히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 또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들,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들 등, 문화보다는 정보에 가까운 것들 뿐이죠. 공공장소 매너, 노약자와 여성 보호, 왜 밤에 조용히 해야 하는지, 왜 한국에선 칼을 품고 다녀선 안되는지 등등.. 이제는 외국인들을 단지 노동자와 소비자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도덕과 문화를 습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다문화센터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통해 외국인들끼리 한국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불량한 외국인들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외국인들까지 매도되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다문화센터를 통한 외국인들간의 교류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당장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하겠지만, 다문화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들의 유입과 정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원조달을 넘어 세수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농작물 재해 보험 보조금 지급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과수 및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 사실 조사를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하는 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농민들 스스로도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피해 사실 조사를 전문 기관(부서)에 이관해서 정확한 피해내용에 따른 보상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주요내용

특히 봄철 과수의 경우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핀 경우, 갑작스러운 영하의 날씨에 동해, 냉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심한 경우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피해 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기보다 재해관련 보험에 농민 스스로가 가입할 수 있는 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 조사담당 기관(보험사 또는 담당부서)가 있다면 보상과 관련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보상 지원 기관과 농민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관계 보험사와 협의하에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농민들에게는 보험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한다면 농작물 재해 관련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보조금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불필요한 보조금을

삭감하고(특히 쌀 직불금), 현재 피해 농작물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보험 가입비의 일정 비율로 지원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련 보험이나 차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농작물 피해 보험을 생각한다면 상기 제안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제안 의견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 흐름과 민원 해결, 그리고 적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상기 제안이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들의 가사노동, 보육문제의 근원적 해결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육아와 가사에 묶인 여성인력, 그 해결방법은?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해마다 높아지고 여성 권익도 점차 나아지며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사회 진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30대 여성들의 재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후부터 다시 높아지는 전형적인 ‘M자 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M자형 커브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특징이다. OECD 국가 중 이러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으로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의 ‘고원형 패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고원형은 말 그대로 평탄한 고원모양 곡선, 연령에 따른 여성 취업률 변화가 크지 않고 정년퇴직 때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M자형 커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력 운용 측면에서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인력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30대 여성인력 유출은 그만큼 국가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남성 우월주의로 인한 ‘유리천장’과 육아, 가사로 인한 공백, 즉 ‘경력단절’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유리천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장벽은 사실 어느 정도 낮아진 편이다. 독일의 MCM을 인수한 성주그룹의 회장 김성주, 애경그룹 회장 장영신 등 유명 기업의 CEO들이 회장직을 맡는 것은 물론, 사회 주요 인사들의 남녀 비율이 점차 비등해 지는 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었고, 또 아무렇지 않게 와 닿는 것이 사실이다. 선진문화 유입과 남녀평등에 대한 장기간 계몽을 통해 일구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혼 후 육아와 출산 등의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 때 30대 경력이 중요한 평가를 받는 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전문 인력이라도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육아, 가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 입장에서든 맞벌이 부부의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점을 평가해 여성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오래,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남녀평등과는 또 다른 유형의 유리천장이 만들어져 그것이 기업성장, 크게는 국가경쟁력까지 손실을 입히는 셈이다.

따라서 경력단절 없이 여성인력을 끌어들이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기업문화, 보육시설 등의 환경조성, 근로시간의 단축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가정생활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직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시급한 것은 출산부터 가사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도우미를 육성하고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들의 경우, 산후 도우미, 육아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 다양한 도우미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하나의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각종 도우미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인식, 문화 자체가 정착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도우미 서비스는 갈 길이 멀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역시 ‘직장’ 보다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강하다. 대부분 파트타임제로 운영되고 법적 보장도 없어 가사도우미를 진정 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다.

이러한 환경은 워킹맘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과 자녀를 도우미에게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설사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잦은 도우미 교체, 서비스 질 등의 문제로 장기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교육 시설, 안정적 도우미 파견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보다 기업이 먼저 나서고 있다. 그 중 인터파크 홈스토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터파크 홈스토리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가사도우미를 육성하여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용과 신원을 보장받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가사도우미에게도 하나의 직업관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느 한 기업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함께 나서 도입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이다. 또한 아직까지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위해 육아, 가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사실은 사회 지도층 남성들이 여성 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데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로 가정과 직장 모두 안정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제목	閉校(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 설치	지역	전라남도
----	----------------------	----	------

☛ 제안 이유

- ① 바쁜 사회 생활 속 힐링 필요
- ② 주 5일 근무로 인한 캠핑족 증가
- ③ TV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여행관련 프로그램이 여행문화의 확산에 기여
- ④ 사람들은 소중한 친구, 연인,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다 새롭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원함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캠핑, 펜션 레저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30대~40대가 주축을 이루는 캠핑인구는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전국의 오토캠핑장은 500여개로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캠핑카 내부는 침실은 물론 각종 주방기구도 갖추어져 있어서 별다른 조리 기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현장에서 싱싱한 음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면 집에서 음식이나 재료를 싸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전국 캠핑장에서 부부 또는 가족, 친구들끼리 찾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음.

☛ 목표

- ① 오토캠핑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 농업과 축산업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줌.

캠핑장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야외에서 구워먹는 바비큐다. 신선한 야채와 육류도 빠질 수 없다. 담양은 담양 한우로 유명하고 각종 신선한 로컬 푸드를 즉시 즉시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농가와 연계를 시킨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야채와 삼겹살, 목살, 향정살, 등심, 소시지, 치킨봉등 육류와 훈제류, 소시지, 일회용품까지 커플, 4인 6인, 단체세트 등 세트메뉴를 구성해 오토 캠핑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일자리 창출효과

- 캠핑장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

- ③ 주변 체험 학습장과 연계해 체험학습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담양엔 체험학습장이 많음. 대나무 악기 만들기, 죽초액 비누 만들기 등등

-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견학하면서 체험학습까지 함께 한다면 관광지로서의 담양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체험학습지로도 홍보할 수 있음

☐ 방법

캠핑장은 도로와 상하수도 공동화장실, 취사장, 주차장등 제반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담양에 지어져 있는 국제 청소년 수련원 부근을 이용한다거나 폐교를 이용한다면 전기 시설과 수도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장에 있는 놀이기구는 그대로 활용하고 학교 내 수목들을 잘 살린다면 토목이나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제반 공사비가 적게 든다.

주차장 편의 시설, 공동시설, 캐라반사이트, 텐트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 합리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 교실에 텐트를 치고 운동장에는 캐라반 사이트를 한다면 가능.

캠핑장 배치 계획은 일반적인 건축사 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레저 단지 설계 전문업체나 수목원 공원 등 설계를 주로 하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인 개발 방식이나 생태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의 시설을 잘 이용하여 난개발이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시인구 급증과 농촌인구 급감으로 점차 학교까지 폐교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폐교를 잘 활용한다면 공간 활용면이나 경제적 효용성이란 양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폐교된 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자신의 아이들과 캠핑장에서 1박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다면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기억은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 같다.

또한 캠핑장 주변에 관광지가 있거나 계곡, 호수, 강, 숲이 울창한 휴양림, 골프장, 리조트단지, 수목원등 자연경관과 가까운 폐교를 활용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월산면에 폐교 두 곳은 가까운 곳에 용흥사도 있고, 담양호도 있고 또한 조금만 가면 금성 산성도 있기 때문에 1박 2일 여행지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이라면 대숲 공예 전시 체험관도 방문하고 대나무 숲가마를 방문해 체험학습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또 지역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죽순 푸드 빌리지에서 담양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 재원

- 기한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까지 준공
- 폐교를 활용한다면 재원은 많이 들지 않음

제목	대가족 형태의 주택 거주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지역	경기도
----	----------------------------	----	-----

제안이유

- 현. 주택보유시 각종 세제혜택 적용부분 획일화된 잣대기준 적용
일정금액 이상 및 일정평형 이상의 주택에는 혜택의 제한폭이 많음(32평형/ 6억이상)

주요내용

- 전통적인 가족구성원의 형태는 대가족/ 부모, 부부, 자녀의 형태에서 점점 핵가족의 형태 및 단독세대의 가족구성 확대
- 전통적인 가족구성원 형태유지는 부모봉양의 효사상 실천으로 미담의 사례가 되기도 하며
 - ① 노인분들의 고독예방 차원에서도 자녀교육에서도 평소 생활속에서 부모님께 실천하는 효도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 ②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효사상 계승
 - ③ 자녀 정서 도움
 - ④ 점차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보와 배려 공동체 의식함양 등등
 3대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가족구성 형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배가된다고 봄.
- 따라서, 노부모 봉양의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에게 보유주택에 담보대출 있을시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등 세제혜택의 범위확대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위의 내용 효사상 실천의 개념으로 보는 3대가 함께 살기 위한 필수조건의 평수 예를 들어 부모님 방1, 자녀 2(남자 방1, 여자 방1), 부부 방1, 방4개 있는 집에 거주가 필수인 세대에게 단지 평수가 넓고 주택매매 금액이 6억 이상이니 혜택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우리 전통사상인 효실천 및 부모봉양의 의무를 저버려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봄
- 거듭 주장하는 바는, 부모봉양과 자녀를 둔 3대 거주 주택에는 담보대출 부분에 있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대상으로 포함하여 3대 거주 의 기본 의미를 미담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점점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을 상기하여 위와 같이 공약을 제안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로 현실화되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직장인 당해년도 소득공제 국세청 익년도 추징시 추징분에서 환급 등

제목	도내 영세 영농인에게 유기질비료 전액 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	----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4년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력 증진 등을 강화하여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서 신청한 유기질비료(퇴비 포함) 11만톤 전량에 대하여 제주도에 131억여원을 투입하여 공급 지원한다. 이는 판매가격의 반값을 제주도(국비50%+지방비50%)에서 보조지원하여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나,
- 대부분의 농가가 많은 부채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 도내 영세 영농인에게 유기질비료 100% 도비 지원
 - 일정규모 이하(1,000평) 영세한 영농인 100% 지원
 - 일정규모 이상(1,000평) 영농인 현행대로 반값 지원

■ 기대효과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지력 증진
- 생산업자 협력으로 제주지역 영세 비료회사 경영 활성화

제목	북삼읍에 기차역(ktx 전용 역과 일반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 설치	지역	경상북도
----	--	----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에서 북삼읍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일반열차와 고속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을 둘 다 세우는 걸 제안합니다. 칠곡군 북삼읍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칠곡군 북삼읍에 기차역을 세우는 겁니다. 칠곡군 북삼읍은 칠곡군에서 인구가 2번째 아니면 3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북삼읍은 큰 도로가 있으며(금오대로) 북삼읍사무소 주변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칠곡군 북삼읍은 경부고속도로와도 가까워서 북삼읍사무소 근처는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가기도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남구미 IC)

칠곡군 북삼읍은 칠곡에서 통행량(자동차와 사람 모두 다)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 수도 있는 왜관읍과도 가깝고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많고 20세기와 21세기에 많은 발전을 한 구미시와도 가깝습니다.

몇 년 전에 김천구미역이 김천시 능소면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김천구미역이 있는 지역은 북삼읍사무소가 있는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더 적을 뿐만 아니라 통행량도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천구미역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김천시 능소면에 기차역을 세우지 말고 인구밀도가 더 높고 통행량도 더 많은 북삼읍사무소 근처에 세우는 게 경제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삼읍사무소 근처 지역은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ktx를 탈 수 있는 기차역과 일반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을 모두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칠곡군 북삼읍에 ktx를 탈 수 있는 기차역을 세운다면 북삼읍에 사는 주민 뿐만 아니라 구미시와 왜관읍과 약목면과 석적읍에 사는 사람까지도 ktx를 타러 북삼읍에 방문을 많이 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삼읍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서울과 행신역 등의 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하려고 북삼역에 와서 ktx를 탈 수도 있거든요.

현재 칠곡군에 덕산대교가 공사중입니다. 덕산대교는 북삼읍 및 약목면과 석적읍을 잇는 다리입니다. 덕산대교가 완성되면 북삼읍까지 가기가 더 쉬워지겠죠. 제가 방금 daum 지도에서 북삼읍사무소 근처에 칠곡북삼도시개발지구를 봤습니다. 칠곡북삼도시개발지구가 발전한다면 북삼읍의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북삼읍의 인구가 더 많아진다면 칠곡군에서 기차 이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저는 칠곡군 북삼읍이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가 모두 있을 뿐만 아니라 기차역을 세우기에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통행량 많음, 인구밀도 높음)

옛날에는 구미역에 ktx가 경유했지만 이제는 구미역에 ktx가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tx를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김천구미역에도 ktx가 정차하지만 거기서 구미시와 떨어져 있는 시골이라서 무리해 가면서까지 김천구미역에 가서 ktx를 탈 필요가 없어서 ktx를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줄어든 듯합니다. 옛날에는 구미역에 ktx가 정차했지만 김천구미역이 세워진 이후에 구미역에 ktx가 정차 안 하고 김천구미역에 ktx가 경유하게 바뀌니까 ktx를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천구미역이 시골에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김천구미역이 있는 지역 보다는 북삼읍사무소 근처 지역이 경제성이 더 높은 듯합니다.

구미시내(구미역 등이 있는 지역)에서 김천구미역까지의 거리보다 구미시내에서 북삼읍사무소가 있는 지역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삼읍에 ktx역을 세운다면 ktx를 타려고 구미시에 있는 사람이 북삼읍에 일부러 방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경상북도에서 인구가 2~3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ktx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북삼읍에 ktx가 정차하는 역이 세워진다면 구미시에서 서울이나 행신역까지 빠르게 가려는 사람이 북삼읍에 ktx를 타러 일부러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칠곡군 북삼읍에 기차역 2군데(일반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과 고속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역 둘 다)를 모두 다 세운다면 북삼읍을 방문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북삼읍을 방문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면 북삼읍의 경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 재원 조달 방법

제가 ktx를 경영해서 번 돈의 일부를 철도청이 일반열차에 지원해준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ktx의 수익의 일부를 북삼읍에 기차역을 세우는 데에 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제목	일자리창출&저소득층 소득사업	지역	강원도
----	-----------------	----	-----

우리나라 각 시·도·군의 국공유지·시부지 토지는 지금 어떤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가? 공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허가를 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휴경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해마다 일자리창출로 고민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사업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차적으로 시에서는 국·공유지 토지를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분류된 토지를 일자리 창출, 저 소득층에게 활용하자는 취지이다.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방안(시에서 운영)

시에서는 해마다 가로수길도 조성하고 많은 조경수들을 사용하고 있다. 1-5년 정도 재배가능한 조경수 식재 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식재기술이나 수목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도움으로 가능하다. 젊은 층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저소득층 소득증대

저렴한 토지임대료 소득에 도움을 준다. 농촌기술센터와 연계 소득에 필요한 작물 선택·차후 관리·판매까지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저소득층 소득증대 사업은 1인 1회 2년 정도로 임대기간을 두고 실적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농지 은행과 연계, 농민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소요예산과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야겠지요. 각 시·군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해마다 예산이 적용되고 있고 해마다 국·공유지 임대료로 들어오는 세수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는 선지급되지만 차후 소득과 임대료 발생으로 큰 부담 없음.

문제점으로는 국·공유지 임대료 인한 지상에 공작물, 수목, 농막 등 다수의 지상권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으로 인해 처음부터 주지, 문제 발생시 모든 것을 박탈한다. 또한 관리감독강화로 사전에 방지, 원활한 이용을 돕도록 한다.

제목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권 확보	지역	경상북도
----	-----------------------------	----	------

화장실과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 정도만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 정도는 과연 어떠한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은 대도시보다 중소 지방 도시로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포항의 경우를 보자.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인도 위 주차, 불법 회전, 불법 주차 차창 밖으로 담배꽂초나 휴지 버리기 등 좀처럼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니 법을 제대로 지키는 시민만 바보가 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2014년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기초질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이다. 법은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와 관찰을 통해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불법이 준법으로 뒤바뀐 현실을 이대로 방지할 것인가, 나는 포항시의 한 유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공약을 제안한다.

첫째, 강력한 기초질서를 유지해 달라!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을 준법처럼 일상화된 일부 시민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십시오.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에 의한 불법 회전(특히, 포스코 역사관 앞과 목화예식장 앞 등 상습 불법이 난무하는 곳) 사람이 보행해야 할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 도로 위로 버려지는 담배꽂초와 쓰레기 투기 등 시민의 권리를 내세우기 전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한다면 기초질서 의식을 확실히 확립시켜주십시오.

둘째, 민생치안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두운 밤 어디를 둘러봐도 경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밤거리를 다녀야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시민의 곁에 늘 함께하는 민생치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치안,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치안은 치안이 아닙니다. 전시행정이요, 탁상

행정의 표본일 뿐입니다. 동네 골목길마다, 거리 곳곳에서 친근하게 마주치는 그런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주십시오. 골목 치안을 강화해주세요. 법을 지키는 시민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이 비정상화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기본이 확립되어야 사회와 나라가 융성해집니다.

제목	농어촌 및 광양, 여천간 급행버스 제안	지역	전라남도
----	-----------------------	----	------

☛ 제안배경

순천은 18개의 초등학교(시청 근방 10km내외), 10개의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 3곳, 재래 시장 2곳, 영화관 2곳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천은 전남 동부권에서 교육, 소비, 편의시설이 밀집한 소비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의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인원들이 소비와 편의시설을 위하여 방문하는 주요 도시입니다.

하지만 광양, 여천, 벌교 등에서 순천으로 오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내버스가 존재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광양의 경우 시외버스를 활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자가용으로는 순천까지 15분이면 올 거리를 버스를 타면 30~40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배차시간이 늦어(30분~1시간) 순천으로 오는데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역만 정차하는 급행버스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주요내용

급행버스는 우선 정확한 수요와 통계조사 하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과 장소를 경유할 것이며, 순천의 주요지점에서 하차를 할 것입니다.

현재 순천에서 아랫장과 북부시장이 열릴 때 즉 매달 2일과 7일 날 아침의 경우 농어촌버스의 수요가 높습니다. 따라서 2일과 7일 아침 7~9시간 30분의 배차간격을 두고 급행버스를 운행한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요가 적은 9~18시의 경우 배차간격을 줄인다면 손실 또한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과 여수 역시 출퇴근 인원이 많은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퇴근시

간인 18시 ~19시 30분에 운행을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 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역시 기존요금의 50%를 올려 1,500원으로 좌석버스로 운행한다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압박이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대효과

첫 번째 소비의 증대와 관광객의 유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순천의 소비가 증대되고 인근 농어촌과 광양지역의 상권이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은 코레일의 관광열차인 S-train과 KTX가 정차하는 역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방문이 빈번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은 급행버스가 도입됨에 따라서 광양의 매화축제 혹은 별교의 꼬막 축제 등을 손쉽게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동시간의 단축은 주변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급행버스가 도입된다면 또한 도시의 교통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낮아지고 대중교통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

통계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손실과 이익규모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행버스는 준공영제로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급행버스의 요금 차별 (50%인상) 등을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	강동지역의 빈 상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	서울특별시
----	------------------------	----	-------

현황 및 문제점

- 중산층의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도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빈 상가들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 신규 자영업 희망자들은 경기회복세를 관망하며 점포를 이용한 사업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빈 상가 증가 → 상권 붕괴 → 우리지역 경제 침체 → 실업 증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빈 상가의 방치는 결국 지역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 따라서 일명 인큐베이팅숍(incubating shop)이라 할 수 있는 창업보육점포 지원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 개선방안

- 자영업자 창업 유도를 위한 사전 훈련단계로 ‘인큐베이팅숍’을 마련해서 지원합니다.
 - * 인큐베이팅숍의 개념 및 세부사항 아래 참조
- 강동지역의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를 자영업 희망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창업보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큐베이팅숍에서 일정기간(1~2년) 창업보육 실습기간을 거친 후 졸업시킵니다.
- 인큐베이팅숍은 강동지역내의 사회적기업이나 NGO, 지역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관리 시켜서 창업보육을 지원하게 합니다.

■ 기대효과

-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시켜 강동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 취미 수준에 머물던 수준 높은 솜씨를 창업으로 유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강동지역의 빈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임대인은 임대료 수익, 임차인은 저가로 점포를 운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창업 전선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보육과정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강동구청은 저비용 고효율의 창업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 자립 지원, 청년실업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인큐베이팅숍 개념 설명

- 강동구청은 지역 부동산업자 또는 건물주 협조의뢰로 빈 지하상가, 또는 장기 공실 상가, 부(副)상권의 빈 상가 등을 조사
- 동시에 지역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공모(인큐베이팅숍 입점자 선정을 위한)
- 강동구청은 빈 상가에 대해 인큐베이팅숍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물주에게 설명.(상권 활성화 차원을 강조로 적은 임대료 유도)
- 기존 상권(품목)과 직접적 충돌이 없는 인큐베이팅숍 입주. 운영관리비는 점주가 지분. 임대료는 강동구청이 지원.
- 1년간 인큐베이팅 한 후 졸업시킴. 그 자리는 다른 예비창업자가 인큐베이팅숍으로 사용. (순환형태)

- 독특한 아이템, 손재주가 좋아 취미생활로 하기엔 실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주부, 청년 등을 사회활동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빈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순영향을 주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게 됨.
- 특히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데 일조할 수 있음.
- 본 제안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제목	베이비 부머 세대 실직 예방 일자리 인프라 구축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실태

- 1) 베이비 부머 세대는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정년이 도래하여 은퇴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2) 식생활 개선 등 생활환경이 나아짐에 따라 건강수명도 길어져,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한 건강연령층에 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일자리 여건으로 인해, 실직자로 전락할 위험요소가 있음.
- 3)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엔 기존의 수도서울의 원래의 기능인 많은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이 있지만,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4)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종 수도권 규제법규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급속하게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 본 시책에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방안

- 1) 최고의 복지는 적당한 일자리 부여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비용, 연금비용, 생활보장법에 정하는 각종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어,
- 2) 기업의 유치, 국내외 각종 공공기관의 유치, 연구시설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함.
- 3) 이를 위해서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조사하여 관련 법률의 개폐를 통하여 시정으로 하는 제도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4) 무한경쟁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 자치 법규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5) 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재정·행정적 지원책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제목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용역 모니터링 정책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용역과 관련한 수천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입주민과 소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 중인 시민으로 저희 아파트는 총 33개동 371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그 동안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의 비리가 빈번했던 단지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위한 업체선정을 하였는데 약 15억원이라는 금액에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 소유주와 입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공단과 서울시의 아파트닥터 서비스를 통해 공사와 용역에 대한 비용이 적정한지 아파트 관리업무 진단 또는 자문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관리비를 지불하는 다수의 입주민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는 소유주가 아파트의 관리비와 수시로 발주하는 공사/용역이 적정비용인지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남용하여 이러한 공사/용역을 통해 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자 한다면 이를 소유주나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

아파트 관리비 및 공사용역 비용 적정성 검토등 아파트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아파트 관리비 자문서비스의 신청을 소유주나 입주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및 자원조달 방안

이미 국토해양부산하 주택관리공단 행복지원센터에서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용역서비스의 비용적정성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아파트닥터라는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과 소유주는 신청할 수 없고 일부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스스로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입주자와 소유주는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모니터링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현행 반쪽자리 정책을 개선하여 입주민과 소유주가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이미 운영중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차원이므로 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각 지자체에서 접수되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 관리와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비정기적인 업무를 줄일수 있고 정기적으로 소유주와 입주민이 점검을 요청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기별 또는 연간단위로 점검한다면 오히려 관리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아파트의 관리업무와 공사 용역업무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일부 입주자대표 몇몇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자나 소유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입주민과 소유주가 자문 및 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옥도면 어청도 관광벨트화	지역	전라북도
----	---------------	----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마을의 관광벨트화를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군산으로부터 72km 떨어져 있는 이곳 어청도는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청도를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청도와 인접한 섬인 충청남도 외연도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겁게 놀고 숙박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박 2일’에도 나왔던 섬입니다. 어청도는 주업인 어업을 통해서 그동안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어업뿐만이 아니라 관광사업도 이곳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 낚시코스, 등산코스, 트래킹코스, 바이크 코스, 식당(민박)코스 등을 권역화 하여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 낚시코스 : 5곳×5백만원=2500만원(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낚시 장소를 마련합니다.)
- 등산코스 : 2013년도에 마을의 뒷산을 정비하였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이곳을 마무리하고 좀더 정돈하여 등산객들이 3-4시간 등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트래킹코스 : 30대×20만원 =600만원(등산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자전거를 대여하고 이를 통해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 바이크코스 : 10대×500만원=5,000만원(4륜 오토바이를 통해 섬을 관광은 관광객들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고 여행해 보는 코스를 만듭니다.)
- 식당(민박)코스 : ‘금강산도 식후경’ 잘 먹고 잘 자고 가야겠죠. 기존의 식당(민박)등을 좀 더 깨끗히 정비하여 많은 손님들이 즐겁고 좀 더 저렴한 곳에서 즐겁게 묵었다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 또한 자연산 물고기와 자연산 채소 등을 직접 수확하여 관광객들이 육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맛을 느낄수 있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모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스 등을 종합하여 관광벨트화한다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러한 관광섬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주민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우리 고장의 이미지 변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컨트리 투어 버스[Country Tour Bus] 운행	지역	경기도
----	--------------------------------	----	-----

컨트리 투어 버스 [Country Tour Bus] 운행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각 주요 도시마다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도시를 관광하기에 참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도시에 비해 덜 발달된 지방에서는 더욱 이러한 투어 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가용 없이 하루에 여러 관광지를 두루 방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편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평군만 하더라도 세미원과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차로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고 버스도 아주 드물게 운행됩니다. 이 지역 근처에는 두물머리, 서울종합촬영소, 정약용유적지 등 많은 관광지가 인접하여 있으나 자가용 없이는 이동이 불편합니다.

이 지역을 순환운행하는 셔틀버스 타입의 투어버스가 있어 관광지에만 정차한다면 관광객이 급증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0분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지하철역에서 출발하여 관광지에 정차하며, 1일 이용권 구입시는 무제한 승하차가 가능한 컨트리 투어 버스의 운행을 제안해 봅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지하철 역사나 그 옆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마련한다면 지역 농민들에게도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투어버스는 친환경무공해 버스로 여행사에서 운영하게 하거나 인접지역 자치단체들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SOC건설시 민자도입 방법 개선	지역	부산광역시
----	-------------------	----	-------

이번에 부산에서 산성터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4억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민자 참여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충원하고 터널에 대해 도로비를 부산시민으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터널, 자리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있으면 이런 시설들은 대개 도로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차로 움직이면 유료도로 천지라는 오명이 있지요.

이런 SOC투자에 대해 민자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대안을 통해 부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SOC건설 계획시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펀드 조성을 통해 부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 건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비를 징수해야겠지만 외국계 사모펀드가 배 불리는 것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요.

※ 이 제안은 구보다는 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재래시장희망닥터	지역	경기도
----	----------	----	-----

재래시장희망닥터란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영노하우 상담닥터제도라는 의미이다.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살아본 경험과 대기업의 대형마트 기획팀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을 비교해보면 재래시장이 대기업에 비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영노하우와 서비스교육 그리고 가게점포건물주인과의 분쟁해결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경우 본사에서 경영전문가가 매달 파견 나와 매장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물건진열상태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마트점장에게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하는데 재래시장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데다 가게주인 상당수가 고령이다 보니 현재의 경영노하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두 번째 문제는 고객 상담 요령과 서비스응대 방법인데 대형마트의 경우 서비스평가요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직원들의 고객대응태도 점수를 매기고 개선사항을 피드백해주는 반면 재래시장은 그런 일을 해 줄 사람이 없다보니 무엇이 잘못된 응대방식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세 번째 문제점인 가게점포주인과의 마찰이란 재래시장상인들 상당수가 가게를 세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점포원주인이 일방적으로 가게 세를 올려달라거나 자기들이 장사할 테니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많이 보았다. 가게점포에 세들어 사는 가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다보니 일방적으로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세입자보호차원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도에서 재래시장희망닥터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재래시장희망닥터의 역할은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에게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고객응대서비스방법을 공유하며 사회적 약자인 가게세입운영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기본적 법률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실행인원은 경영전문가와 상법이나 부동산법전문가를 시내의 재래시장마다 각1명씩 총2명을 파견하여 상인회건물이나 재래시장관할 주민 센터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고 상인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접 가게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문제점 개선방법을 알려준다.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 세를 주기적으로 올리거나 무조건 가게를 비워달라는 점포건물주의 횡포에 가까운 요구에 시달리는 가게주인이 있는 경우 점포주와 가게주인과의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이 세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는 재래시장상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을 만한 공약이다.

이 공약은 재래시장마다 단2명의 전문가만 파견하면 되므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재래시장활성화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중 일부만 활용해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또한 재래시장에 따라서는 장사하는 상인들 중 재래시장희망닥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효과의 일석이조정책이 바로 재래시장희망닥터 공약이다.

제목	잠실타박거리(신천먹자골목) 상점가 육성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	-------------------------	----	-------

제안이유

- 송파구의 잠실관광특구, 서울시의 코엑스와 연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등의 송파 지역 개발 사업계획에서 모두 제외된 잠실 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옛 명소 잠실타박거리(신천먹자골목) 되살려 지역경제발전과 올바른 상가문화 정착을 실현

☐ 주요내용

- 과거 압구정과 더불어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찾던 강남의 관광명소 ‘타박거리’는 코엑스 등 주변 상가지역의 발전으로 유동인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송파구의 미협력 등으로 송파구에서 제일 낙후된 잠실올림픽로 상가지역으로 상점가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문정로데오거리의 경우, 송파구의 협력과 자체적인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을 통해 상가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집행함으로써 송파구에서 몇 안되는 관광명소 및 문화명소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잠실타박거리 상점가의 경우, 자생적인 중소기업인 단체(협동조합)가 존재하고 봉상시길 주차장이 있어 이를 위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 및 올바른 상가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적인 예산 마련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신천먹자골목이 잠실타박거리라는 본래의 이를 되찾고 송파구의 문화 및 관광명소의 지위를 되찾음으로써 잠실종합운동장, 잠실관광특구 등 지역의 경제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가능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의 재원은 봉상시길 주차장 위탁관리를 통해 조달하고, 그 주차장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잠실타박거리 상점가 육성을 위해 투입되므로 각 자치단체의 별도 재원조달방안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상점가의 활성화로 자치단체의 세후가 확대됨.

제목	항해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관광단지 육성	지역	충청남도
----	-----------------------	----	------

당진은 인구증가율, 고용증가율이 높아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고, 국내 3대 철강 생산 지역이자, 중국과 인접한 물류 중심지역인만큼, 당진을 동북아 물류중심, 서해안 환 황해권 무역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항해경제자유구역을 원활히 추진한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실패로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올해 8월 4일까지 신청 못할시 해제되는 상황이다.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있다. 가장 먼저 투자할 사업자를 찾아 항해경제자유무역구역을 정상화시킨다.

두 번째로 당진시를 철강, 부품소재 산업특구로 육성하여 국내 최대 철강메카 도시로 육성한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 철강 생산지역으로 대형 철강 회사인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등 철강 회

사 증설 및 확대를 통한 산업특구 지정으로 연구·교육 기능까지 갖춘 국내 최대의 종합 철강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지리여건상 부산, 광양보다 가까워 통일 이후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철강을 당진에서 생산하여 남북통일 대비한 철강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세 번째로 중국 물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한다. 중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및 대중국 물류거점 해양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해안 복선전철의 2019년 개통을 목표로 3조 9,284억원을 투입, 항만·물류단지와 서해안 복선전철을 연계한 철도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네 번째로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및 서북부해안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관광객 유치에 적합하며 삽교호, 왜목마을, 난지섬 등과 연계한 크루즈를 유치한다.

다섯 번째로 당진시를 가톨릭 성지로 육성한다. 8월14일부터 18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 등을 위해 당진 솔피성지와 서산 해미성지, 해미읍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교황 방문을 계기로 당진을 가톨릭의 성지로 육성시키며 교황을 맞을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도비도 국내 최대 암반해수 관광단지를 육성한다. 대호방조제, 도비도는 암반 해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낙후된 시설로 관광객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비도 '블루팜 리조트'사업은 연간 250만명이 이용가능한 암반해수 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 피아 설치 등 관광단지로 집중 육성한다.

대다수 마을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마을 발전을 공약하면서 그동안 지켜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을 발전의 미래상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마을 고유의 문화와 정서와 가치를 살리고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마을별 특성화, 명품화, 차별화의 3대 전략을 가지고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산물인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마을발전 정책으로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마을의 발전이 곧 제주도의 발전이고,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일회성 공약이나 구호가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진정성과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제목	불법 주정차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	----	---------

☛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의 계획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이자,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출범한 신도시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시책답게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이전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행정 중심점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축제, 박물관 및 수목원 등의 관광지들로 많은 외지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외지인들의 방문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많이 불거져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에 관한 정책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분명 법적으로 위법사항이긴 하나, 순간의 실수로 단속 속에 적발됐을때 억울함을 토로하는 운전자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관련 업무 담당관의 고충으로 이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고정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가 있거나, 네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주지만, 차량형 CCTV 및 도보형 단속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안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주차를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제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내하는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부시에서 기존 단순 문자로만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량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까지 차주에게 전송해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MMS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 및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사전알림까지 해준 정당한 근거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누구나 즐겁게 방문하고 기분좋게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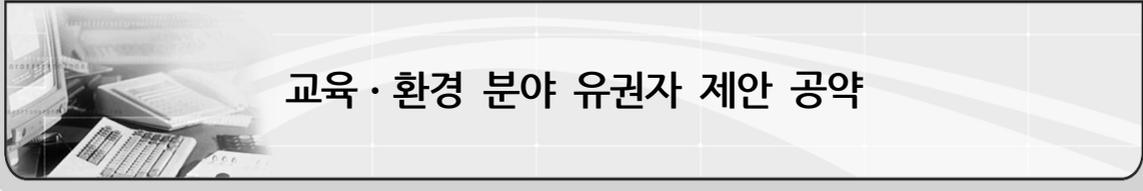
☛ 주요내용

1. 무엇을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되도록이면 신뢰성 높은 사진까지 포함함 서비스로)
2. 어떻게 :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도입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교육·환경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신흥로 주변의 차량 운행 제한	지역	인천광역시
----	------------------	----	-------

신흥로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서,

동인천 e-MART 앞 큰 도로와 신흥4거리 큰 도로에는

- 1) 인천항으로 진입하려는 대형차량과,
- 2) 인천항에서 하역된 물품을 실어나르는 대형차량과,
- 3) 월미도에 진입하거나 진입 후 퇴출하려는 외지 차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행은 나름 목적과 명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신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행자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에 인적교통사고도 빈번하며, 설령 보행자 신호로 바뀌더라도 반드시 좌우 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심적 안전감을 갖는 곳입니다.

- 1) 대형차량의 난폭운전과 크랙션 소리의 소음
- 2) 외지차량들의 난폭운전(제한속도 이상으로 운전) 등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주 주민으로서 제안을 하면,

- 1) 인천항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허가(또는 신고)제(신고된 차주에게 정기적 안전교육 이수 후, 필증 부착 차량만 운행허가)
- 2) 인천항 주변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는 제한속도 60Km이하로 특별관리 등을 제안합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겠죠. 마음은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에도 기인합니다. 주거는 행복한 장소이어야 하며,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모든 것이 변해가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환경도 같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

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고, 나부터 개선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이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눈여겨보시고 잘 보듬어 서로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북구 책숲(북 포레스트(book forest))사업 실시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이유** :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책을 통한 주민들의 교육 및 여가 증진을 위해, 관내에 곳곳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함.

☛ **사업방법** :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책숲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동사무소, 가정복지관, 노인회관, 공사 등)의 잔여공간을 활용하고 공급되는 도서는 도서 공급업체의 협찬을 받아 설치함.

☛ **소요예산** : 3,000만원정도(1개소당 1천만원정도 시설예산)

☛ **재원조달** : 최초 시설비는 자체예산으로 조달하고, 도서 공급은 도서공급업체의 협찬을 받음(책장주변 광고허용)

☛ **사업시기** : 2014.7월 ~ 2015.2월

가. 설치대상지 선정 : 2014.7월 ~ 9월

나. 도서 공급업체 협약 : 2014.10월 ~ 12월

다. 시설설치 : 2015.1월~2월

제목	중랑천 자전거길 및 보행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	----	-------

☛ **목표** : 중랑천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

☛ **제안이유** : 도봉구에서부터 성동구까지 이어져 있는 중랑천은 길이가 총16킬로미터로 서울 시민들의 중요한 운동 및 휴식처 공간으로 자전거길 및 걷는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집이 근처라서 중랑천에 자주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시간대에는 이용하기가 좀 꺼려지더군요. 새벽에는 사람이 없어 너무 한적하고 특히 다리구간 사이는 무서워서 도저히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로등이 있지만... 그래서 생각해 본건데요. 좀 더 시민이 안전하게 중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소요금액** : 약 2억 5천만원

○ 산출기준

- 카메라설치비 : 감시카메라가시거리-100미터, 카메라가격-대당 300만원(시스템비 포함), 중랑천길이: 32키로(16키로×2(좌우))
- 운영비 : 관리인 5명
- 산출액 : 300,000원×320대(100미터당 1대)=96,000,000원+30,000,000원(연봉)×5명
=2억 5천만원

☛ **시행처** : 서울특별시(여러 구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구역 분쟁 해소)

☛ **재원** : 서울시 지방비

☛ **기대효과** :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24시간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 확보, 일자리 창출, 안전한 서울이미지 제고

제목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의 교통안전권 보장	지역	경기도
----	------------------------	----	-----

1. 사립학교법상 학내에 주차시설 공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아 있는 공간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갖추거나 임의로 주차를 하고 있다.
3. 차가 많이 없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차가 대중화되어 차량의 교내진입이 잦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문제가 심각한 위험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학내에서 차에 부딪쳐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하여도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럭비공처럼 어느 곳으로 튀어나올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5. 대안1 : 옛 향교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다. ‘대중소개하마’ 향교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 구별 없이 말에서 내려 들어오라는 문구이다. 학업에 정진하는 신성한 학내공간과 주차공간을

따로 분리 설치하여 학생들의 접근을 예방한다.

6. 대안2 : 학생들이 주로 정문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정문을 통한 차량진입을 막고 운동장 등에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차량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학습권을 지키는 원천이다.

제목	수도권 경의선 이용 주민을 위한 교통분야 공약제안	지역	경기도
----	-----------------------------	----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전세값 폭등에 따라 서울에 직장을 둔 가정들의 주거비용 등을 이유로 수도권 등 서울근교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얼마전 서울시의 발표와 같이 서울시의 인구 감소와 경기도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격차가 200만명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꾸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발확정 등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국철 및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한 관련 정책공약들이 매 선거마다 단골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교통체계의 도입에 앞서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과 관련한 공약은 너무 미흡합니다.
- 당장에 개선하기가 골치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어서인가요?

■ 공약제안

- 지역주민 및 유권자에게 당장의 편익을 줄 수 있는 정책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수도권 경의선 국철 이용 주민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출퇴근시간 경의선 국철의 운행시간 조정제안

- 경기이북의 경우 출퇴근시간 서울행과 공덕행 경의선 국철이 운행중이나 구역별 배차시간이 20분가량 차이가 납니다.
- 문산에서 가좌까지(급행의 경우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서울역행과 공덕행이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므로 이들 기점역에서의 발차시간을 조정한다면 동일지역 10분대의 배차간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출퇴근 시간 국철의 객차편성량 증가 제안

- 현재 출퇴근시간대의 국철 객차 편성량은 8량과 4량으로 운행중이나 4량의 경우 이용 승객대비 좁아 매일이 지옥철입니다.
- 따라서 기본 8량으로 편성하고 이용이 많은 급행 등은 10량으로 편성하여 주민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광역급행버스(M버스) 배차 조정제안

- 일반급행과 함께 좌석전용으로 이용중인 광역급행(M버스)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 각 지자체에서 이들 M버스에 대한 요금체계 현실화와 일반광역버스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익을 개선시켜주고 이에 급부로 배차량을 늘려준다면 주민들이 출퇴근시간 이용시 30~40분 이상 기다리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도시통합관리 시스템구축)	지역	광주광역시
----	-------------------------------	----	-------

■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수요증가추세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반 시설물에 텔레메트릭스 기술과 3D융합기술을 접목하여 도괴, 붕괴, 환경 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수작업 또는 비정형관리 형태에서 과학적 관리 형태를 통한 인공 시설물 안전 도모를 위하여 국가기간망 및 공중망(TRS 등)을 이용한 기존 망 활용성의 극대화
- ※ 텔레메트릭스 기술이란 Tele(원거리) + Metry(계측학) + Electronics(전자학)

■ 개선방향 (사업내용)

- (1) 추진 주체 : 광주광역시 관련기업 및 대학, 3D융합사업 육성사업단
- (2) 위치 및 사업기간 : 광주광역시 일대, 2014년~2016년(3년)
- (3) 사업비 : 300억원(국비: 210, 시비: 60, 민자: 30)
- (4) 사업 목표
 - 도시 전체를 사이버 공간상에서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 및 서비스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발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신산업 창출 지원
 - 도시를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지적, 지하시설물, 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다양한 공간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언제나 원하는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

(5) 주요 내용

-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의 DB를 활용하여 지형 및 건물의 지리정보 획득
-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도시의 지상시설물 정보획득
- 획득된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를 3D 모델링
- 3D GIS 엔진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U-City 도시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지하매설(가스, 상수도, 송유관 등), 구조물(교량, 건물), 소방 등에 특화된 안전진단 센서 국산화 및 특화센서 개발(초소형, 저전력센서, 3D CCTV 등), 센서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양방향 중계기 개발 등 융복합 요소 기술 및 광대역 유무선 통신, 실시간 제어, 분석 기술 응용프로그램 개발, GPS 및 3D 맵을 적용한 텔레메트릭스기반 시설물 설비감시 3D 모니터링 및 진단시스템 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

- 공간정보, API개발, 콘텐츠 제작관련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으로 지역혁신체계구축
- 공공분야의 민간분야 연계를 통한 모바일, 텔레메트릭스와 연계한 실시간 사용자 요구 3차원 도시정보 제공,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홍보 마케팅 지원
- 원천기술 확보 방법으로 텔레메트릭스기술연구조합과 전략적 제휴하고 지역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공동 연계 기술개발 추진
- 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필요(텔레메트릭스 전용망)하며 기관별 국가재난 통신망 현황 분석 후 자가망 구축 대안 수립
- 유기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재난재해 관련법령 제정하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유관기업/기관 지원제도 마련

기대효과

- 3차원 공간정보의 통합구축기반 마련 및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사회 기초자료 작성
- 도시행정업무, 도시시설물관리, 공원녹지관리, 건축물 인허가, 문화재 관리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차원 가시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 도시관리 가능
- u-City 관련업무, RFID 및 USN과 연계한 3차원 실시간 도시관리시스템으로 활용
- 지능형 융복합 센서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효과 및 핵심센서 수출 기술력 확보
- 사회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인적/경제적 피해의 감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SOC 안전감시시스템 구축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인식 제고 및 사고 저감

제목	다산초당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단지 조성	지역	전라남도
----	-----------------------------	----	------

강진군은 조선후기 대표적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신 곳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소재한 다산초당을 활용해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대한 열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기에 학습연령대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대학진학에 유리한 수학, 영어 등 핵심과목에만 치우쳐 지성 및 인성 발달에 중요한 전통, 가치, 예절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왕따,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부모님들도 인지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의 인격수양을 이루고자 노력하십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강진군이 보유한 소중한 문화자산인 다산초당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교육문화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어 및 수학 등의 수험 과목이 아닌 전통과 예절, 인간과 사회, 그리고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인격적 완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병행 개발해 제공한다면 체험당사자에게는 교육적 만족감과 인격적 향상을 그리고 강진군에는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인지도 제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가족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또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또한 강진군과 인접한 장흥, 보성 등의 지역과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단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보고, 즐기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오감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지식인, 그리고 성공만을 아는 천편일률적인 교육환경에서 강진군에 전통, 문화, 예절, 그리고 인격함양 등을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문화 단지를 조성한다면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이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목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 운영	지역	인천광역시
----	------------------	----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를 제안합니다.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의 개념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접 계획하고, 실시하는 봉사제도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공헌 활동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학교 선생님 또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을 받아 봉사활동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청소년자원봉사사이트나, 나눔포털, 교육부의 나이스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향후 대입이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제안이유

얼마 후면 ‘자유학기제’가 본격화됩니다.

※ 연구학교 - (2014년 800개교, 2015년 1500개교), 2016년 중학교 전면실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활동 및 봉사활동을 위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도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그리고 복지기관 1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봉사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중학교 1곳의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권 청소년시설이 있던가요? 인천에만 수백개의 학교가 있는데 현재는 이를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를 제안합니다.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활동의 예시

- 화살표청년(이민호) 같이 버스정류장에 방향표시를 하는 활동
- 단체로 낙후지역의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
- 학생들의 소외지역 학습지도 멘토링 봉사활동
- 마을 제설작업 등의 봉사활동
- 외국어 간판 현황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 유해시설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 문화환경시설 모니터링 활동
-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을 제거하는 봉사활동

☐ 시민의식을 높이는 캠페인활동

- 자연보호 활동

- 동아리 공연봉사활동

마을 문화지도(박물관, 도서관, 문화시설 외)를 만드는 봉사활동 등 입니다. 이외에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활동은 많습니다.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활동의 효과

청소년들은 사회공헌을 해서 좋고,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좋고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사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욕심을 내자면 청소년 사회공헌활동을 언론과 지역사회를 통해 홍보하는 것과 열심히 한 청소년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회공헌대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협동하여 실시한다면 더 큰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개요를 적습니다.

1. 제목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제도

2. 장소 : 전국 어디서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3. 대상 : 대한민국 청소년(9세~24세)

4. 내용

- 청소년 사회공헌 봉사활동 자문위원회 구성

- 청소년 사회공헌봉사 온라인시스템 구축

- 청소년 사회공헌봉사 언론홍보

- 청소년 사회공헌봉사 실시

- 청소년 사회공헌대상(우수자 시상)

- 청소년 사회공헌봉사 효과홍보

- 전문가와 평가회의 진행

5. 주최 : 교육부, 여성가족부

6. 주관 : 전국 중학교 및 청소년수련기관

7. 기대효과

- 청소년의 사회참여 증대 및 시민의식 향상

- 지역사회 사회적 비용 감소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발전방향 도출

8. 소요예산 : 약 50억

청소년 사회공헌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비용

- 청소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비
- 청소년 사회공헌대상 시상식(공영방송사와 함께 진행하여 전국방송)
- 추진사업 인력보강 인건비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외부로 나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활동 들을 1가지 씩만 한다고 하여도 이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 전문가와 교육전문가, 그리고 행정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단체봉사에 대한 안전과 실효성 등을 꾸준히 검증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제목	지정된 (흡연)장소외 區전체의 전면적 금연 시행	지역	서울특별시
----	----------------------------	----	-------

제안이유

- 가. 흡연의 폐해는 익히 알려져 있음
- 나. 금연구역 확대가 반드시 담배소비를 줄여 세수부족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세수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이는 국민과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한 사업으로서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함.
- 다. 특히 공공장소 및 길거리 흡연의 규제가 개인의 꺾연권에 대한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에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었으나 우리사회의 기초질서 확립과 공동체의 가치를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흡연구역 내지 흡연장소 先 설치
- 나. 지정된 장소외 區전체를 금연장소를 지정(특히 보행중 흡연의 전면금지)
- 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시 건당 금100만원의 과태료 제도 시행
- 라. 신고자 포상제도 병행실시를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사업추진동력 확보

소요예산

- 가. 없음
- 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에 충원효과가 있음.

☐ 재원조달방안

- 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시 당사자에게 건당 금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확보함.
- 나. 위 과태료 부과액에서 건당 금50만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재원을 자체조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짐.
- 다. 사업내용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과태료 부과금액 및 포상금 제공금액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논의가 가능함.

제목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북카페-작은 도서관 만들기	지역	대구광역시
----	-------------------------------	----	-------

〈걸어서 10분, 주민자치형 ‘우리 동네 북카페-작은 도서관’ 만들기〉

☐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 해당

☐ 목적

1. 동네마다 곳곳에 있는 비활용시설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민 근접형(걸어서 10분 거리) 북카페-작은 도서관 만들기
2. 주민 커뮤니케이션의 장, 독서와 휴식, 편의공간으로 활용하여 아이에게는 놀이방, 학생에게는 공부방, 엄마·아빠에게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 내용

1. 소속 시·군·구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자투리땅을 제공
(취지를 후원하는 사회단체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공간도 사용 가능)
2. 초기 시설 구축과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
3. 마을 주민들이 기증하는 도서와 물품, 뜻 있는 단체와 개인 기부 확보
4. 운영은 주민 봉사단 모집하여 주민 자치 형태로 운영
5. 인근의 썸지공원과도 연계하여 독서-문화-놀이가 어우러지는 마을공동체 형성

제목	(가정용)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지역	경기도
----	---------------------------	----	-----

매년 갈수록 전기가 귀할 때 어떻게 하면 전기를 아껴 전기료도 줄이고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또는 필요한 전기를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까 고민하다 찾아 보니 ‘미니 태양열 발전기’를 가정에서도 설치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시 태양광 집열판을 베란다에 걸고 연결된 전선을 콘센트에 꽂으면 집안 어디서든 바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1미터 안팎의 태양광 패널 2장에서 한달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은 15킬로와트에서 24킬로와트, 김치냉장고나 에어컨 1대를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보통 한 가정이 한달 동안 273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전력사용량의 8% 정도를 태양광으로 소화할수 있으며, 전기요금도 한 달에 4천원에서 많게는 1만 7천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설치비는 70만원으로 예상되며 개인이 30만원 시에서 40만원을 부담해 주시면 많은 세대가 신청하여 설치하고 장기간으로 볼 경우 지역 및 국가 전력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력난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풍기 및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질적인 육아지원 대책 확대	지역	전라북도
----	-----------------	----	------

아이 엄마라 아무래도 보육과 교육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회 접종에 12~15만원, 4회 접종해야하는 폐구균은 다행히 이제라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무료로 접종할 길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미지수이고, 지역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이러한 사업의 경우 최대한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 가장 먼저 찾는 곳인 보건소에서 그림책을 무료로 배부해주고 부모님에게도 책읽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독서습관을 갖도록 지원해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수첩과 신분증을 들고 도서관에 찾아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엄마들도 많고, 시행중이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북스타트운동과 같이 좋은 제도는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는 책을 주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활성화시켜주세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독서바우처)같은 경우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를 대체할 만한 좋은 공약을 보여주시면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아닐까요. 백신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부디 예방접종만큼은 돈 걱정없이 모든 아이가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거래시 라돈 수치 의무 확인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노원은 아파트가 무척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구 중에 한 곳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살아서 아이들 세대라도 라돈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제안합니다.

석고보드, 건설자재 등 많은 라돈 위험물질이 아파트며 주택에 노출되고 있기에 당장 개선하기는 쉽지 않기에 주택·아파트 거래시 라돈 수치를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공개한다면 획기적으로 주거환경이 변경되고 구민 건강에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얼마전 추천 60분 ‘라돈의 공포’를 보니 체코나 미국 등 라돈을 잘 관리하는 나라들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전세/ 혹은 주택 거래시 해당 집의 라돈 수치를 의무적으로 알려주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치명적 발암물질로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게 한다는 라돈의 치명성은 이제 우리나라 전국토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를 떠나서 서울 시에서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많은 노원부터 라돈 관리를 공인중개사 단계부터 시작하면서 구에서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라돈 측정기 구입에 도움을 주고 거래시 라돈수치 필수표기한다면 구민들을 비롯해 환경부와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줄거 같네요..

라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라돈 수치를 집거래시 (전세 월세 포함) 필수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일단 구에서 공약으로 선정하면 환경부에서도 실패를 파악한다고 하니 지원을 해줄거라 생각됩니다. 교육구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가 많기에 ‘공인중개사 거래시 라돈수치 기입’을 먼

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면 홍보효과도 되고 나라에서도 지원해주며 추이를 지켜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시민들에 의한 환경상시감시 박스 운영	지역	경기도
----	----------------------	----	-----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생활을 잠시 쉬고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을 위해 매일 거르지 않고 1시간씩 부용천 주위의 산책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부용천의 관리가 잘되어 커다란 잉어들도 살고 이런저런 철새들도 날아들어 더없이 보기 좋습니다. 시에서 큰 관심을 기울인 덕분이라 생각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름철이 되면 간혹 한번씩 부용천 물색깔이 검게 변하면서 역한 냄새가 나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루 이틀 뒤 몇 마리의 잉어들이 죽어서 떠오릅니다. 제가 산책로를 따라 긴 거리를 걷기 운동하다 보니 작년 여름에 왜 물색깔이 그렇게 검게 변한 건지, 어디서 그런 역한 냄새가 나는 건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말교 부근 하수구를 통해 검은 물이 배출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분명 새말교 인근 어느 사업장에선가 바로 그런 더러운 물을 하수구를 통해 배출한 것입니다. 정의감을 갖고 핸드폰을 꺼내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배출되는 바로 그 순간에 신속하게 현장을 적발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얼른 알리고 싶었음에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하에서 시청공무원들이 항상 단속관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감시하고 신속하게 공무원들에게 알린다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공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는 하천주변 산책로에 환경상시감시 박스를 요소요소에 설치해 비상시에 핫라인 처럼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앞선 제 사례와 같은 경우 폐수방류 현장 목격시 바로 환경상시감시 박스로 달려가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했다면 당시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민 모두의 재산이자 자랑인 하천을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 의한 환경상시감시 박스 운영]을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제목	초록마을	지역	서울특별시
----	------	----	-------

도봉구엔 산이 많아 경지도 좋고 녹지도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하천을 따라 공원도 많이 조성되어 자연친화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져서 길가나 공원의 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주던가 자동 급수장치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 발바닥공원이나 방학천을 따라 걷다보면 하천변에 나무를 좀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처음과 끝, 혹은 중간에 하천의 지도나 약도처럼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걷다보면 끝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립박물관 건립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이유

대구에는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 자료수집, 연구, 전시, 교육, 체험이 가능한, 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 개념의 박물관이 없습니다.

대구에 국립박물관 있는데, 왜 또 박물관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를 그러면 박지성 혼자 하나요?

공격수(국립박물관), 미드필더(공립박물관), 수비수(대학, 사립박물관), 골키퍼(광역단위 관리 부서), 코치(지역 학계, 연구원), 감독(대구의 오피니언리더, 시장) 다 같이 하는게 축구죠!

지금 대구박물관축구단은 미드필더에 중학생 한명 세워놓고 프로팀하고 경기해 왔습니다.

장소는 도청 후적지든, 두류정수장 후적지든 4차순환선, 3차 순환선 내, 지하철 역 근처, 달서구, 서구, 북구, 남구의 교통 접근성 좋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대구 중심권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대구시립박물관’ 이라 검색하시면 여러 글들 ‘뉴스’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합니다.

문화칼럼 -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산다

<http://blog.naver.com/cu1985/49225290>

매일신문 칼럼 - 있던 박물관이 사라진 도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046&yy=2013

문화재 반출사 - 내용증 사라진 대구시립박물관

<http://www.idaegu.com/?c=2&uid=271918>

대구문화중장기 발전계획안 - 용역결과물 제일 앞페이지는 시립박물관.

여기에 나온 다른 계획들은 거의 실현되었음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414260&userId=bhs4801>

○ 광역시 수준 자치단체는 대체로 세 분야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공연예술)
- 미술관(1950년대 이후 전시예술)
- 박물관(선사~1950년대 이전까지, 문화재)

○ 박물관은 동일권역 내 국립박물관 유무와 무관하게 설치, 운영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부산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대전역사박물관, 울산박물관 등

- 서울, 부산, 인천은 지하철 노선 내, 광주는 연접
- 3종의 문화기관 중 유일하게 법정민원사무인 매장문화재 관련 행정업무 수행(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 대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박물관 개념의 시립박물관 부재

- 舊)대구시립박물관은 1947년 개관했다가 50년대 폐관 보물급 유물을 비롯한 소장품 천 여점 경북대박물관에 위탁
 - 현재 방짜유기박물관이 예술회관 산하 과 단위 운영 및 근대역사관·향토역사관이 하나의 계 단위로 통합 운영 중
- 서울이나 부산은 20배, 광주 인천 울산 대전은 대구의 10배 정도 규모입니다.

간혹 국립대구박물관이나 대구시립미술관을 대구시립박물관으로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박물관 관련 발전방향

○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시립박물관 필요

- 대구의 품격, 없어진 것의 회복, 대구의 랜드마크나 볼거리 마련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개발행위에 필수적인 민원업무 수행 원활이 최우선 목적
 - 문화재청에서 소규모발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영 및 소요기간 문제는 상존
- 동일권역 내에 국립박물관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름
 - 국립박물관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곳이며, 대구의 역사

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곳은 향토역사관이 유일하지만,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낡았으며, 동물원이 있는 달성공원 내에 위치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체험학습장이며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대구정체성의 지킴이이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임
- 고액의 티켓을 구매해야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공연이나 전시와 달리 지역의 역사라는 문화컨텐츠를 무상으로 지역민에게 제공한다는 공공성(저소득층 문화복지 및 공공재로서의 지역 역사)

○ 왜 민간위탁이 아닌 시 직영 기관 형식의 박물관이 필요한가?

- 타 광역지자체에서 박물관 분야를 민간위탁 안하고 직영 기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유
→ 위에서 언급한 공공성 때문
- 예산절감 수익사업 등을 이유로 들지만 공공성이 미술관 보다 더 요구되는 공립박물관의 성격상 불가 → 몇년 전까지 음악이나 미술교과서와는 달리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였으며, 국사과목은 공무원 시험에도 필수과목인 이유는 그만큼 공공성이 요구되는 성격임을 대변하고 있음.
- 수익모델을 창출하여도 실제 운영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국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 불가피(ex.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료검사)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법인의 영리사업을 위해 외주를 주는 것은 불특정 대 다수의 시민의 편익을 무시한 것임.
ex) 똑같은 건축개발행위에 따른 문화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 처리기한 2주 민원사무+장비임차료 정도의 일을 대구에서 법인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1달 이상의 기간, 수백만원 단위의 비용이 들 수도 있음

○ 향후 대구역사박물관(가칭) 개관 필요

- 시립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예술회관 산하의 방짜, 근대, 향토도 타 광역시도처럼 시립박물관의 소속부서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화
- 광주나 인천 정도의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으로 가정할 때 전시, 유물관리, 교육, 문화재 조사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0여명 정도의, 계약직이 아닌 정규 연구 인력(학예연구사) 편성이 필수적임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비리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원천차단하려면 다른 시·도나 문화재청처럼 관련전공자 대상 필기시험으로 공무원신분 정규 연구인력을 충원해야함.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서는 전시 공사에 5백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박물관 시설은 보존환경을 고려하여 아주 천천히 건립해야 합니다.

유물을 포장할 때 신문지로 포장하지 않고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는 중성 한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온습도를 유지하고 화학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의 건물을 만들고 유물을 보관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수적임.

전액 시비로 하면 부담이 되니 특별법 등을 통해 국비를 조달해야 함.

사실 대구에 웬만한 문화인프라는 다 들어서있음.

예술회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오페라하우스, 시립미술관 등

단지 시립박물관이 없음. 이곳에 집중을 하면 예산문제는 크지 않다고 봄.

추진과정

현재 시청에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 부서 및 자문위원회 구성

〈서울역사박물관 개관지〉등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추진부서에 학예연구사가 충원되서 조직이 갖추어진 후 탄력.

1. 건립준비단구성 투융자심사 실시
2. 자문위원회 구성
3. 예산 교부가 실현되면 자문위원회에서 입지 선정
4. 건축공모 및 착공, 유물수집 및 타 시도에 흩어진 대구유물 대여준비
5. 건축 완공, 건립추진단 구성, 전시내용 구성 및 수장고시설 준비
6. 전시홍보물 제작 및 전시유물 구성, 유물 대여
7. 개관 및 교육, 조사팀 구성으로 조직구성 완비

제목	잘 안 보이고 충격 흡수 못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개선	지역	경기도
----	-----------------------------------	----	-----

도심 곳곳에서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 중 하나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도심 곳곳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많아서 거꾸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블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가 돼야 하고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허나 실제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드는 석재·철재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이거나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보행자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석재 블라드에 걸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야간의 경우에는 높이가 낮은 말뚝을 잘 보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산시의 1급 시각장애인이 석재 블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하여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는 ‘블라드 높이가 낮고 돌로 만들어져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안산시는 25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 법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블라드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석재 블라드는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고 높이가 낮은 블라드는 높여서 부딪히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지역에서 채택되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어르신들과 젊은이가 함께 하는 재능기부 나눔 만남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컴퓨터의 이용이나 스마트폰 등 사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첨단기기 사용에 관한 문화적인 혜택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공간이나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노마지지라고 해서 어른들의 지혜를 통해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갈수록 이분들의 재능을 함께 배우고 더불어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 주요내용

- 무엇을 : 어르신들과 젊은이가 함께 하는 일대일 재능기부 나눔 만남

어르신들이 지니고 계신 많은 재능을 젊은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가르치는 배움과 나눔의 장을 마련합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 방법 배우기, 인터넷 사용하기,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등입니다.

○ 어떻게 :

- 1) 우선 참가를 희망하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재능 나눔 신청을 받습니다.
- 2)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세가지 정도 기록을 합니다. (예 : 잘하는 것 - 서예, 십자수, 판소리 등 / 배우고 싶은 것 - 컴퓨터 사용법, 인터넷 메일 보내기, 스마트폰 문자보내기 등)
- 3)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세가지 정도 기록을 합니다.(예 : 잘하는 것 - 컴퓨터 사용법, 인터넷 메일 보내기, 스마트폰 문자보내기 등 / 배우고 싶은 것 - 서예, 십자수, 판소리 등)
- 4) 신청서를 다 받은 후, 주최측은 서로 매칭되는 당사자들에게 일대일 매칭을 합니다.
- 5) 배움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 1회, 한달간(총 4주)이며 시간은 서로 30분씩 총 1시간 내외입니다.
- 6)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음번 매칭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3달간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면 2기를 진행하며 혹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소요예산** : 공개적인 장소나 교육용 PC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이 제안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 **재원조달방안** : 공개적인 장소나 교육용 PC가 없을 경우, 장소나 장비를 기부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제목	초등생 등하교길 횡단보도 지킴이	지역	경기도
----	-------------------	----	-----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 어머니들이 매일 수신호로 아이들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횡단보도에는 있고 어느 횡단보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머니 두 분이서 횡단보도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보다 수다를 떠느라 놓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근처 모든 횡단보도에 지킴이를 세워주시고,

매일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동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 이 일을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나이드신 분들께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좋고 매일 아침 어머니들이 순번을 정해서 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을 테니 교육부 혹은 관할 교육기관에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합니다.

제목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남녀노소 안전지킴이 및 동네 안내소로 활용	지역	경기도
----	---	----	-----

동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남녀노소 안전지킴이 및 마을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동네에 퍼져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대체로 1층 요충지에 있으므로 경찰력과 보안업체의 협조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내 비상연락망과 긴급출동단추, 간단한 방범도구를 비치하여 학교폭력, 여성치안, 동네 시민 및 외지인 방범 및 안내 상담 같은 지원을 하며, 시에서도 그러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둔화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네트워크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경제 개념으로 도입되길 바랍니다!

본 제안자도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활동 중이며, 실현 타당성이 있는 공약이므로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리 설치	지역	경기도
----	-------------------------	----	-----

1. 수원시의 경우 인구수, 학생수, 학교수, 교직원 수 등에서 이미 울산광역시 수준을 넘어섰으며, 수원시 일반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등 4개의 구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외에 남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 3개의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89호, 2013.12.4. 일부개정)에 의하면 인구수 50만, 학생수 5만 이상 교육 지원청에는 2국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음.
4. 따라서, 기초(수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이나 광역(울산시) 교육자치단체와의 형평과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수령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수인할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수원교육지원청을 분리하여 추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음.
5. 소요재원 : 약 300억원 정도(기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요 비용 없음)
6.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목	환경에너지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역	울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 환경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등의 통합관리
- 나. 환경관련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전문적인 R&D 추진 등

☛ 조직관리

- 가. 기존 행정기관(부서)의 조직은 축소 운영
- 나. 공단에서 기존 행정기관(부서)의 기술인력 부분적 흡수

☛ 기대효과

- 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설 운영 가능
- 나. 환경시설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 절감 가능
- 다.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 라. 환경관련 에너지 생산과 수익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가능
- 마. 영속적인 시설 운영 기대 등

제목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지역	대전광역시
----	-----------------------------	----	-------

☛ 제안이유

현재 대전 중구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형태는 철물점에서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마트에서 음식물쓰레기배출스티커 구입, 스티커부착 후 배출, 월~금 상시수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번 음식물쓰레기 배출스티커를 구매하는 일이 번거롭고, 스티커만 붙이면 주중에 언제든 수거해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림으로써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겠더군요. 또한 실수로 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했을 경우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요내용

그래서 이러한 배출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면 합니다. 아래 방식은 작년엔 이사오기전 전주에서 시행되고 있던 방식인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해당가구의 고유식별태그가 내장된 칩을 부착시킵니다. 철물점이 아닌 동사무소나 구청등 공공기관 환경과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월수금이나 화목일로 지정된 날짜에만 배출하도록 하며 수거차량에 장착된 전자저울로 쓰레기배출량을 확인, 고유식별태그 가구확인,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매달 고지서형태로 납부 가능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다달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내가 얼마의 음식물쓰레기양을 배출했는지 데이터화할 수 있을 것이며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6년까지 이런 시스템을 차등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청주, 제주 등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면 시행착오 및 오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소요예산

RFID시스템구축, RFID음식물통구입, 전자수거장비 (대당 200~300만원 추정)구입
 약 30~4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0만명정도의 인구수를 가진 전주시의 초기발생비용 13억원 추정)

☛ 재원조달방안

민자유치 및 정부예산지원

제목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	지역	광주광역시
----	-------------------------	----	-------

요즘 사회에서 흡연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PC방, 음식점 등 공공장소를 막론하고 흡연자들은 눈치 볼 것 없이 흡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또한 흡연장면이 노출되고 말이지요.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유비쿼터스시대에 들어서고 삶의 여유가 넓어짐에 따라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국민들은 흡연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식점,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일체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흡연자들은 길거리에서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흡연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꾀초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흡연자들도 흡연을 눈치보며 해야 하니 불편하고, 비흡연자들도 여전히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위험하고, 꾀초같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려지니 길거리 환경도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약은 ‘각 거리마다 흡연부스 설치하기’ 입니다. 흡연부스가 설치된다면 흡연자들도 눈치볼 것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동시에 꾀초쓰레기 또한 부스안 쓰레기통에 자연스럽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흡연자들이 골목이나 구석진 곳에서 버리는 꾀초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잘못 버려진 꾀초는 곧 큰 화재로 번지기 일수입니다. 그러므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흡연부스설치는 매우 시기적절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스설치 하나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제안이유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불편사항

흡연자는 마음대로 흡연을 못하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길거리에는 꾀초들이 나뒹굴고 있어 환경을 위협한다.

☛ 주요내용

- 설치기한 : 각 번지 혹은 동마다 곳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는 각 구의 한 동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소요예산
 - 흡연실 마크 표시
 - 덕트환기구 커넥터, 덕트호스 설치
 - 알루미늄 판넬 뚜껑 설치
 - 반투명 깨지지 않는 창으로 내부 흡연모습을 가림

- 깨지지 않는 창 및 알루미늄샷시 슬라이드문으로 안전한 입구설치
- 코너쪽에 작은 선반을 설치하여 흡연시 물품을 올릴 수 있는 편의제공
- 벽체상단에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착하여 금연유도
- 가로공통 1400 × 세로공통 2100 크기 기준 110만원정도의 예산예산
- 흡연부스실 지붕에 길이 1m, 폭 50cm 짜리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고, 낮시간 동안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다. 이 전기는 흡연실 내부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밝힌다. (낮3~4시간 충전시 밤새도록 조명작동 가능) 비용 : 50만원예산

☛ **재원조달방안** : 민관 협업 통해 흡연부스 사용의 효율성 증대 및 각 기업의 흡연부스설치 모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투자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제목	공공기관 위치 안내시 시설물 규제 폐지	지역	강원도
-----------	------------------------------	-----------	------------

☛ **이유**

- 공공기관 건물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주어야 함
- 홍보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 건물에 공공기관이 있음을 표시하는 간판설치
 - 주변도로에 공공기관으로 가는 방향을 표시하는 방안
- 간판설치에도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
 - 건물 정면 간판 설치
 - 정면 외에 돌출간판만 설치
 - 간판 숫자 제한
- 이러한 규제 때문에 결국 시민만 불편함이 따르고 있음

☛ **주요내용**

-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간판 설치시 각종 규제보다는 고객편의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개선
- 2014년내 공공기관 건물 간판 설치시 존재한 각종 규제 폐지 또는 개선

☛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 각 기관의 자체 조달방안

제목	시민 자전거 대여시스템	지역	인천광역시
----	--------------	----	-------

❏ 목적 :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

❏ 설치장소 : 주요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소요장비 및 시설 : 자전거, 자전거 보관대(도난방지장치 부착), 무인결제시스템(교통카드, 스마트폰 결제시스템탑재)

❏ 운영방식

* 회원제(일정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 시간동안 이용한 후 초과시간 추가부담)

* 비회원제(1회 이용액 납부시 일정시간동안 이용한 후 초과시간 추가부담)

❏ 소요예산 : 12억원(자전거터미널20곳, 자전거430대)

※ 2008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시 자전거 대여 사업비용 참조

❏ 사업효과 :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시민 생활의 편리함 증진

❏ 재원조달방안

○ 기본 시설비 및 운영비 : 교통유발부담금(2013년도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168억900만원)

제목	자전거 도시 상주답게 자전거 도로 확충	지역	경상북도
----	-----------------------	----	------

자전거 도시로 유명하나 타지에서 이 도시에 정착한 사람으로써 자전거 도시라는 느낌을 받기 힘듭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없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것이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시답게 자전거 도로가 시내를 기준으로 갖추어 지면 좋겠습니다. 외곽과 강가를 중심으로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권인 시내 부근에는 인도만 있을 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지 않아 보행자와 겹쳐서 자전거를 몰거나 차도로 몰아야 하는 위험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 도시, 자전거 도시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시내, 거주지 인근에도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면 나름의 특색으로 관광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인프라로는 자전거 도시라고 내세우기에 미비하고 특색이 없습니다. 재원은 인도 블록 재정비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불필요한 홍보 재원을 절약하여 재원조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따라서 벚꽃은 심고 있지요. 특색없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잘 갖추고 상주의 상징인 감나무를 이쁘게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일단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 근방으로 갖추며 점차 시내 중심으로 도로를 넓혀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목	녹색교육 제안	지역	전라북도
----	---------	----	------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생활화 유도
-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환경체험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 토대 마련
- 환경교육 학생 동아리 활성화로 학생의 녹색성장 가치관 형성

☐ 2014 환경교육동아리 계획서

활동주제 1: 우리학교 환경오염 실태조사

활동주제 2: 환경교육(절수 및 절전교육)

활동주제 3: 환경보전실천운동교육(저탄소운동 및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주제 4: 봉사하는 학생상 정립

ㄱ. 환경봉사대 운영

ㄴ. 환경 봉사대 및 흙사랑(텃밭가꾸기)을 통한 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나눔실천

ㄷ. 환경관련 ucc, 포스터 경연대회

ㄹ. 모범학생의 교사 추천 봉사상 시상

활동주제 5: 환경보전시설 및 자연생태 학습장체험 및 보고서 작성

활동주제 6: 텃밭가꾸기를 통해 공동체적 정신과 나눔의 가치 함양

1. 환경교육동아리 활동 계획

가. 운영 주제 : 환경 교육을 통한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농사를 통한 공동체적 정신과 수확을 통한 나눔의 가치 함양

나. 목적 및 필요성

-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 노작을 통한 가치와 나눔,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 직접 생명을 키우고 가꾸는 일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다. 운영 방침

- 모든 활동은 교사의 철저한 계획과 지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운동화, 긴바지, 긴팔, 장갑, 모자 등)를(을) 착용하여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를 방지한다.
-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최소 한달 1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생활화를 유도한다.
- 환경보전시설 및 자연생태 학습장 체험(연 1회 이상)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체험서를 작성케 한다.
- 노동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적 체험을 하며 수익금은 불우이웃 또는 학교 장학금 등의 공익적인 일에 쓰도록 한다.
- 동아리 활동(환경사랑, 흙사랑)학생과 더불어 학급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우천시나 기타 기상악화 등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기타 모이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교사는 휴일로 정할 수 있다.
- 환경관련 ucc, 포스터 경연 대회(연1회 이상 실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담당교사와 더불어 교내에 모든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모범학생을 추천하여 시상(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기별로 각각 다른 농작물을 직접 파종하고 수확하며, 친환경 유기농 농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운영 내용

- 동아리 인원 : 1학년(15명), 2학년(15명), 3학년(15명) 교사(5명) 총 50명
- 주 활동 : 절수 및 절전교육,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밭 만들기, 씨뿌리기, 잡초 제거 및 수확, 봉사활동, 환경보전시설 및 자연생태 학습장 체험 및 보고서 작성 등의 환경 교육 및 보전활동
- 활동시간 : 점심시간, 창체 동아리 활동(월요일), 주말 등의 시간
- 활동장소 : 학교 텃밭 및 교내

마. 세부 계획- 운영 프로그램 : 연간 운영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법 등

차시	시기	활동 주제 및 내용	장소	비고
1-4	3월	· 동아리 조직 및 편성 · 환경오염 실태조사(학교, 우리고장) · 환경교육(절수 및 절전교육, 분리수거, 저탄소 운동 등) · 텃밭 만들기(돌 고르기, 고랑파기 등)	강당 텃밭	삽, 소시랑, 호미등
5-8	4월	· 씨 뿌리기(완두콩, 상추, 등)	텃밭	파종 활동
9-12	5월	· 환경관련 ucc, 포스터 경연대회 · 씨 뿌리기(고구마, 옥수수 등)	강당 텃밭	파종 활동
12-15	6월	· 환경보전시설 및 자연생태 학습장 체험 및 보고서 작성 · 잡초 제거 및 수확	텃밭	농사활동 및 판매
15-18	8월	· 잡초 제거 및 수확	텃밭	농사활동 및 판매
18-21	9월	· 배추, 무 파종	텃밭	파종 활동
22-25	10월	· 잡초 제거	텃밭	일상 농사활동
25-28	11월	· 배추, 무, 고구마 수확 및 봉사활동	텃밭	봉사활동 연계
29-32	12월	· 수익금 연탄배달 및 졸업생 교복 및 헌옷 기부 · 텃밭 뒷 정리 및 동아리 활동 평가	텃밭	가정방문 평가 및 설문지 작성

바. 재정계획

- 총 소요예산 : 5,000,000(오백만원)
- 세부 예산내역 : 합 계 5,000,000(오백만원)
- 활동별
 - 교재개발 1,000,000 : 5,000원×200권 (학습지직접제작)
 - 학습장비 구입 200,000 : 필기구(볼펜, ucc, 포스터관련용품)
 - 농기구 600,000 : 삽, 소시랑, 호미 등

- 운영경비 600,000 : 씨앗(씨앗, 모종, 장화, 면장갑 등)
- 기타(간식) 600,000 : 3,000원×50명×4회
- ucc, 포스터시상 300,000 : 50,000원(최우수2) 10,000원(우수20명)
- 협의회 300,000 : 5000원×60명(학생, 교사포함)
- 환경보전시설탐방 1,000,000 : 버스비(500,000원), 버스 안 탈시 기타교통수단 이용, 기타(200,000원, 입장권, 환경앨범제작등)
- 수당 600,000 : 강사비(환경전문가, 농사전문가 초빙 4회이상) 150,000×4 트랙터 지원, 차량유지비(우천시 아이들 버스, 택시 혹은 선생님 차량 안전귀가)강사료를 지급 하되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 분을 모집
- 예비 200,000

2. 기대 효과

- 생명을 직접 키우면서 소중함과 가치를 배울 수 있다.
- 흙과 자연을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다.
- 환경교육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배우고 익혀 학생들의 녹색성장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유기농 농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다.
-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시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다.
-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환경체험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제목	쓰레기 천지인 여의나루를 깨끗하고 쾌적한 여의나루로!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 여름철 피서지가 되는 여의나루. 선선한 바람과 열대야 속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버리고 갑니다. 풀이 말이 아닙니다. 청소부들이 치운다 해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보기 흉하답니다. 이제 그런 여의나루는 보기 싫어 이 공약을 제안합니다.

🗨️ **무엇을** : 여의나루에 쓰레기 자판기를 설치합니다.

🗨️ **어떻게** : 쓰레기 자판기란 쓰레기를 일정량 투여했을 때, 자판기에서 돈으로 환급되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 보았을 만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 **언제까지** : 이번 여름이 오기 전까지 곳곳에 설치합니다.
- ☛ **소요예산** : 300 ~ 500 (쓰레기 투여량 가격은 정부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 ☛ **재원조달방안** : 이 정책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환급시 지불되는 비용만 지불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에서 빠지도록 합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시민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정책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시청, 행정구청 등의 추진사업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실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제안내용

도로, 주차, 안전 등 시민생활을 위한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그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마련으로 소통하는 행정구현

- 사업전 주민 의견반영은 공청회,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됨
- 사업 후에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이용(모임은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므로)하여, 해당 사업목적이 제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사업성과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다른 사업의 모범사례로 활용할 것
- 예를 들면, 통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에 설치된 전봇대, 가로수, 변압기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지역별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 제거, 매립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청의 담당자가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일일이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됨
- 이러한 열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어떤 정책공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며 일반시민 입장에서 큰 사업보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권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개선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참여, 주민만족도에 의한 사업성과 판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건강과 열정이 넘치는 동구 건설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답답했습니다. 동구청 청사를 새로 크게 지었고 크게 지은 만큼 동구 주민을 위한 건강·교육·복지를 위한 뭔가가 있겠지 하였고 크게 반기고 했는데 그런 시설은 없고 가까이하기엔 너무 부족했던거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 제안내용

구청에서 주민들이 값싸게 노년층을 위한 재활치료나 수영장, 헬스장 등을 만들어 주시고 하고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컴퓨터·어학·요리 등등)도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동구청 새로 지었던 그런 의지만 있다면 살기 좋은 동구, 살고 싶은 동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모든 음식점은 위생적으로 탈바꿈되어야 하고 검사 및 지원
2. 동구는 산으로 연결되어 부산 어느 지역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포동, 서면, 주례 등 등 전망도 좋아서 구경하기 좋은데 산책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내려올지 구분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다양한 테마 전망대나 주위에 여러 썸지공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 하여야 함.
3.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주민들과 구청장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맛집을 찾아서 선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4계절이 있듯이 4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동구로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교육의 미래를 모두가 책임지고 개선하자!	지역	경기도
----	------------------------	----	-----

현재의 학생들은 자유와 당당함으로 뭉쳐 있는 것 같다. 1자녀, 2자녀로 인해 모두가 귀한 자식이 되고 민주주의에 의해 자기 할 말은 다 해야 되는 이기주의가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인 것 같아 가해자, 피해자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 지식을 쌓고 공동체 생활을 습득하기 위해 학교라는 곳으로 와야 하는데 현재의 학교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8-12시간 정도 위탁 받아 살피는 곳으로 전락해 있을 뿐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고, 내 자식이 손해를 보면 학교에 항의하고, 왕따나 폭력을 당하면 피해자는 울며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에 새로운 교육이 살아났으면 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교실의 학생들도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지·덕·체를 쌓아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 교육이 펼쳐지고 학생들의 억울한 사정이 생기지 않기 위해 교육부가 체벌이라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중·고등학교 내의 남녀 교제도 선을 정해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 힘이 없는 교사는 그냥 보고도 지나치는(나 아니면 그만, 누군가 지도하겠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들의 교육이 더 필요한 만큼 학생·부모가 같이 교육을 받아 인성이 갖추어졌으면 한다.

강조한다면 교육의 방법을 개선시켰으면 한다.

1. 체벌의 정도를 정하자(수업 방해, 교내 문란, 폭력)
2.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100세 시대를 맞이한 효 사상이 살아야겠다.
3. 교복의 미적 감각이 아닌 실용성과 학생교복다운 복장 강조를 위해 대중매체의 전달을 자제하자 - 짧고 몸에 붙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전체적인 학생들의 미를 알려주기
4. 고등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교과서·참고서 양론에 대해 1가지만 정했으면 한다. - 인문계 고2가 되면 교과서는 보지도 않고 교사 자체 인쇄물이나 참고서, 문제집 사용에 의해 만 오육천원의 금액이 그냥 책꽂이에 있다.
5.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전문가들이 자주 살필 수 있도록 학생들의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명상시간, 미술시간, 체육시간 등을 늘렸으면 한다.

말로만 백년대계 교육 사업 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학교가 정말 하나 되어 교육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해 주었으면 한다.

참된 인성에서 배려와 이해, 관용이 나와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아 주변의 이웃을 살피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목	초중고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통학셔틀버스 도입	지역	충청북도
----	-----------------------------	----	------

☐ 제안이유

- 충북 단양군의 경우, 적은 인구와 넓은 지역 및 외곽 벽지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학생(특히, 고등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

☐ 주요내용

- 단양군 차원의 전세 통학셔틀버스를 코스별(예: 단양읍 - 가곡, 어상천, 영춘 방면 1코스,

단양읍 - 단성, 대강 방면 1코스, 단양읍 - 매포, 적성 방면 1코스 등, 총 3개 권역 설정)로 등하교 시간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원거리 통학 및 환승에 따른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학생 대중교통비 수준에서 버스요금을 정액으로 결정하고, 환승 및 거리에 따른 추가 버스요금은 지불하지 않음. 학생 입장에서는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등 자신에 맞는 수단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버스요금 수입을 재원으로 전세버스 계약에 활용할 수 있음

제목	지역도서관 도서 열람시간 연장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	----	---------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설립한 도서관들이 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전자책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도서를 직접 보는 즐거움은 전자책과는 사뭇 다르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을 해서 도서관에 가려면 시간이 저녁 8시 이후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고, 혹 아이들과 같이 가려해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현 실정이다.

보통 저녁 6시에는 도서열람실은 문을 닫는데 이러면 도서문화 활성화는 둘째치고라도, 직장인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에는 문제가 있다. 아이들과 저녁 늦게라도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도서를 대여할 수 있고 같이 책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규근무시간까지는 그렇다 치고, 밤 10시까지 만이라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라도 열람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

도서대여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것도 아니고, 노년층에게도 좋은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혜택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안해봅니다.

소요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재원조달이 어렵다면,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이므로 야간에는 권당 100원 또는 500원 이내의 대여료를 받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도서관 / 청소년 센터 추가 증설	지역	울산광역시
----	--------------------	----	-------

☛ 제안 이유

현재 각 시·구마다 도서관이 1개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에 비해서는 도서관 / 청소년 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 열람실이 부족하고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없어서 사설도서관을 이용하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청소년 비행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음악 악기 연주, 책도 읽을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센터 건립 부탁드립니다.

☛ 소요 예산

- 건축비 : 약 10억원 소요 예정
- 인건비 : 년 1 억원
- 운영비 : 년 1 억원

☛ 재원 조달방안

- 복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했으면 합니다.
- 복합적인 문화센터 건립 복권(더욱더 많이 구입할 것 같습니다.)

제목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역	경상남도
----	--------------	----	------

☛ 제안이유

현재 양산에서는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북구, 금정구 등 인근지역으로 전학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인근지역인 부산, 김해에 비하여 지역명문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학교가 J고등학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명문학교가 꼭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 주요내용

지역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산 인근 지역에서까지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명문고는 꼭 공부만 잘하는 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겸비한 특성화된 학교 또한 지역의 명문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학교, 선생님, 외부의 관심 및 지원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의 자기노력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몇명 보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층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출발을 하도록 학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지역적 특성, 대외적 경쟁력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있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에 여건에 맞는 우수한 선생님의 영입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운영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학교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그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관심 및 지원입니다. 외부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현재 양산지역의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등학교를 디자인, 컴퓨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 및 지역의 명문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을 상당수 해결해주어 지역명문고 조성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주요내용

- 생활체육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있어 현대인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체육 시설 확충 및 체육활동 권장을 통해 국민건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마포구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환경적인 기반시설(내천, 한강시민공원, 각종 도보길 등)이 매우 발달하여 있지만, 구민·주민 등의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시설(실내운동시설, 사설운동시설)은 그 구비가 미진한 편이며, 또한 구청을 중심으로 펼치는 체육활동 및 운동대회는 그 횟수가 제한적임.
- 건전한 친목도모를 위한 실내외 생활체육 시설 운영 및 이를 통한 스포츠 대회 운영을 지원한다면, 타 지역구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 소요

- 현재 구청 소요 건물 내 활용가능한 면적 확보(실내공간 위주) - 예산 無
- 야외 체육활동 : 주거단지 내 운동시설 개방 및 운영비용 지원 - 저예산 소요
-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 분기 1회 각종 스포츠 상금 및 운영비 - 저예산

☛ 예산 확보 방안

- 미사용 체육시설 공간 확보로 필요 예산 절감
- 스포츠 대회 개최시 참가비 부여

제목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역	전라북도
----	------------	----	------

☛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약을 제안합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철학으로 자율, 혁신, 창의 미래교육으로 최상의 공교육을 완성하는 학교 만들기과 배움과 돌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가 아이들 걱정 없이 믿고 맡기는 학교 만들기, 참여 소통 협력이 보장된 학교 만들기 공약을 제안합니다.

도민과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진행형으로 모든 분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소개해 아이들 교육이 완성되어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정읍시에 초·중·고 20여개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각 담당 선생님을 선발해서 위원회결성 1년내 전 학교기관 도합해서 공식적으로 2년후에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도모아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구요. 예산은 초기1년은 학교당 1천만원 20여개 학교 2억원 예산으로 잡구 재원조달방법은 각 학교에서 20% 나머지80%는 시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잠깐하고 그만두는 일은 절대 없도록 철저히 준비단계를 거치고 최대한 선생님 둘과 각 의원님 둘과 조율해서 다시 한번 개편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틀을 만들어 내 고장 정읍시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역	충청북도
----	-------------------------	----	------

충청북도의 10대 정책어젠다 중에서 충북 발전현안 해결 및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수립 추진에 관하여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청주시 상당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제안 이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은 거의 전면 철거를 추진하였고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자칫 지역 불균형을 확대하고 공동체 붕괴, 주민들간의 커뮤니티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의 것을 살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도로개선, 통학로개선 등 다양한 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저층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범죄를 예방하고 지저분한 가로환경을 개선,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주차 문제 해결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청원군과 통합하였으며 도시 외곽에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 문제, 재정적 투자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 하는 노후된 주거단지도 있어 향후 지역간에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으며, 쓰레기 문제, 공공 및 복지 서비스의 부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유발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울량동은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교적 인접한 지역인 내덕동, 우암동은 낙후된 저층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후된 주거시설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고가도로 주변의 주거단지(면적: 약 82,271㎡)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 1) 면적 : 약82,271㎡

2) 추진 계획

1단계(1~2개월)

- 사업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 사업 계획 확정

2단계(1~2개월)

- 사업계획서 작성, 건축 설계 및 시설을 위한 준비

3단계(1~3개월)

-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사업운영 실무단 구성, 프로그램 운영 절차

4단계(1~5개월)

-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 내용 심의 및 확정, 준공 및 사업 개시

4단계로 추진 계획을 세워왔으며 총 1년 2개월 정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소요 예산(단위:백만원)

1. 마을회관 신축(커뮤니티센터)

- 면적: 250m², 층수: 3
- 사업비: 약 2,000

2. 보도포장, 보행친화적포장, 특화가로, 거주자우선주차표시

- 사업비: 약 800

3. 공동마당, 소공원, 오픈스페이스 조성

- 사업비: 약 2,000

4.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

- 사업비: 약 900

5. CCTV, 가로등, 방범시설 설치

- 사업비: 약 600

주거단지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해보았으며 각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6,300(단위: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재원조달방안

재생사업은 주민, 전문가, 행정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라에서 청주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이 채택될 경우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는 행정 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싹으로 비유했을 때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것은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새싹이 자라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 지역에 커뮤니티센터

가 설립되면 주민들의 주도적으로 바자회, 재능기부, 북카페, 지역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암동이 청주대 등 여러 학교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이점을 이용하여 지역 내 독서실을 만들고 보다 저렴한 이용금액으로 주민들이 운영한다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재생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여 계획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위원회, 전문가, 공무원 모두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발적인 주민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 재생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어 주거단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불균형을 해결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충청북도의 발전현안 해결 및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골목길 이중주차 문제 해결 방안	지역	대전광역시
----	-------------------	----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가구 당 자가용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여파로 각 가정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들을 주차해 둘 공간이 태부족하여 중구난방 식으로 이 곳 저 곳 골목길 등에다 마구 이중주차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소방도로마저 미 확보되어 만일의 주택가 화재 사고 시에는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 세부내용

- 자가용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골목길 주차행위를 무조건 단속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골목길 이중주차 행위만큼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중주차의 경우, 어떤 차량이 뒤늦게 이중 주차를 시도한 것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골목길의 지정된 한쪽에다만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구획선 도색료는 국가재정비용에서 지출) 그렇게 해서 먼저 그 구획선 안에 주차를 한 차에게는 벌금을 물리지 말고 구획선의 반대편 쪽에다 이중주차를 해 둔 차량에게만 엄격하고도 단호하게 벌금을 물리자는 겁니다.

기대효과

- 복잡한 골목길에서의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됨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자의 통행 안정성 역시도 한 걸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목	방법 취약 장소에 방법카메라 설치	지역	인천광역시
----	--------------------	----	-------

중구에는 을목동과 경동을 비롯해 방법에 취약한 아직 발전이 더딘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방법카메라를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동을 예로 들자면, 다세대 주택 작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촌이라 할만큼 빌라가 빼곡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한 빌라와 빌라 사이는 간격이 매우 좁은 곳이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아야 더 살기 좋고 사생활침해도 덜한데 이런 곳이 많다는게 참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건 이런 골목 사이로 좀도둑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는 동네 분이 새로 산 자전거도 도둑맞았고, 어떤 분은 반 지하에 살면서 창문을 뜯긴 채 도둑을 맞았는데, 저금통의 돈부터 이것저것 가지고 갔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빌라들과 빌라 사이 골목골목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보기 흉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어둠이 도사리는 곳에 방법카메라를 설치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산으로 지역을 위해 꼭 한 번 지원하겠습니다.

제목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	지역	대전광역시
----	----------------------	----	-------

현황(실태) 및 문제점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현저히 낮은 관계로 인해서 과학기술대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첫째, 과학기술분야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공계보다는 문과계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동인이 바로 그런 점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지요.

둘째, 과학기술 발견인과 발명인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는 사회풍토조성에 앞장 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하지요. 과학기술 발견인과 발명인을 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냉대하는 현실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연예인이나 판검사와 같은 비 과학기술계 쪽 인사들이 더 환영을 받는 과도된 현실을 개선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해외로 나가있는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과학기술 풍토조성에 앞장 서야 합니다. 국내의 유능한 과학기술인력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 처우의 부실함과 연구시설의 낙후성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단지, 애국심에만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유능한 과학기술인력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고 연구시설을 보완만 해 준다면 굳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 달라고 호소를 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기대효과

위에 열거된 세 가지 개선책만 충실히 시행해 나갈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대중화가 보다 더 높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도봉구 발전계획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 도봉구에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 확충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들에게 선택적인 기회를 부여

☐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타 구에 비해 미비한복지시설에 추가건립

☐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 우이~ 방학 경전철 연장선 서울시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기착공

❖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조정

- 1단계 : 층수(5층 이하) 폐지
- 2단계 : 도봉로 변과 용도지역 세분화를 구분하여 차등 완화
 - 도봉로 변 전면부 : 10층 40m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적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7층 28m 이하

❖ 종합병원 또는 복합 상업시설 등 유치

- 유희화되어 있는 필지를 상업시설 변경하여 병원 및 문화, 레저시설을 갖춘 상업시설로 개발

❖ 주민공원의 조성

- 방치되어 있는 도심공원을 어린이공원 또는 주민휴게공원으로 조성

제목	모든 계층에 교육, 문화, 복지 혜택 부여	지역	전라북도
----	-------------------------	----	------

얼마전 어린이 뮤지컬을 보면서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앞좌석에 앉아서 공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같이 공연을 보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그룹이 주관하는 공연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지방에서도 대그룹이 몇몇 있지만 자회사, 회사 직원에게만 특별한 혜택만 있을 뿐.. 소외 계층, 저소득,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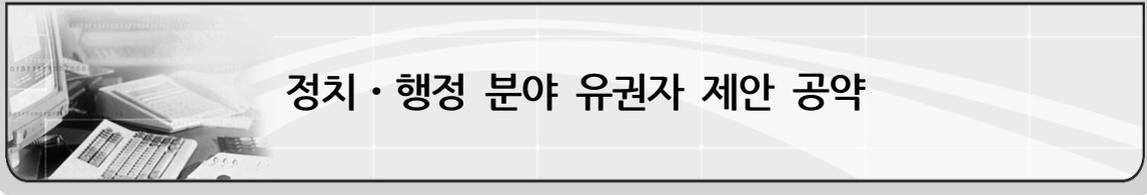
대그룹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은 그만큼의 벌이로 문화생활도 즐기지만 그런 공연이 있는 줄도 모르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그룹뿐만 아닌 공연, 전시, 뮤지컬 등 문화시설을 하는 기획사에서는 티켓판매에 열성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에 알아보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주민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서 주말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버스가 준비된다거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연, 이벤트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정치·행정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지역	강원도
----	----------------	----	-----

- 스페인의 쇠락한 공업도시 빌바오는 대표적인 분쟁지역이었으나, 세계적인 건축가 구겐하임이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인해 한해에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그 자체를 관람하기 위하여 한해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다.
- 영화 ‘강원도의 힘’이 제작될 정도로 강원도는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한 휴양지이며, 2018년 세계인이 모이는 평창올림픽 개최지이다.
- 양양 국제공항과 속초항(국제여객선-일본 문화 관광객 유치),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하는 랜드마크 미술관을 유치하여 국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증대, 미래 문화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추진방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외국계 자본 유치를 통한 택지 개발사업을 부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며, 강원도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되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
 - * 첨언 : 한해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상도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

제목	제증명서 인터넷 발급 확대	지역	충청북도
----	----------------	----	------

현황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등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확인서 등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제점

주민등록지 외의 타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지까지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책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개인인증 절차의 보안수준을 강화해 인터넷 발급가능한 증명서를 확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

주민 개개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공무원의 행정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해 가능한 제안이므로 소요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가능하면 올해 내 실시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증명서를 자유롭게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택시요금 표시판을 상단에 이동 설치	지역	인천광역시
----	---------------------	----	-------

제안 이유

현행 택시요금 표시판은 운전석 옆 하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뒷좌석에 앉을 경우 택시요금 표시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개를 잔뜩 돌려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불편합니다. 출발할 당시 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가는 도중 요금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몸을 비틀어야 하니 불편하기도 하고 택시운전사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별로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출발할 당시 요금 표시판이 안보여 그냥 목적지까지 갔는데 평소시에는 7,000원정도 나왔던 요금이 교통이 그리 막힌 것도 아닌데 10,000원이 나온겁니다. 운전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요금이 나올 수 있느냐고 따졌더니 요금표에 그렇게 나왔는데 뭘 따지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출근길이라 바빠서 그냥 오긴 했지만 분명히 요금표를 미리 눌러 놓고 운행하다가 저를 태운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금 표시판이 상단에 붙어 있으면 뒷 좌석에서도 바로 보이니까 그런 실수와 불편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택시요금 표시판을 택시운전기사 옆 상단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여 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운전기사의 악의 또는 실수에 의한 과당요금 수령행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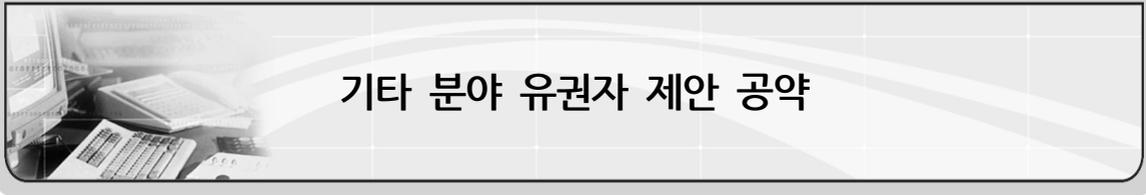
☐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기존 택시를 모두 교체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면 금년 새로 출고되는 택시부터 적용하면 소요 예산은 줄일 수 있을 것임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기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지역	대전광역시
----	-------------------------	----	-------

대전이 다른 도시보다 나은 점을 찾아보던 중, 언젠가 들었던 ‘환경상 재해가 적어서 좋은 곳’이라고 하시던 소방 관련 공무원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재해가 적다면, 사람으로 인한 재해를 줄인다면 [대]단히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백색 등으로 바꾸고, 골목마다 방범용 CCTV를 증설하여 꾸준한 순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마다 신호에 따라 연동되는 CCTV를 설치하면 신호 및 정지선 위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과속이나 그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내 평균 속도이상으로 가속할 수 없도록 버스를 개조하거나, 제도적으로 그런 버스만 시내버스로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대전시 안에서만 운영하는 택시가 생긴다면 택시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경우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어디서 발생해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종합병원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길거리 흡연이나 금연구역의 흡연,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차 등은 빈번하지만 공권력으로 일일이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하기도 어렵고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이상 같은 곳에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위치정보가 지도와 연동되어 다른 사람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추가적으로 신고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적되는 경우 공권력이 출동해서 해결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재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될 것 입니다. 시내버스의 개조, CCTV의 증설과 관리, 가로등 전구의 교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관리 등 무척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고용과 자금의 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대전에 위치한 사업장만 참여하게 할 경우, 상당한 자금이 온전히 대전안에서 순환하게 됨에 따라 경기 상승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하지만, 대전시 차원의 움직임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농작물 및 농촌 자연 경관을 활용한 농촌공원 조성	지역	전라남도
----	-----------------------------	----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의 개발 방향이 자연환경과 자연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 하게 개발되고 있음
-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 휴양 공간의 조성 필요성 대두

제안

1. 제안명 : 농작물 및 농촌 자연 경관을 활용한 농촌공원 조성

2. 목 적

- 농업인, 농촌여성, 아동 등의 건강 증진, 체력 만들기, 휴양 오락의 활동을 통해서, 상호 연대 의식을 높여 밝고 풍부한 농촌 건설
- 주민에게 건강 증진과 휴식의 장소를 제공해, 지역 연대감의 양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꾀하기 위해, 농촌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농촌 공원 조성
- 아이나 젊은이들이 꿈이 있는 농업·농촌에 접해 또 자연 환경의 훌륭함, 중요함을 배워, 21 세기의 담당자로서 새로운 농업을 개척해 갈수 있도록 함
- 도시의 주민이나 소비자에게 농업·농촌 그리고 자연의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농촌·농업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게 함

3. 주요내용

- 지역 주민과 자연과의 만남의 장소, 도시 주민과의 제휴 교류의 장소를 만들어, 이것을 활용해 농촌의 활성화에 연결
- 농촌 경관이 뛰어나고 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택하여 농촌 공원 조성
- 위 치 : 다락논(계단논), 다랑치논 등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옛날 우리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논, 하천, 연못 등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 추천)
-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개발 및 보존대책 필요

-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농촌과 자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
 - 기존 논밭을 그대로 활용한(기존 경작자 그대로 활용) 농작물 공원
 - 공원부지가 선정되면 어린이 놀이터, 농작물 식재, 수확 등의 체험장 등 조성, 논두렁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등
 - 전기줄 지하 매설등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
 - 부지내에서는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계절에 맞추어 농작물이 재배되어 도시민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벼, 보리, 밀, 콩, 조, 귀리, 수수, 감자, 고구마)
 - 화장실 등은 자연 순환형 생태 화장실로 설치
 - 보행자 산책로 정비, 농로나 수로를 경관에 맞게 개수·정비, 안전을 위한 설비 마련
4. 추진(관리등 유지)체계
- 공원안 부지내 농작물 재배는 기존 경작자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게 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참여 농가에게는 농작물 소득 차액 보상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제목	애니메이션 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올해 전문대 미술계열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약제안이라는 좋은 공모가 있어 용기 내어 몇자 글을 남겨볼까 합니다. 양식에 맞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적은 것이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술계열이라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계열은 애니메이션 계열입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은 것은 예술분야, 특히나 애니메이션이나 기타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부 분야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적어도 30% 정도는 인상 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서 30%나 인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상영한 Frozen(한국제목 '겨울왕국') 을 보셨는지요? 언론에도 언급 될 정도로 애니메이션의 파급력은 굉장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보다도 흥행이 정말 잘 되었고, 또 퀄리티 또한 남달랐습니다. 애니메이션하면 손 꼽는 월트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 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퀄리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컴퓨터와 사람 몇 명 가지고 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애니메이션 작업은, 특히나 3D애니메이션의 분야는 인력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캐릭터 하나가 걸음 '한 번'을 내딛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선 수

만가지 이상의 vertex(점)가 필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camera 촬영은 필수고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3D 모델링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 캐릭터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이걸 몇 날 며칠을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일일이 다 작업해줘야 합니다. 많이 힘들죠.

디즈니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자본도 굉장하고, 수준급 인력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급 인력들이 그냥 무보수로 일하는 건 아니겠죠? 자신의 능력치에 맞는 정당한 대우와 페이가 지급되기에 그 수 많은 인력들을 채우고 인솔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디즈니의 이야기를 꺼낸 건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고 싶어서 언급드렸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디즈니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흥행을 거둔 애니메이션은 꽤나 많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이나. ‘돼지의 왕’ 이나. 그 외 tv시리즈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과연 어떤 회사에 만들어 지는 걸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소규모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시작됩니다. 스튜디오라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정말 너무 할 정도로 별 거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제가 잠깐 몸 담았던 스튜디오는, 사무실을 임대해 하나 빌려서, 그 작은 사무실에 직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작업을 합니다. 보통의 스튜디오는 직원이 더 많지만, 여긴 정말 소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당시 월급 50을 불렀습니다. 50이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실꺼라 믿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을 받고 일을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최저 시급이 이제 5,210원인 시대에, 점심시간 빼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50만원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최저시급에 맞춰 주 5일에 7시간 근무, 4주를 일한다고 했을 때 받는 비용은 총 729,400원이 나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시나요? 2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사실 50만원은 정말 많이 부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곳은 더 적게 부르는 곳도 많고, 무엇보다 애니메이션 파트마다 다른 금액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분들은 일하고 계세요. 왜 일까요? 이걸 사람들은 ‘열정페이’ 라고 부르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거에 만족하고, 돈에는 딱히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신경을 안쓰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상 너무 열악한 이 업계에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좀 더 나은 애니메이션, 일본보다 더 나은 것,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서, 정작 이쪽 업계사람들을 피 말리는 정책들만 하나하나씩 내세우고, 통과 되더라고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처음 일하게 되는 신입들이 얼마나 받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지원을 해줘도 못하냐?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의 사회의 반응 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리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정말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받아도 참고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이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일본보다 더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도 현실에서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적어도 먹고 살 생활비만큼은 쥐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기보다, 그 회사의 윗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왔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당하게 지불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지급 제도가 계속 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얼마나 효과가 미칠지는 알 수 없습디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미래의 디즈니 같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나오길 바란다면, 지원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좀더 나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인력을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안내용

예술계열(애니메이션)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지금보다 약 30%정도 인상해주세요.

제목	각 지자체의 의안과 회의록을 통합하여 지자체의안포털 구축	지역	서울특별시
----	---------------------------------	----	-------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청장, 의원, 시민들이 발의한 의안과 청원을 시, 구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비록 소속은 각 지자체장하에 있지만, 별도 사업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직이 의회에서 관리하는 곳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등에 예산 및 인력이 취약하고, 대부분 외주형태로 운영하였기에, 어느 곳보다 개인정보가 많은 의회 정보에 대한 취약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 구의회에서 출자 또는 파견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정보 중에서 의안과 회의록을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하면, 일단 시스템 보안관련 장비 등의 예산확보가 용이하고(각 지자체별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입하기 보다는 한 곳에 시스템을 통합 보안관리가 효율적과 백업등의 장애대처가 신속할 수 있음) 전산 전문 인력 4~5명을 파견형태로 배치하면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산은 현재 각 지자체별 의회 정보화 유지보수 인력을 활용하고, 추가 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일부 부담하거나, 서울시가 장소와 장비 임대쪽을 인건비 등을 지차제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면 예산추가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백업도 개별 백업보다는 일괄 백업형태로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은 파견된 전산직원이, 그리고 자료입력 등은 각각 의회의 현재 자료 입력담당자(의회업무담당자)가 현재와 같이 입력하여 업무를 분배하면, 전산업무로 인해 발행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측면의 대처와 동시에 안전한 시민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정보를 통한 체계적인 백업 등을 통해 의회기록물 통합관리 센터로서 그 활용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회업무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관련 정보화 업무 등 시기적절하게 정보화체계를 구청단위 계획에서 통합 계획 수립 및 진행으로 체계화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제목	대전시의 발전과 전국적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	지역	대전광역시
----	-----------------------------	----	-------

대전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평소에 생각하였던 몇몇 사항들을 제안해 봅니다.

☛ 대전에 바라는 부분 (공약?)

○ 대전 알리기 (Application)

현재 몇몇 학교들을 보면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앱창작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활용하여 대전시와 관련하여 수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수강하는 교육을 통해 대전시를 알리고 좋은 장소, 맛 집 등 많은 앱을 개발하여 널리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앱창작센터 예산으로 주관하며, 대전시에는 우수 앱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입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학교 앱창작센터의 참여율도 높아지고(취업이 어려운 시대니), 대전 발전에 이바지도 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친환경도시 대전의 이미지 확립(타슈 활용)

현재 타슈라는 임대 자전거가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는 없으며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타슈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대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중 하루를 자전거 출근하는 날로 지정하여 타슈를 더욱 활용하고, 점점 그것을 확대하여 각 회사에도 MOU(?)를 체결하여 타슈(또는 개인 자전거) 출근을 유도하여, 친환경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더욱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일주일중 하루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퇴근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회사를 요일로 나누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 지정하여(회사별)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용도 및 기여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독거노인 및 어려운 가정 돌보기 캠페인

현재 대전시에는 수많은 독거노인과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거노인과 고아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각종, 고등학교들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소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은 봉사활동 할 장소를 찾느라 헤매지 않고, 바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좋고 독거노인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현재 대부분 학교들 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입니다). 이 부분에 인원이 많이 집중된다면 대전시 혹은 각 구청으로 하여금 봉사활동 담당 직원을 두어 학생들을 통해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시키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청소 인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서 좋고, 학생의 입장에서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는 선진국 시민의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흡연장소 확대

지금은 웰빙 시대입니다. 그만큼 건강을 중요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흡연 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왜 흡연장소는 적는데 왜 단속만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비흡연자 이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생각해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대전시에서도 많은 곳에 흡연 장소를 설치해주시고, 그 곳을 벗어난 곳에서 흡연은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비 흡연자로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니 참으로 힘드네요).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 그러나 매년 보는 것처럼,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생업의 문제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뽑고 싶은 후보자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투표에 이러한 점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반대표 도입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당선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존중해 반대표(도장)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투표장에는 두 가지의 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투표의 기회는 한 번이며 (후보를 뽑거나 특정 후보에게 반대를 주던) 자신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아서 투표를 종료 하든지 아니면 뽑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을 땐 투표 장소에 있는 빨간 인주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 선관위에서는 투표장에 다른 도장과 다른 색의 인주를 준비해 두어야겠지요. 하나는 뽑고 싶은 사람을 위한 도장과 인주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싶을 때 필요한 다른 색의 인주와 도장(반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들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당선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구요. 기준은 받은 지지표와 반대표를 빼서 나온 것이 최종 받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투표율을 올리고자 평소에 생각하던 작은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친환경 도시의 대전과 민주주의의 상징 투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늘 응원합니다.

제목	교통안전관련 공약	지역	전라북도
----	-----------	----	------

농, 어업이 위주인 고장인지라 교통에 있어서 트랙터, 경운기, 자동차가 뒤섞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가 많은 시골길 골목도 많고.... 반사경이 필요해요. 반사경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반사경도 관리가 소홀해서 사고난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나고 있고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공약이 아니더라도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군청이전을 통한 장흥읍 중심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전라남도
----	-------------------------------------	----	------

현실태

장흥읍의 중심상권인 중앙로(장흥군청에서 장흥시외버스터미널구간으로서 약 1킬로미터)는 인도가 없는 편도1차선으로 불법주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임. 특히 최근에는 한우판매의 활성화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토요일시장에 비해 상권이 침체함.

해결방안

장흥군청을 이전할 경우 장흥군청 부지에 친환경적인 소규모공원과 200여대의 주차시설이 가능함. 이를 통해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외지인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특구형태로 만들어 토요일시장과 함께 장흥읍발전의 양대축으로 발전시킴.

이전예정장소

현재의 장흥중학교와 장흥여중학교를 장흥중학교에 편입하고 장흥여중자리에 장흥군청을 이전함. 각 중학교는 학년별 3~4학급정도로 통합하더라도 현재의 장흥중학교 시설로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함. 중학교 통합으로 절약된 예산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면 교육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음.

소요예산

장흥여중학교 시설을 군청업무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소요가 많지 않음. 신축할 경우 2014년도에 이전한 기존 장흥교도소 부지를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협조사항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지역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제목	농촌지역 교육 및 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	전라북도
----	---------------------	----	------

제가 작년에 김제시에 위치한 덕암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갔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7년 전보다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더군요. 아마도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김제시 대부분은 농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대로라면 갈수록 고 연령층만이 김제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순서대로 나열 해 보면

1.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김제를 교통의 요지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주나 익산보다 김제가 집값이 월등히 싸지만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집 값싼거 하나로는 굳이 전주에 살던 사람이 김제로 이사 올 만큼 큰 이점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제를 중심으로 전주, 익산, 부안, 군산, 정읍, 신태인을 가장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루트를 김제로 거점을 잡아 도로를 뚫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통편도 잘 돼 있고 교통비가 좀 저렴하다면 김제보다 더 작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김제로 많이 이사를 오지 않을까 싶어요.
2. 인구수를 늘리려면 아이들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일 때문에 가장이 타 지역으로 가야 한다면 보통은 그 집의 가장만 이사를 갑니다. 하지만 아이의 학교 때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더군요. 아이를 위해 부모들은 이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타 지역과 다른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 자체에서 시범학교를(초등학교)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각 학급에 15명 정도의 학생만을 운영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일반적 교육과정을 하루 네 시간을 듣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선택적 과목(일본어나 중국어, 미술, 과학실험,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투입)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수업은 반드시 전교생 모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과 후 학교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대학교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시간표를 짜는 것이죠)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선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없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운영이 잘 된다면 시범사례로 여러 매체를 타게 될 것이고 김제 홍보는 물론,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사 오는 사람도 늘겠죠.

3. 김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살기가 빠듯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김제 자체에서 중간 도매상을 없앤 직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유는 지평선 우유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김제 낙농가에서 나오는 우유를 김제 시내 소·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 도매상이 없기 때문에 농가는 우유를 판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김제 시민들은 일반 브랜드 우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사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신 중간 도매상 역할을 시청에서 해 주는 겁니다.(대신 시청에서도 우유가 팔리는 만큼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음) 쌀이나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주변이 다 농가들인데 과일이나 채소 값은 서울보다 비싸더군요. 집값만 싼것이 아니라 먹거리도 저렴해야 사람들이 김제로 올 맛이 나겠지요.

1번을 제외한 2,3번은 허가만 떨어지면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요비용은 정확히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으나 실현만 된다면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금연거리 및 흡연구역 지정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	----	-------

비흡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소위 길빵이죠. 길거리 흡연에 의한 비흡연자들의 불쾌감과 불편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가 기호식품인데 길거리 흡연이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예전에 본 글에 의하면 콜라도 기호식품인데 길거리에서 누가 얼굴에 콜라를 뿌려대면 기분이 어떻겠냐는 글에 격하게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건강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등에서 흡연을 하면서 담배 든 손을 자연스레 내리다가 옆에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에 담배불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이었나요? 강남역에 금연거리가 생겼습니다. 정말 부럽더군요. 담배 냄새 없는 길거리, 담배 풍초 없는 길거리..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 종로구도 금연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우선은 대학로나 인사동 청계천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부터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지역 금연은 흡연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으니 일정 간격으로 흡연구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2-3블럭 당 1개 정도?

흡연구역은 외부와 차단된 완전 밀폐된 공간으로, 흡연자들의 출입에 따라 안쪽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이중 문으로, 그리고 안쪽 공기는 정화되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선 거리 조성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에 약 1~2천만원 정도, 그리고 흡연자 적발 등을 위한 안내요원 2명씩 5개팀 정도 한달에 약 1천5백만원 정도.

- 안내요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등 소외계층으로, 적발 시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등 - 그리고 흡연구역 설치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단, 금연구역의 쾌적한 환경을 강남대로처럼 길거리 중앙에 화단을 놓는 짓은 안했으면 합니다.

통행에 엄청 불편하더라구요. 차라리 차도와 인도 사이에 가로수를 더 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복지비나 복지부와 연계를 한다거나 연말마다 하는 보도블럭 공사를 한 해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정읍시 자연휴양림 조성	지역	전라북도
----	--------------	----	------

우리고장 정읍은 천혜의 단풍을 간직한 국립공원 내장산과 인근의 입암산, 두승산 등의 명산이 있고, 동부지역은 섬진강의 상류로 맑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느 지자체보다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4계절 관광도시를 위해 내장산리조트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권과 광주, 전남권에서 30~40분 거리, 대전에서 1시간, 2014년말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정읍역까지 80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풍부한 산림자원과 지리적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하나 없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양림으로 걸맞는 사유지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비와 민자분을 들인다면 많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민선6기에는 우리고장에도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 사업기간 : 2015 ~ 2017 (3개년간)
- 위 치 : 내장산 국립공원 주변, 또는 산내면 구절초공원 일원
- 규 모 : 30만 제곱미터 정도
- 시 설 : 펜션 10동(통나무집, 황토집 등), 체력장(족구장, 농구장, 탁구장 등) 산책로, 등산로 등
- 소요예산 : 170억원 정도
- 재원방안 : 국비 5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20억원(펜션동)

제목	작물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역	충청남도
----	---------------------	----	------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물을 스스로 기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작물을 취득해서 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경로나 입소문 등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외국에서 씨앗이나 묘목들을 들여와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인 경우도 있지만 약효와 효능에 대해 기대를 하고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작물을 시험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취미나 자신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까 하는 소박한 기대로 재배를 합니다. 따라서 재배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얻은 정보를 확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작물정보센터가 인터넷에서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작물정보센터(<http://www.nics.go.kr/cropwebzine/>)가 있지만 사실상 작물에 관한 학술적인 정보만 수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물의 재배나 관련 사항들은 모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작물정보는 재배정보, 작물효능, 관련 법령 등 재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정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는 수많은 열매류(berry 종류)가 식품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칭되는 명칭조차 통일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때 필요한 거름, 재배법 등은 키워본 사람끼리만 공유되고 그 방법이 최선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작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파악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작물 재배에 대한 정보가 공신력 있는 것으로 모아 한 번에 제공된다면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작물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건강식품으로 도입되는 작물들의 효능에 대해 확인된 부분을 제공한다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동승(카풀) 활성화	지역	경상남도
----	---------------------------	----	------

☐ 제안의 배경

- 에너지 절약 및 교통체증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

☐ 제안내용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카풀 사이트 구축으로 운전자와 동승자를 연결

☐ 세부방법

- 운전자의 기본정보 입력(차량의 종류, 출발지역, 도착지역, 출발시간, 도착시간)
- 동승자의 기본정보 입력(출발지역, 도착지역)
- 운전자와 동승자의 출발 도착지역이 일치시 이용가능

☐ 개인정보등 보호

- 회원가입 후 인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상호 의사가 일치된 경우에 한함.
- 자치단체의 공인사이트 활용으로 신뢰도 제고

☐ 기대효과

- 시민편의 도모
- 에너지 절약 및 교통체증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억제

제목	농업인 연구 및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	지역	경기도
----	----------------------	----	-----

각 작물별로 공모제를 통한 심사 평가후(작기별로) 실시하여 기존 해외 연수나, 선진 기술 습득에 우선 배정하며 참가가는 종목별 최소 20명 정도를 사전 연구 심사대상으로 선정하되 모든 농민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방향을 설정 연구하게 한다. 농업경영체로서의 분석 및 판매 생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며 주변 농가에 전파되어 실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1. 기존 논문형식을 포함한, 사진 및 부연 설명의 녹화나 영농 경영 장부를 통한 분석 등을 활용
2. 선발된 자들에 대하여 경영 운영 자금 필요시 1억을 지원하되 연리1.5%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그 방식은 다양화할 수 있다.
3. 재원의 마련은 년차별 10억 확보하여 10년간 준비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의 원금회수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4. 출연된 재원은 원금회수와 함께 재배분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목	농촌 마을의 시골길 정비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 현재 농촌 마을의 시골길은 미정비 사항이 많음

☐ 주요내용

- 사유지를 동네 길로 사용하여 개인의 재산상 침해가 있음
- 시골 마을길의 경우 지목상 도로는 없는 실정이며, 예전 구거가 일부 잡혀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모른채하거나 알고도 가만히 있는 실정으로 구거는 또 다른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 사유지로 골목길이 나있는 상황임.
-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구획을 정비하여 정확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비가 필요함
- 지역주민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음
-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는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매매를 통한 시골길 정비가 필요함

☐ 재원조달방안

- 경계측량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부담하거나 지자체:개인이 50:50으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정비를 요하는 개인과 협의를 통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함

제목	공감 200%의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지역	경기도
----	----------------------------------	----	-----

안녕하세요, 파주시 금촌2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4년의 우리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PC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이동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모바일 APP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제안이유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SNS를 통한 공감을 형성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 APP을 통해 제공.

☛ 주요내용

파주시에는 18개의 읍, 면, 동이 존재합니다. 그 중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금촌2동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공약을 제안하려 합니다.

☛ 주요내용_목표

파주시 금촌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접하며, 자신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_방법

현재 국내 휴대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애플사의 ios 운영체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개발자 혹은 앱 제작 업체에서 평균 1개의 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일입니다. 또한 금촌2동 APP을 제작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함께 스토리보드를 작성합니다. 스토리보드의 내용에는 메뉴의 구체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PP을 통해, 파주시 금촌2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가 무료로 동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 주요내용_소요예산

한 개의 APP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소요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디자인/마케팅 등 각 분야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일로서, 대표적으로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금촌 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의 방법을 활용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작비용을 최적화 한 금촌2동만의 모바일 소통 공간이 탄생합니다. 지

금까지 공감 200%의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모바일 APP 정책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을 거주하고 있는 금촌2동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길 바라며, 따뜻한 동네로 거듭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옛 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 방안	지역	인천광역시
----	-------------------	----	-------

부평구 부평6동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비워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부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그 옆에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부지에 지방대학 유치를 제안합니다. 대학유치는 지역상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인교대 이전과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있는 것을 볼 때, 지역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다시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평역이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대중교통성이 좋습니다.

둘째는 벤처기업 육성의 장소로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청년실업이 문제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으로만 들면 어떨까 합니다.

셋째는 부평과 인천지역의 예술인, 체육인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연극이나 미술, 음악, 연주, 뮤지컬, 운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천과 부평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큰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재산이나 재달조달방안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사회를 살리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문화 특구 개발 및 문화 복지 강화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종로구는 옛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만큼, 관광자원의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게 여겨짐. 하지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궁이나 인사동을 방문하는 것 이상의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지역 예술

가들을 발굴, 지원하고 이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예술활동을 하며 문화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및 지역 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함.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소의 계층에게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주요내용

- 1) 서촌, 북촌 공예문화 지구 지정: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공방을 열고 있는 지역인 서촌, 북촌에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공예를 특화로 한 문화지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시행. 임대계약시 체인점 등 대형 상권의 진입보다 예술가의 임대를 우선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해 선발한 예술가들에게 임대료를 일정 지원하도록 함. 해당 지역 예술가들중 제품 제작, 공예프로그램 개발, 전시회 개최 등에 우수한 활동을 보이는 예술가들을 뽑아 일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을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지원받은 기관에 환원토록 하거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공예교실 등에 쓰도록 함. 단 서촌은 현대적 공예, 북촌은 전통 공예를 테마로 문화지구 조성.
- 2) 공예 문화지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서촌, 북촌 공예문화지도를 만들어, 각 공방들 위치 및 작가소개, 공예교육 프로그램 소개, 맛집 지도 등을 개발. 관광안내소 등에 팸플릿과 지도를 배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방문을 유인하도록 함. 팸플릿 인쇄 비용이 부담된다면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토록 함.
- 3)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대학생 정기 문화공연: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문화공연 동아리와 연계하여,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나 가정에게 1년 4회의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선보이도록 함. 예를 들어 음악, 춤, 연극, 성악 등 문화공연과 관련된 대학생 동아리들의 신청을 받고 문화소의 계층을 초대해서 공연을 함. 만약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있다면 사전에 선발해서, 대학생들과 같이 연습하여 무대를 꾸미게 할 수도 있음.

■ 소요예산

- 1) 문화지구 지정 및 예술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도록 함, 이후 수익발생시 지원되었던 금액을 재능기부 형태나 관련기관에 일부 지불하여 환원토록 함. → 1년에 10명의 예술가를 선발하여 지원, 임대료의 10%/ 전시회, 공예프로그램 개발, 제품제작 비용의 10~20%지원(1년에 1인당 300~400만원 지원, 연간 예산 3,000~4,000만원)
- 2) 문화지구 지도 개발: 홈페이지로 개발시 예산 500만원/ 팸플릿 제작시 1년간 10개 관광안내소에 1만장씩 배치, 10만장 인쇄시 연간 예산 500만원
- 3) 문화공연: 대학생들을 재능기부 봉사활동 형태로 모집하여 비용절감, 문화공연 시설 비

용은 지역 대학교 강당, 중고등학교 강당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1회 예상 예산 300~400만원, 연간 예산 1,200~1,600만원

재원조달 방안

문화지구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고 지원금액으로 인한 수익발생 시 일부를 환원 받도록 함/ 문화공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중고교와 연계하여 비용절감,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에 요청

제목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제안	지역	충청북도
----	-----------------------	----	------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개발시설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 세종시의 성공 출범과 조기 안착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분원 건립 추진
- 통일부, 외교통상부, 안전행정부 등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1.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 바이오시밀러, 태양광 관련 산업 등의 수도권 내 입지 재검토
 - 수도권 공항, 항만지역 내 제조시설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5,000억
 - 초정~미원 지방도 국지도 승격 5,000억
 - 영동~보은간 국도건설사업 조기 시행 1,000억
 -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6,000억
 3.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추진
 - 화물청사 증축 1,500억
 - 천안~공항 복선전철 연장 1조
 -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연계철도망 구축 3조

